

# 月坡集

(柳彭老 將軍 遺稿集)

劉 相 鐘 譯

谷 城 文 化 院



## 發 刊 辭



谷城文化院 院長

金 吉 榮

月坡 柳彭老 將軍은 저희 고장 玉果面 合江里에서 出生 成均館學論로 在任하던 29才때 倭賊이 國土를 侵略하게 되니 即時 落鄉하여 全北 淳昌에서 義兵을 募集 玉果에 集結한 後 大規模 編隊를 組織코저 霽峯 高敬命을 찾아가 同年 5月29日 潭陽 秋城館에서 梁大樸과 三人이 倡義起兵에 關한 具體的인 問題를 論議하여 湖南聯合義兵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그結果 壬亂義兵 가운데 最大規模인 6,000餘名의 大군을 糾合하여 敬命을 主將으로 自己는 左副將 梁大樸은 右副將으로 하여 全軍을 五行進으로 編成 6月11日 勤王 北上하다가 7月8日 錦山城에서 先鋒將이 되어 出陳 同10日 官軍은 北門으로 義兵은 西門을 向해 쳐들어 갔으나 官軍이 一時에 무너지니 義兵도 무너지기 始作하여 主將이 危機에 處한것을 보고 달려가 倭兵과 戰鬥中 殉國하였다.

月坡의 崇高한 救國忠節은 後孫들의 沒落과 微弱으로 業績이 묻혀 버리고 毀損 되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百方으로 史料蒐集을 追進中 1992年 4月 5日 玉果儒林과 從中에서 月坡 時祭가 있다는 所聞을 듣고 現地로 달려가 若干의 資料를 얻었으며 때마침 月坡集을 研究하다 他界한 故 清和 劉相鐘 博士 追慕事業會에서 遺稿를 出刊한다는 消息을 崔承鎬 趙康奉 奉在鍾 三教授로부터 듣고 翻譯文 引用에 協助를 求하여 本誌가 發刊케 됨을 眞心으로 金奉斗 會長과 全任員에게 感謝의 뜻을 表하며 끝으로 故 清和先生의 靈前에 삼가 冥福을 빌며 後學들에게 愛國忠節의 龜鑑이 되었으면 한다.



教旨

進士柳彭老文科乙科

第五人及第出身者

萬曆十六年四月初十日

紅 牌

教旨

柳彭老贈

中訓大夫

司諫院司

諫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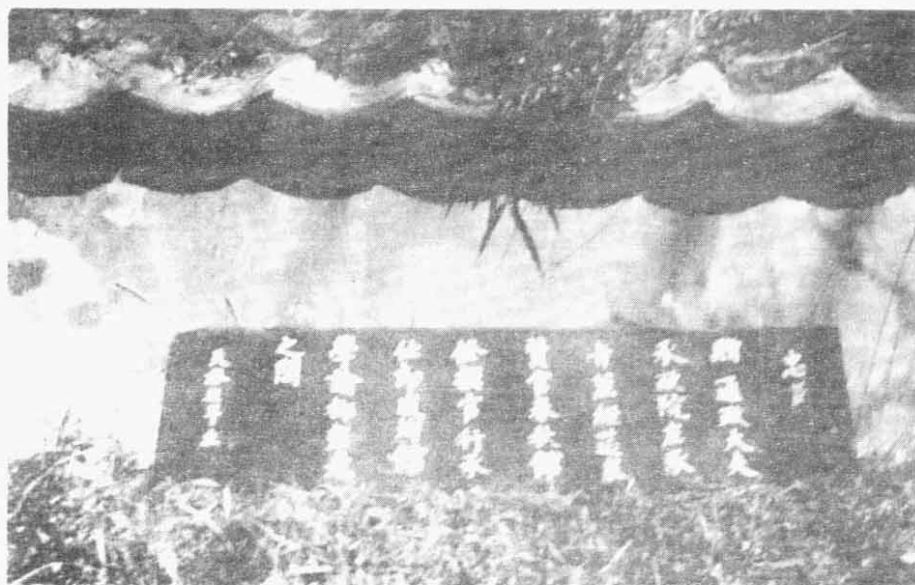
萬曆二十一年九月十一日



司諫贈職 教旨



旌閣全景



忠巨旌閣 懸板



月坡 柳彭老墓



義馬塚

贈通政大夫左承旨月波柳先生之墓

配淑夫人原州金氏祔

公諱彭老字子文辰與梁大樞安政同春信泰合于冠朝年公既登第選爲庶子出守平康府遷中書平章政事  
開禧北歸山後與防勦使郭瑛馬左右翼直櫜駝軍賊入北廷公與瑛合兵討之瑛敗賊乃遁公遂遷居平康府  
朝官任曰夫將出乎未也公處家馬逆入僕擁馬一前公以刃斃之賊乃遁公遂遷居平康府  
公曰吾豈惡大將而尚乎出刃斃及歿身并藏大將罪死許在自宗元於族長月是年也公之自諱曰  
司隸從官蔡加贈左承旨台配曰原州金氏夙有聞於公之自諱曰  
以自是雖與公爲未久公亦其而進朝廷公之自諱曰  
公之自諱曰  
公之自諱曰

月坡 柳彭老墓碑(拓本)



## 월파집(月坡集) 서문

엄군 명섭(嚴君命燮)이 월파집을 안고와서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 책이 중간에 유실이 되어 본손들이 애를 써서 찾아 내가지고 간신히 보관을 해왔는데 또 다시 좀이 먹고 쥐가 뜯어 먹어서 등서를 한것입니다」 하였다.

나는 책을 어루만지면서 탄식을 했다. 공과 같은 정충대의(貞忠大義)로서 이 문집이 근사백년 동안을 인출이 못되었다는 것은 실로 세도(世道)를 위해서도 큰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에 본손 흥제(興齊)가 와서 문집의 서문을 부탁했다. 대저 공의 충성과 업적은 실로 글이 아니더라도 드러났고 글도 서문이 아니더라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히 사양하지 못한것은 나의 이름이 그 문자속에 걸리게 된다는 것도 영광이기 때문이다. 아! 공은 영특하고 뛰어난 분으로서 충효의 이념과 온화한 덕이 있었던 분으로서 왜란이 날 것을 먼저 알고 세번이나 상소를 했다가 내쫓기고 무기와 복장을 예비하여 맨먼저 창의(倡義)를 하고 고계봉 경명(高霧峰敬命)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양공 대박(梁公大樸)은 우부장(右副將)이 되고 공은 좌부장(左副將)이 되어 임진년 7월 5일 적이 금산을 범했다는 말을 듣고 공이 호서의 의병장 조제독 헌(趙提督憲)에게 격문을 보내 군사를 합하여 적을 치자고 하고 공이 선봉이 되어 금산으로 진군을 해갔다. 9일에는 와평(臥坪)으로 옮겨 방어사 곽영(防禦使郭嶸)의 군과 좌우익이 되어 토성(土城)의 적을 치니 적의 형세가 크게 꺾였다. 다음 날에는 의병이 도전을 하자 적의 선군이 나와서 싸웠으나 불리하여 물러가거늘 의군이 승승하여 전진해 나가자 곧 적군이 성벽을 비우고 모조리 나오니 방어군이 먼저 무너지고 의군도 따라서 깨지고 말았다. 이날에 바람과 우뢰가 크게 일어나고 장사들이 항오를 잃었는데 공은 홀로 말이 건장하여 먼저 나왔다. 그리고 그 종 충남(忠男)에게 「상장께서는 벗어났느냐?」 하고 문자 대답하기를 「못하셨습니다」 하거늘 공이 「내 말을 돌려라」 했으나 종이 말앞을 가로막아 나가지 않았다. 공은 칼을 뽑아

종의 팔을 잘라버리고 다시 어지러운 진중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수십명의 적을 베고 대장을 찾아냈다. 대장은 공을 돌아보며 「나는 이미 벗어날 수 없으니 그대는 달려 나가게」 하였다. 공은 말하기를 「난을 당하여 살기를 도모하지 않고 국사를 하는 것이 의리입니다」 하고 결국 그 머리를 가리우다가 함께 죽으니 이때에 나이가 이십구세였다. 그 타고있던 말도 많은 상처를 입고 온몸에 피를 흐리고 있었는데 슬피 울면서 한번 뛰더니 공의 머리를 찾아 입에 물고 곧바로 달려 옥과 합강(玉果合江)의 본가로 갔다. 이때에 부인 김씨는 공이 싸우러간 뒤로부터 뒤안에다 단을 설치하여 놓고 밤낮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문을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꺼꾸러져 정신을 잃었는데 곁의 사람의 부축을 받아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말은 이미 죽어 있었고 오직 하나의 머리만 땅에 있거늘 곧 방으로 받들고 들어가 옷과 이불을 갖추어 엮을 하고 남원부의 서쪽 생애동(生涯洞) 선산 아래에 장사 지냈다. 이때에 8도의 의병들이 모두 공의 성공을 깃발 위에다 쓰고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마땅히 이래야 한다」 하였고 또 공의 부하 삼십칠인이 공이 순절한 땅에 나아가 실성통곡을 하고 각기 패도를 뽑아 자결을 하여 함께 죽었으니 어찌 장열하지 않는가 상(上)으로부터 대사간(大司諫)을 증직하고 삼강문(三綱門)을 세우도록 명했으며 계사년에 도승지로 가증(加贈)하고 치제(致祭)를 했으며 광주의 포충사(褒忠祠)와 금산의 종용당(從容堂)에 배향하여 지금까지 제향을 올리고 있다. 생각해 보건대 공이 일찌기 복제집(復齊集)에 서문을 지으면서 「뒤에 이 문집을 읽는 사람은 그 글만 읽을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씨를 더듬어 본다면 효제(孝悌)의 마음이 뭉클하게 날 것이요 충신(忠信)의 행실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진취될 것이다. 이 문집이 간행된 것이 어찌 세도(世道)의 다행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아! 나도 공의 문집에 대하여 똑같은 말을 하는 바이다. 공의 이름은 팽로(彭老)요 자는 군수(君壽)니 문화인(文化人)이다.

임진년 4월 상보름에

완산 최병심(完山崔秉心) 서함

# 차 례

## 월파집 1권(月坡集 卷一)

월파집 서문(月坡集 敍)·····완산 최병심(完山 崔秉心)·····5

### 시(詩)

6세의 작(六歲作)·····	11
우연히 읊다.(偶吟)·····	11
온수(溫水)·····	12
관송재의 벽위에 쓰다(題觀松齋壁上)·····	12
후조정장대방의 회증한 시를 회답해 올리다.(奉和後凋鄭丈大防戲贈韻)·····	12
후조의 시를 붙임(附後凋)·····	13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하다.(望海發歎)·····	13
이성징정귀가 찾아와 사례하다(謝李聖徵來訪)·····	13
월사의 시를 붙여둠(附月沙)·····	14
양산인의 시를 회답하여 주다(和贈楊山人)·····	14
산인의 시를 붙여둠(附山人)·····	14
두견새 소리를 듣고 느낌이 있어서(聞鶉有感)·····	15
허화중증과 구중의 형제에게 주다(許和仲愷久仲兄弟)·····	15
스스로 깨우침(自警)·····	16
하서시(河西柿)·····	16
강릉을 지나면서 충경공을 생각한다.(過江陵慕忠景公有感)·····	17
병서를 보면서 느껴 읊다.(觀兵書感吟)·····	17
울계장공급을 만하다(挽慄溪張公伋)·····	18

조익산 경중을 만하다.(挽曹益山景中)·····	18
복제선생 수성을 만하다.(挽復齊吳先生遂性)·····	19
허봉사 지립을 만하다.(挽許奉事之立)·····	19
최사과 여개를 만하다.(挽崔司果汝漑)·····	20
인제 홍상섭을 만하다.(挽忍齊洪相公暹)·····	20
임당정상공유길을 만하다.(挽林塘鄭相公惟吉)·····	21
영규선사에게 주다(贈靈圭禪師)·····	21
높은 데에 올라 서울을 바라보다(登高望京)·····	22
안진사훈을 만하다.(挽安進士暉)·····	23
정일현침의 유거에 쓰다(題鄭逸軒戈諶幽居)·····	23
조정에서 물러나 두시를 차운하다(朝退次杜韻)·····	24
안은사지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여(訪安隱士社不遇)·····	24
이효자 광익의 애일당에 쓰다(題李孝子光翼愛日堂)·····	25

## 소(疏)

태학에서 선비양성할 것을 청하는 상소(請太學養士疏)·····	27
임진년의 상소(壬辰年 上疏)·····	33
두번째 올린 상소(再疏)·····	44
세번째 올린 상소(三疏)·····	60

## 문(文)

제가에게 통하는 문(通諸家文)·····	67
도내에 내는 격문(檄道內文)·····	69
군사를 내는 격문(出師檄文)·····	73
영남에 내는 격문(檄嶺南文)·····	76
모든 도에 통하는 문(通諸道文)·····	79

## 월파집 2권(月坡集 卷二)

### 설(說)

유가설(儒家說)·····	85
병가설(兵家說)·····	101
농가설(農家說)·····	109

### 잡저(雜著)

이단을 배척함(批異端)·····	119
분경을 억누름(抑奔競)·····	120
포저를 금해야 한다.(禁苞苴)·····	123
복제 문집 서문(復齊集序)·····	126
후조당기(後凋堂記)·····	129

## 월파집 3권(月坡集 卷三)

일기(日記)·····	135
-------------	-----



# 월파집 1권

(月坡集 卷一)

시(詩)

소(疏)

문(文)





## 시(詩)

### ○ 6세의 작

#### (六歲作)

공이 6세때에 부친 참판공(參判公)이 윤문효공(尹文孝公)의 6세에 지은 시「북에는 둔산령이 있고 남에는 지리산이 있으니 원컨대 두산의 수명을 빌려 만세토록 어머니 얼굴을 받들었으면 (北有屯山嶺南有智異山願借兩山壽萬歲奉慈顏)」이란 글귀를 의뢰 드려주며「너도 지금 6세가 되었으니 그렇게 지을 수 있겠느냐?」하자 공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지어 올렸다.

앞에는 합강(合江)의 물이 있고  
뒤에는 옥출산(玉出山)이 있으니  
원컨대 강과 산의 수명을 빌려  
아버이의 얼굴만을 기쁘게 받들었으면...

### ○ 우연히 읊다.

#### (偶吟)

사(社)<sup>1)</sup>의 속에서 정승이 나고  
바지가랭이 밑에서 장군이 났다.  
이제와 옛이 비록 다르다고 하지만  
영재(英才)는 본시 무리에 뛰어난것<sup>2)</sup>

1) 社: 마을 성황당의 제사

2) 漢의 陳平이 少時에 마을의 社祭에서 分肉을 잘 했는데 나중에 宰相이 되었다.

○은수

(溫水)

아버지를 모시고 길가에서 쉬는데  
목마르시다고 쉽게 마시면 병에 해롭지 않겠는가  
차가운 물을 따뜻한 물로 만들기 위하여  
머리위 차가운 하늘 태양별에 비춘다.

○관송제(觀松齊)의 벽위에 쓰다.

(題觀松齊壁上)

소나무 가장 높은 가지를 보니  
재빨리 춘풍을 얻어 4시로 통하누나  
그래도 너무 강해 쉽게 불어질까 하노니  
시냇가에 천천히 자란 것만 못하다.

○후조정장대방(後凋鄭丈大防)의 희증(戲贈)한 시를  
화답해 올린다.

(奉和後凋鄭丈大防戲贈韻)

어르신 뵈고서 가시는 곳 따라가니  
사종(詞宗)으로 당세에서 제일 먼저 알려졌다.  
설산<sup>1)</sup>(雪山)의 좋은 경치를 모름지기 기록해야 쟁기에  
가는 명정마다 시를 쓰셨다.

---

韓信은 少時에 淮陰에서 부랑少年의 협박을 받아 그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나가 겹쟁이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漢의 大將이 되었다.

1) 雪山: 蜀中の 높은 名山

## ○ 후조(後凋)의 시를 붙임

## (附後凋)

나는 인수<sup>1)</sup>(仁叟)이고 그대는 원지<sup>2)</sup>(元之)  
 똑같이 방명을 후세에 전하세나.  
 작란같은 말이지만 실정에서 나온것이니  
 화려한 풍축에다 시를 한번 써보세.

○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을 하다.<sup>1)</sup>

## (望海發歎)

머리 들고 멀리 해뜨는 동쪽 바라보니  
 저것이 보통 해상의 배가 아니다.  
 나라에 난리가 예로부터 있는 것이니  
 아마도 십년을 벗어나지 않으리라.

## ○ 이성징정귀(李聖徵廷龜)가 찾아와 사례하다.

## (謝李聖徵來訪)

옛 절 고요하고 경루(更漏)는 천천히 두는데  
 글 읽는 소리 끊기고 오랫동안 앉았다.  
 달밝은 백사장 위에 사람의 그림자 오니  
 이백(李白)같은 무장임을 묻잖아도 알겠다.

1) 仁叟: 宋의 畢士安의 字는 仁叟니 參知政事 文簡公이요,

2) 元之: 元之는 王禹稱의 字니 禹稱이 七歲時에 士安이 磨石(맷돌) 詩를 지으라고 하자  
 즉석에서 但存心裡正, 無愁眼下遲, 若人輕着力, 便是轉身時라고 지어 바쳤다.

1) 이 시는 임진란이 나기 전에 변란이 날 것을 걱정하는 시임.

○ 월사<sup>1)</sup>(月沙)의 시를 붙여둠

(附月沙)

동갑으로 너무나도 늦게 알았다.  
도(道)를 배운 오늘부터는 떨어지지 말아야지.  
절간에 있는 일년 교정이 두터웠으니  
이사이 청한한 맛 아논이 적으리라

○ 양산인(楊山人)의 시를 회답하여 주다.

(和贈楊山人)

말 이름은 오리(五里)지만 천리를 능히 달리니  
미물(微物)도 신명하여 아는 것이 있나보다.  
하늘이 너를 내어 나를 기다렸다면  
남아가 반드시 어려운 때를 구제하리라.

○ 산인의 시를 붙여둠

(附山人)

집에 있는 망아지 하나 이름이 오리(五里)인데  
그 고삐를 놔둔채 세상에 아논이 없다.  
근일에 구유를 타고 자꾸만 울어대니  
아마도 신룡(神龍)이 나갈 때가 되었나 보다.

---

1) 月沙: 李廷龜의 號

## ○ 두견새 소리를 듣고 느낌이 있어서

## (聞鶉有感)

소쩍새 날아다니며 정처가 없는데  
 꽃이 핀 숲에는 온갖 새 제각기 간다.  
 소리 소리 어찌 그리 촉(蜀)에 못가 한 하느냐?  
 봄바람을 기다렸다가 옥계(玉階)로 가려므나

## ○ 허화중 증(許和仲愷)과 구중(久仲)의 형제에게 주다

## (許和仲愷久仲兄弟)

원과 계<sup>1)</sup>(元和季)의 형되고 아우되기 어려움이여  
 재주와 이름을 누가 차등을 하리요?  
 양춘<sup>2)</sup>(楊椿)은 나이가 늙지 않았고  
 순상<sup>3)</sup>(筍爽)의 덕은 흠이 없어라.  
 자형<sup>4)</sup>(紫荊)이 나무에 향기가 따듯하고  
 상채<sup>5)</sup>(常棣)의 꽃에 빛이 나누나  
 정위<sup>6)</sup>(庭幃)도 구경<sup>7)</sup>(具慶)을 하신 중이니  
 인세(人世)의 즐거움 어떠하리요.

1) 元季: 漢의 元方·季方 兄弟가 모두 學行이 있어 當時 사람들이 그들을 「누가 兄이라 하기 어렵고 누가 弟라 하기 어렵다」고 하였음.

2) 楊椿: 唐人이니 兄인 播와 弟인 津으로 더불어 모두 友愛가 돈독하고 高位에도 오른 名人이었음.

3) 筍爽: 後漢人 筍靖의 弟 文才와 節行이 있었음.

4) 紫荊: 田氏兄弟가 和睦하면 園中の 紫荊이 잘 피어나고 不睦하면 紫荊이 말라졌음.

5) 常棣: 나무의 이름인데 詩經에 常棣之華 惇不韡韡 凡今之人 莫如 兄弟란 詩를 引證한 말로 兄弟의 情誼를 상징한 말.

6) 庭幃: 부모를 말함. 위는 포장같은 것이니 방에 치는 것.

7) 具慶: 父母가 다 계신 것. 具는 모두의 뜻이요 慶은 경사스럽다는 뜻.

○ 스스로 깨우침

(自警)

세상을 사는데는 부드러움이 귀중하니  
강하고 거센 것이 재앙의 기틀이라.  
급한 곳에서 마땅히 누그림을 생각하고  
편한 때에 위태로움을 잊지 말라.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못한듯이 하고  
일을 임할 때는 어리석은듯이 하여라.  
일생동안을 이런 훈계 따르면  
참으로 좋은 사나이리라.

○ 하서시

(河西柿)

이름을 하서<sup>1)</sup>(河西) 감 이라고 하니  
화중<sup>2)</sup>(化中)에 물리(物理)가 오래가도다.  
두 사람이 부끄러워 하여 서로 양보하니<sup>3)</sup>  
천재에 느낌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래공(萊公)의 백<sup>4)</sup>(栢)에 비할만 하고  
소백(召伯)의 당<sup>5)</sup>(棠)과 짝지을만 하다.

1) 河西: 金麟厚의 號.

2) 化中: 다스린 고을의 안.

3) 兩人慙俱讓: 河西선생이 다스린 고을에서 선생의 感化를 받고 다투던 二人이 부끄러워 하여 서로 양보했다는 말인데 이 감과 어떤 관련이 있었던것 같음.

4) 萊松栢: 宋의 寇準이니 萊國公을 封하였다. 일찌기 巴東을 지키면서 縣庭에다 雙栢을 심었는데 그가 떠난 뒤에 縣人이 사랑하며 公의 德을 칭송하였음.

5) 召伯: 周의 姬奭이니 召國을 封하여 方伯이 되었다. 善政을 베풀어 그가 쉬어간 甘棠 나무를 백성들이 아끼고 甘棠詩를 지었음.

선생이 이제는 가신 뒤인데  
한 나무만이 스스로 봄빛이로다.

○ 강릉(江陵)을 지나면서 충경공<sup>1)</sup>(忠景公)을 생각하다.

(過江陵慕忠景公有感)

우리 집안 8세가 형제같이 홀름했으며  
자손에게 전해내려 또 다시 공이 나셨다.  
중국에 사신으로 세번을 가시었고  
변경고을 두번이나 다스리며 혜택 끼쳤다.  
변경위 추운(秋雲)밖에 기러기 돌아가고  
성남(城南)의 저문 빗속에 말은 서있다.  
사람들 지금까지 출재(出宰)를 노래하고,  
생사당<sup>2)</sup>(生祠堂) 높이 섰으니 전날 짐작케 한다.

○ 병서(兵書)를 보면서 느껴 읊다.

(觀兵書感吟)

병서를 많이 읽으면 군사를 잘 쓰나니  
영웅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름이 났다.  
문(文)만 닦은 긴긴 날에야 진실로 어디다 쓰랴만  
근래에는 무술도 강습해야 할 때다.  
세상이 어지럽기 전엔 나라일이 없지만  
만약 세상에 쓰이려고 이몸이 태어났다면  
구구하게 태평속에서만 늙지 않으리라.

1) 忠景公: 이름은 亮 官은 令相.

2) 生祠堂: 살아있는 분을 위하여 세운 사당.

○ 율계장공급(慄溪張公伋)을 만(挽)하다.

(挽慄溪張公伋)

충성과 효도로 대마다 벼슬한 집에  
공은 또 어버이를 정성다해 섬기었다.  
삼명(三命)이 중하여 우관(郵官)을 잠시 해보다.  
마침내 전리(田里)로 돌아가 한몸이 홀가분 했다.  
동계(東溪)의 위에 노닐던 자취  
풍악(楓岳) 산중에 같이 향기로운 어진 아들 있으니  
길강(吉岡)이 이로부터 영원히 이름 나리라.

○ 조익산경중(曹益山景中)을 만(挽)하다.

(挽曹益山景中)

공을 뵈은 옛날 공의 당에 들었더니  
오죽(梧竹)의 시원한 바람 자리에 가득했다.  
순리<sup>1)</sup>(循吏)로 전해진 이름  
모양(募仰)한이 많고  
생사당 덕을 칭송하여 오래도록 향기롭다.  
주의상 당의서<sup>2)</sup>(州庠黨序)가 모두 의뢰할 바가 없고.  
골목마다 마을마다 슬퍼하고 못잇는다.  
선학<sup>3)</sup>(仙鶴)은 훨훨 날아 어디로 갔나?  
푸른 솔만 예와 같이 춘광을 띄었도다.

1) 循史: 법도를 잘 지킨 官吏.

2) 州庠黨序: 州는 二千五百家 黨은 五百家 庠序는 學校.

3) 仙鶴: 사람의 죽음을 仙이 되었다고 美化하는 말. 옛날 丁令威가 神仙이 되어간지 千年만에 鶴이 되어 遼東의 華表橋에 돌아왔다는 故事에 기인함.



○ 복제선생수성<sup>1)</sup>(復齊先生遂性)을 만(挽)하다.

## (挽復齊吳先生遂性)

하룻밤 변방 서리 옥지<sup>2)</sup>(玉芝)가 시드니  
 가련하다 남녘에 철인(哲人)이 가셨다.  
 시서(詩書)의 옛 업(業) 임천(林泉)의 언약이요  
 효우(孝友)의 좋은 소문 원근이 안다.  
 복조<sup>3)</sup>(鵬鳥)는 가사(賈沙)의 연관(捐館)하는 날에 들어가고  
 보검<sup>4)</sup>은 오수(吳水)의 가경(加鯨)한 때에 나누어졌다.  
 구의<sup>5)</sup>(楸衣) 하겠다든 전약(前約)을 일찌기 받들었는데  
 이날은 건딜 수 없는 나의 사정(私情)으로 곡을 한다.

## ○ 허봉사지립(許奉事之立)을 만(挽)하다.

## (挽許奉事之立)

의기(意氣)보고 모두가 특출한 사람이라 칭하였으니  
 태산 교목(泰山喬木)의 가장 높은 가지였다.  
 자식을 가르치며 문호계(門戶計)를 생각하였고  
 벼슬하며 성랑(省郎)으로 더딘 진급을 한하지 않았다.  
 시서(詩書)가 책상에 가득하여 가난해도 즐겁게 살았고  
 성시(城市)에 감춘 종적 세상이 몰랐었다.  
 모든 일이 이제와서 하나의 꿈이 되니

1) 復齊: 李道孜의 號, 鄭寒岡述의 門人.

2) 玉芝: 훌륭한 賢人을 비유한 말.

3) 鵬鳥: 부영이, 漢의 賈誼가 長沙로 귀양갔을 적에 부영이가 지붕위에 와서 울었다. 賈沙는 賈沙가 귀양간 長沙란 말. 捐館은 官職에 있는 사람의 別世를 표현한 말.

4) 劍: 보검, 千將 莫測을 말함이니 이 두 칼은 雌雄劍이니 吳의 名劍으로 吳가 裁과 水戰할 때에 서로 나뉘어 졌다. 이는 亂局에 夫妻 같렸다는 말.

5) 楸衣: 옷끝을 걷어두고 구석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師弟의 義를 맺는 것을 意味함.

눈물로 쓰는 애시(哀詩), 건드릴 수 없는 마음.

○ 최사과여개(崔司果汝漑)를 만(挽)하다.

(挽崔司果汝漑)

선묘(宣廟) 당년에 여러 현인 모았는데  
오직 공의 추천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임종<sup>1)</sup>(林宗)이 명철하여 남의 표본이 되었고  
두보(杜甫)의 문장은 세상에 전해진다.  
정기(正氣)는 지금까지 익진(翼軫)<sup>2)</sup>으로 연해지고  
기(箕)를 타고 어느곳에서 풍연(風煙)을 구경하나?  
신후(身後)에 남은 경사를 알 수가 있으니  
뜰아래 모든 자손들 모두가 계련(桂蓮)에 올랐다.

○ 인제홍상섬(忍齊洪相暹)을 만(挽)하다.

(挽忍齊洪相公暹)

상국(相國)의 높은 품은 세상에 당할이 없고  
삼존<sup>1)</sup>(三尊)과 오복<sup>2)</sup>(五福)에 일신이 강건했다.  
시서(詩書)의 유업은 상자속에 전해오고  
잠조(簪組)의 좋은 가성(家聲) 옥당(玉堂)에 이어졌다.  
성대(聖代)에 요(堯)의 은택 많이 받았고  
청조(清朝)에 일찌기 순(舜)의 의상(衣裳)을 주워드렸다.  
송추(松楸)있는 백리 먼곳 천대(泉臺)의 위에

1) 林宗: 漢의 郭林宗.

2) 翼軫: 별이름이 연달아 있음.

1) 三尊: 爵·齒·德

2) 五福: 壽富·康寧·攸好德·孝終命

경월태성<sup>3)</sup>(卿月台星)이 밤마다 빛나리라.

○임당정상공유길(林塘鄭相公惟吉)을 만(挽)하다.

(挽林塘鄭相公惟吉)

지위는 삼경(三卿)이요 수는 팔순이니  
 인간의 복록으로 비할 사람 없으리라.  
 형<sup>1)</sup>(衡)을 잡고 오랫동안 청조(淸朝)의 의뢰한 바 되었고  
 탐(榻)을 내려주며<sup>2)</sup> 곧은 선비의 바른 말을 용납 해줬다.  
 교목<sup>3)</sup>(喬木)이 그늘지어 사업을 전하고  
 염매(鹽梅)로 조미<sup>4)</sup>(調味)를 하니 경륜<sup>5)</sup>(經綸)에 노련했다.  
 얼마나 공(公)과 사(私)로 애통하였나  
 오늘날 견딜수 없어 눈물이 수건에 가득하다.

○영규선사(靈圭禪師)에게 주다

(贈靈圭禪師)

호승(胡僧)의 골격이 범재(凡才)와는 다르니

---

3) 卿月台星: 달은 벼슬의 卿에 해당되고 별의 三台星은三公에 해당 된다는 古語引用으로祥瑞로운 달과 별이란 뜻.

1) 衡: 저울대, 즉 政治要路

2) 下榻: 陳蕃이 豫章太守가 되어 당시의 선비 徐孺子가 찾아오면 방석을 내려주고 가면 다시 걸어 버렸음.

3) 喬木: 孟子에 所謂故國者非有喬木之謂也有世巨之謂也의 말의 引用으로 世巨임을 表具한 말.

4) 鹽梅調味: 書經에 高宗이 傳說을 보고 苦作和羹爾惟鹽梅란 말을 한것을 引用한 것으로 나라의 정치를 맡은 것을 말함.

5) 經綸: 經은 베를 짜는데 날이요, 綸은 씨니 組織한다는 뜻으로 천하를 經營하고 다스림의 意味한다.

그냥 밥을 빌려 찾아옴이 아니로다.  
한번 사문(沙門)을 나서 지팡이를 날리면서  
얼마나 인경(人境)에서 먼지를 밟았던가  
팔도에 돌면서 목탁을 두들겼겠지  
사시의 가회<sup>1)</sup>(葭灰)가 날른 줄도 잇는다.  
금고 홍망의 허다한 일을  
나를 위해 아끼지 말고 입을 열어보게나

○ 높은 데에 올라 서울을 바라보다.

(登高望京)

연화(煙花)깔린 십리 풍경 경기(京畿)는 아스란데  
멀리 서울을 보며 못날음이 한이로다.  
인방<sup>1)</sup>(寅方)에서 솟은 해는 황도<sup>2)</sup>(黃道)로 돌고  
태갑<sup>3)</sup>(泰甲)의 붉은 구름(雲祥)은 자미<sup>4)</sup>(紫薇)를 감돈다.  
모든 별 북신(北宸)을 둘러 아마도 북으로 감도리라.  
백천(百川)은 바다를 찾아 모두 동으로 가고  
천안(天顔)의 희색 있음을 누가 아리요.  
꽃속의 제신(諸臣)들 휘장결에 모셨으리

1) 葭灰: 옛날 樂器인 十二律의 대롱에 갈대의 재를 채워 놓으면 해당되는 달에 그 관에 든 갈대재가 날아가 버린다고 함.

1) 寅方: 동쪽.

2) 黃道: 中央의 日行道.

3) 泰甲: 泰는 正月, 甲은 東方.

4) 紫薇: 紫薇垣이니 帝座

## ○ 안진사훈(安進士璿)을 만(挽)하다.

## (挽安進士璿)

공은 당세에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여  
 빙설(氷雪)같은 모습이요 수월(水月)같은 정신이라  
 사문(斯文)에 종사하여 건실하고 해박 했으며  
 지금 시속을 전혀 어겨 부경(浮輕)함이 없었다.  
 아우 형이 연달아서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더니  
 부자가 서로 이어 고래를 탔다.(水死)  
 낙(樂)이 다해 애(哀)가 생김이 무슨 까닭일까?  
 만사를 차마 못쓰고 눈물만 자주 진다.

○ 정일헌침(鄭逸軒諶)의 유거(幽居)에 쓰다.<sup>1)</sup>

## (題鄭逸軒戈諶幽居)

도연명(陶淵明)의 신세되어 벼슬에서 물러와서  
 일헌(逸軒)에 높이 누워 회포를 풀었다.  
 북창의 시원한 바람 세상사를 잊어버리고  
 동쪽 울타리 국화 띄워 술을 마신다.  
 분어<sup>2)</sup>(焚魚)한 학사(學士)의 청산에 집이요  
 학을 찾은 선인(仙人)의 달밝은 누대  
 현량(賢良)은 망라해간 지금 성대(聖代)에  
 깊이 사니 군재(群才)로 취급될까 두렵고야

1) 공은 羅州에 살고 進士에 급제하여 벼슬이 正郎이고 나이 칠십이다.

2) 焚魚: 魚書를 태움이니 벼슬을 버림.

○ 조정에서 물러나 두시(料甫詩)를 차운(次韻)하다.

(朝退次杜韻)

궁중 누수<sup>1)</sup>(漏水) 바람이 전해 새벽 시각을 기다리다가  
완반<sup>2)</sup>(鸞班)이 들어감에 모두가  
고구<sup>3)</sup>(羔裘)이라  
남산의 붉은 해는 금궐(金闕)을 돌고  
북극(北極)의 상서구름 옥류(玉旒)를 감돈다.  
어류<sup>4)</sup>(御柳)는 바람에 떨적이고  
한식철이 가까운데  
궁화(宮花)는 이슬에 젖어 은근한 향기가 인다.  
희색 띠 천안(天顏)을 지척에 모시고  
기룡<sup>5)</sup>(夔龍)이 모두 봉지<sup>6)</sup>(鳳池)가에 모였다.

○ 안은사지(安隱士社)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여

(訪安隱士社不遇)

시원한 선장<sup>1)</sup>(仙庄)이 조출하여 먼지 없고  
석문<sup>2)</sup>(石門)에 찾아오니 해가지려 하누나

---

1) 漏水 : 물시계

2) 鸞班 : 官員들의 列

3) 羔裘 : 검은 갓옷

4) 御柳 : 궁중의 버들

5) 夔龍 : 舜의 二巨名

6) 鳳池 : 唐의 宮中에 있는 鳳凰池.

1) 仙庄 : 남의 집의 美稱

2) 石門 : 地名. 李白이 杜甫와 작별한 處.

청산의 앞길이 생소하지 아니하고  
대밭속에 한가로이 사는 주인이라  
붉은 살구 뜰에 가득 발자국만 있고  
흰구름 나무를 끼고 스스로 이웃 되었다.  
벽에다 붙여둔 그림 무슨 뜻인가?  
도깨비와 만군<sup>3)</sup>(蠻君)의 번쩍이는 개린<sup>4)</sup>(介鱗)의 모습

○ 이효자광익(李孝子光翼)의 애일당(愛日堂)에 쓰다.

(題李孝子光翼愛日堂)

당앞에 백일이 따듯함을 아끼면서  
학발양친 들앞에 시중듬이다.  
마음은 한결 같이 온화하여 즐겁게 해드리고  
새벽과 저녁으로 정성(定省)도 힘써 한다.  
공경하여 언제나 어른을 섬길줄 알고  
그 정성 다른 날에 임금도 섬기리라.  
아마도 자제들도 사도(斯道)에 종사하면서  
귀에 드는 가언(嘉言)을 항상 들으리라.

3) 蠻君: 남역 오랑캐 임금.

4) 介鱗: 거북이 껍대기 고기비늘 같은 것의 옷.





## 소(疏)

### ○태학(太學)에서 선비 양성할 것을 청하는 상소

#### (請太學養士疏)

신(臣) 엿드려 생각하옵건대 하늘이 이 백성들을 태어나시고 다스릴 자를 세워 세가지 일을 맡겼으니 백성의 수효를 불어나게 하는 일과 잘살게 해주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그것입니다. 수효만 많고 잘살게 해주지 않으면 백성이 살수가 없을 것이므로 반드시 전리(田里)를 제정하여 잘살게 해주고 잘살게만 해주고 가르치지 않으면 민성(民性)이 회복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학교를 세워 가르치는 것이니 이것은 3황(三皇)이 그 시초를 열어 놓았고 5제<sup>1)</sup>(五帝)가 그 행정을 묘하게 하였던 것이며 3대(三代) 때에는 그 법도가 갖추어졌던 것이니 하(夏)에서는 교(校)라고 하고 은(殷)에서는 서(序)라고 하고 주(周)에서는 상(庠)이라고 했으며 학(學)은 3대가 똑같이 했습니다. 학은 바로 지금의 태학(太學)이요 태학은 사람을 가르치는 곳으로써 현사(賢士)와 관련된 바입니다. 무릇 선비란 글을 위주로 하는데 글은 기(氣)를 위주로 하는 것이다. 대단합니다. 문장을 만들 때에 달리고 치닫고 늘리고 올리고 높고 낮고 하는 것이 모두가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충만한 사람은 그 글이 웅장하고 그 기운이 날카로운 사람은 그 글이 국한되고 비루하고 경박하고 교만스러운 사람은 반드시 온후한 말이 없고 편벽되고 각박하여 급한 성격인 사람은 반드시 음험하고 간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장이란 것은 배우는 데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르는

1) 五帝: 伏羲, 黃帝, 高辛, 堯, 舜

데에 관련이 있는 것이니 임금의 일대의 글을 이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 문기(文氣)를 길러줘야 하고 군자가 가의 글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 문기를 길러야 하는 것이니 이는 마치 천지가 만물을 바람으로 불어주고 햇볕으로 쬐여주고 비로 적시고 이슬로 불게하여 그것이 생육되고 장성하게 하여 각기 지극함을 다한 뒤에야 만물이 모두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면 일대의 글은 임금의 교양에 매여 있고 일가(一家)의 글은 군자의 기르기에 달려 있는 것이 마치 사람이 한 몸을 음식을 조절해서 먹고 사벽(邪僻)한 것은 막으며 음양을 순히하여 내고 드리고 낮과 밤을 때마추어 침식(寢食)하여 호흡과 영위(榮衛)가 각기 그 적의함을 얻은 뒤에야 사체(四體)가 편안하고 흥가분 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학교를 만들어 교육을 하는 것이요 군자는 스승이 되어 가르치고 인도를 하는 것이니 인의(仁義)로써 침투시키고 연마하며 예악(禮樂)으로써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기괴(奇怪)한 말을 금지하고 억제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 기(氣)를 떨어트릴까 함이요, 이상한 행위를 벌주는 것은 혹시라도 그 기를 혼란시킬까 해서입니다. 무릇 그런 뒤에야 우주가 트이고 모든 물상이 모조리 드러나 창해(滄海)의 번번함이나 여러 흐름의 모여든 것들이 모조리 다 갖추어지지 않겠습니까? 애석하게도 3대 이후로는 세상이 교양을 하는 임금이 없고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장의 기(氣)가 일글 어지고 찢겨져 온전하지를 못하고 박잡(駁雜)하고 순수하지를 못하니 이를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후세의 글이 3대와 같지 못한 것은 글이 편벽된 것이 아니라 시대가 예와 같지 않다」고 합니다. 아! 고금이 세상은 다르지만 문장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본시 전후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 가슴속에 길러진 바가 어떠한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천자의 국도(國都)로부터 시골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있지 않은 곳이 없어 사람으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거문고나 시를 배우며 읊고 노래 하는데 충분한 공부를 하고 나아가고 물러가고 읊하고 사양하고 하는 절차를 익히는 것이며 또 효제(孝弟)의 도리를 타이르고 관혼상제(冠婚喪祭)의 법을

만들고 춘추로 석채(釋菜)를 하며 향음주례(鄉飲酒禮) 등 양로(養老)의 예를 익혀 그 이목과 수족의 살갓이며 힘줄까지 학문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위에서는 사도(司徒)가 그 일을 도맡아 보고 악정(樂正)이 그 교(敎)를 높였으며 아래로는 시골에도 스승이 있지 않은 곳이 없어 그 교양이 세밀했기 때문에 그 성재(成才)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선비가 그대에 태어나면 그런 속에 들어앉아 놀면서 그 말은 외우고 그 맛을 알았으며 그 글은 보고 그 도리를 알았던 것이니 덕업(德業)이 날로 나아가고 달로 진취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그 행실을 논하여 사도에게 올리면 사도는 또 다시 논하여 국상(國庠)에 올리고 대악정(大樂正)은 다시 실상을 파악하여 왕께 고하여 그 논의를 확정해 가지고 벼슬을 주었는데 벼슬을 줄 때에는 그 재주의 크고 작음을 따라서 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예의(禮儀)가 흥행되고 인재가 많아 지고 풍속도 아름다워져 반백만 된 늙은이도 도로에 이고 지고 다니는 일이 없어져 왕도(王道)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때에는 의식(衣食)이 족하여 사람들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연속에 편안했으며 강상(綱常)이 밝아졌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저도 모르는 속에 모든 것을 잊을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뒤로는 능히 그런 제도를 들어서 행해본 분이 마치 한명제(漢明帝)가 사부(師傅)를 존중하여 옹(雍)을 임하여 국로(國老)에게 절을 한 일이나 당태종(唐太宗)이 명유(名儒)들을 크게 불러 생원(生員)을 많이 넓힌것 등이 그것인데 그 교(敎)도 지극하기는 했지만 도(道)를 상하고 덕을 그르치는 데서 면하지를 못하였으니 이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대저 3대의 임금들은 그 법도를 세워 교양을 하는 것이 모두가 자기의 몸과 마음에 근본을 한것 이었고 또 그 사람을 얻어 그 직분을 잘 수행하게 했던 것이니 그래서 정치가 그토록 훌륭했던 것이요 한당(漢唐)의 임금은 그 법을 세워 교양을 한다는 것이 모두가 선비들의 문장 뿐이었고 간혹은 사람을 잘못 가려 그 직을 맡겼던 것이니 그래서 정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스승의 자리에 있는 선비가 양성(陽城)이 국자

(國子)를 가르치듯 하고 호안정(胡安定)이 소주 호주(蘇州湖州)에 있었을 때처럼 한다면 어찌 선비중에 유능한 재주가 없겠습니까 이래서 교육은 정치의 근본이 되는 것이요 사람을 얻는 것은 또 교육의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을 잘 대우를 해주 줄을 모른다면 사람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맹자도 말 씀하시기를 「천하를 위하여 사람을 얻기 어렵다」하였던 것이요 3대가 정치를 잘했던 것도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선비는 그 실(實)을 얻는 것이 귀중한 것이니 그 실지를 얻고 그 이름내기는 잇는다면 아닌것 같을수록 더욱 진실한 것이니 안자(顔子)가 성인의 체단을 갖추었다는 것이 그것이요 그 이름만 나고 그 실상이 없다면 아무리 그럴사해도 무진 거리가 먼것이니 유약(有若)을 성인과 같다고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아! 태학에서 선비를 기르는 법으로는 그 누가 3대(夏商周)가 가장 성했다는 것을 모릅니까 생도(生徒)들의 행실과 예능을 뽑는 것도 3대 같을 수가 없고 인재를 많이 교육한 것도 3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초기에 인재를 가리고 그 끝에 인재를 양성했던 것이니 그래서 3대 때에는 선비를 기른 실상이 있었고 한(漢)의 양사(養士)는 그 소행(素行)을 살피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인재(人才)가 나타나지 않았고 당(唐)의 양사는 인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교양하기를 법도대로 하지 않았으니 한당의 인재는 실로 3대의 영향(影響)인 양사(養士)의 이름만 있었던 것이니 이는 어리석은 신의 사언(私言)이 아니라 실로 천하의 공언(公言)인 것입니다. 한명제(漢明帝)나 당태종(唐太宗)의 양사는 3대에 전주어 보면 실로 따오기를 조각하고 범을 그린 격입니다. 왜냐면 그 모습을 모르면 반드시 그 그림자를 봐야 합니다. 무제(武帝)는 소행(素行)을 살피웠던 사실이 있었는데도 어찌 인재가 그토록 없었던 것입니까? 평진후<sup>2)</sup>(平津侯)의 찬<sup>3)</sup>(贊)중에 학교의 수를 말하기를 십칠

2) 平津侯: 漢의 丞相 公孫弘의 封爵.

3) 贊: 德을 찬송한 글.

개라고 했으니 이때에 인재가 태학에서만 모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태종은 교양하고 선택하는 법이 없었는데 어찌 인재가 그토록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팔천이란 많은 무리가 한갓 태창(太倉)을 축내는 쥐나 참새노릇을 했던 것이요, 그 중에서 공을 세우고 일을 한 사람은 팔천인 속에서 과연 누구였는지 나는 모릅니다. 아! 불인(不仁)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천하의 지인(至仁)을 알수 있으며 불의(不義)가 없다면 어떻게 천하의 지의(至義)를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당의 협애(狹隘)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3대가 완비되고 훌륭한 것을 알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바라보온바 깊은 전각이 높다랗고 높은 당이 우뚝하며 유궁(儒宮)의 문이 열리고 하얀 옷 입고 백로처럼 모여들고 글 소리가 봉황의 소리마냥 퍼져울리니 이는 많은 선비가 모인 것이요 난화(鸞和)소리에 귀를 기우리고 취화<sup>4)</sup>에 눈이 번쩍 뜨이면 거가(車駕)가 오신 것이요, 나이 많은 영재(英才)와 묵은 호걸이 가르치고 단속을 하니 이는 사유(師儒)를 뽑은 것이요, 구름무늬와 구슬무늬로 6경<sup>5)</sup>(六經)을 장식한 것은 상계서 내리신 것입니다. 전하께서 교육하시기를 이렇게 하시니 인제가 전성(全盛)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양하는 임금이 있는 뒤에야 인재를 길러주는 사람도 있는 것이니 위에서 행하면 아래가 본받는 것이 영향(影響)보다 빠른 것이요, 그리하여 나라를 반석같이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착하고 장생(長生)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3대의 정치를 오늘에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니 나라에서는 선비를 기르지 않아서는 안되고 선비는 학문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학교만 놔두고 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선비가 만들어지며 선비를 길러 놓고도 쓰지 아니하면 어떻게 국정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경(詩經)에 하였기를 「훌륭한 많은 선비가 이 왕국에 태어났다」 하였으니 이 왕국의 선비를 태평할 때에 양성했다가 위대한 날에 쓰게 되면 전하에게 충절을 다할 것이며 그

4) 翠華 : 王의 車駕

5) 六經 : 詩, 書, 易, 儀禮, 周禮, 春秋.

렇다면 선비를 양성하는 일이 국가의 만전지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들어본바 초목도 화기(和氣)속에 태어나면 역시 좋은 꽃을 피워 천지의  
아름다운 장식이 피고 봄의 새도 때가 오면 역시 좋은 소리를 내어 숲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하물며 선비가 성세(聖世)에 태어나 먹고  
마시고 좋은 가르침을 받고서 어찌 그 흥금을 털어 가송(歌頌)을 만들어서  
주상의 덕에 만에 일이나마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신(臣) 비록 불민하  
옵지만 그런대로 봄 지렁이 가을 매미 소리라도 한번 내보는 것이오니  
길가에 쓴 오얏이나 성황당가의 늙은 악목(惡木)으로 여겨 버리지 마시  
옵소서

## ○ 임진년의 상소

## (壬辰年上疏)

앞드려 아뢰옵니다. 신은 들으니 묘당(廟堂)의 위에 거하여 음양을 다스리고 4시를 순응하는 것은 재상(宰相)의 직책이요, 운대<sup>1)</sup>(雲台)의 아래에 있으면서 천기(天氣)를 살피고 재앙과 상서를 논하는 것은 관상감(觀象監)의 소임입니다. 그런데 신은 조정에 하나의 작은 신하입니다. 태어나서 요순(堯舜) 같은 성명(聲名)의 군왕을 만났는데도 날마다 제량(齊梁)에 나타났던 변을 보고 항상 머리를 부수면서 아뢰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심혈을 쏟은 계책을 드리고 싶었지만 오직 언책<sup>2)</sup>(言責)의 책임이 따로 있고 지위에 벗어난 것을 함이 혐의가 됨으로 속적없이 중엄<sup>3)</sup>(仲淹)처럼 천하를 앞서 근심을 할 뿐이고 소식(蘇軾)처럼 감히 진언(進言)을 하지 못한지가 오래입니다. 다행이도 주상전하께 읊서 인효성지(仁孝聖智)한 자질로써 성경공측(誠敬矜惻)한 생각을 두시와 위로는 하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걱정하시어 하늘의 사랑이 이미 지극한 데도 오히려 재이(災異)가 혹시라도 있을까 염려하시고 백성들은 이미 편안한데도 오히려 흉년이나 겹치지 않을까 두려워 하시어 밤낮으로 근심하고 애쓰신 바가 모두 하늘을 섬기는 성심이고 조석으로 신하들과 논의하신 것이 모두 재앙을 없게 하는 방도이니 그 하늘을 섬기고 재앙을 조심하는 바가 지극하고 극진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아름다운 상서가 겹쳐 이르러 일각(一角)의 짐승(기린)과 연리<sup>4)</sup>(連理)의 나무가 성세(聖世)를 표현해 줘야 할 것인데도

1) 雲台: 관상대

2) 言責: 進言의 責任者.

3) 仲淹: 宋人姓名은 范文正公

4) 連理: 木理가 連해진 端木.

어찌하여 근래에 와서 재이(災異)가 겹쳐 나타나고 천문(天文)도 도수를 잃어 치우<sup>5)</sup>(蚩右)에 이상이 보이고 지도(地道)도 편치 못하여 사방에서 지진을 고하는가 하면 여름에 눈이 펄펄 내리고 겨울에 번갯불이 번쩍이며 회오리 바람과 때아닌 비가 치는가 하면 춥고 따듯함이 철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모두가 재이(災異)의 징조인데 한꺼번에 전하의 때에 모두어서 나타나니 더욱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념(睿念)이 놀라시어 더더욱 두려워 하시고 홀로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아니 하시고 경사(卿士)들과 논의를 하시고 경사들과 논의만 하시지 않고 또 윤음(綸音)을 내리시어 재야의 한시에 까지 미치시니 전하의 말을 구하고 재이를 조심하시는 생각은 한·당·송(漢唐宋)보다도 훨씬 뛰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통 모사들에게 비하겠습니까? 신이 왕년에 초야에 있으면서 전교(傳敎)를 엮으려 보고 받자와 읽기를 재삼하고서 단심(丹心)의 충성이 저절로 분격하와 감히 구고<sup>6)</sup>의 목소리를 다하여 삼청<sup>7)</sup>(三淸)에 통하기를 바랐아오나 입고 있던 상복을 벗기를 기다리느라 글월을 안고 머뭇거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엮으려 원하옵건데 전하께서는 살펴보시옵소서, 아! 해는 모든 양(陽)의 조종입니다. 무지개는 음특<sup>8)</sup>(陰慝)한 기운입니다. 그것이 동쪽에만 있지를 아니하고 중천에 교차되어 태양을 꺾었으니 전하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극도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까지 하는 것일까요. 인사(人事)로써 찾아본다면 잘못된 정치가 없는것 같은데 천변으로 살펴본다면 매우 치세(治世)의 형상이 아닙니다. 만약 유향(劉向)이나 동중서<sup>9)</sup>(董仲舒)로 하여금 나와서 논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국정의 한두가지를 가리켜

5) 蚩右: 별의 이름.

6) 九臯: 깊은 골짜기, 詩經의 鶴鳴九臯聲聞于天의 引用.

7) 三淸: 조정의 王座, 道家에서 말하는 王淸 上淸 太淸의 三淸天을 引用한 말.

8) 陰慝: 음기하면서 사특함.

9) 董仲舒: 모두 漢의 學者.



그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마는 어리석은 신은 비록 그것이 어떤 일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말은 못해도 이것을 우연한 것이라고는 못한다고 봅니다. 옳드려 원하옵건데 전하께옵서는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조심을 하옵소서 이것은 하늘의 마음이 임금을 사랑하여 짐짓 비상한 번고로써 감동시키고 잘못이 없도록 다짐을 하여 우리 억만년 종사(宗社)에 복을 주자는 것 뿐입니다. 대저 하늘과 사람이 한가지 이치니 감응하고 서로 통하여 화한 기운은 상서를 이르게 하고 몹쓸 기운은 재앙을 일으키는 것으로 터럭만꿈도 어긋나지 않은 것이요, 영향(影響)보다도 빠르나니 그 관계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대저 사람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고 사람의 기운은 곧 하늘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순하면 천지의 마음도 순하고 나의 기운이 비뚤어지면 천지의 기운도 비뚤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임금은 일심(一心)으로 써 삼재(三才)의 주를 삼고 일덕(一德)으로써 천지의 극(極)을 삼는 것으로서 호령에는 풍뢰(風雷)가 따라 움직임이 있고 정령(政令)에는 일월의 조림이 있고 덕교(德教)에는 우로(雨露)의 은택이 있고 위형(威刑)에는 상설(霜雪)의 엄숙함이 있어 일동 일정이 어느것 하나 하늘 아닌 하늘이 아닌것이 없으므로 하늘도 특별하게 돌아보아 어느것 하나 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임금이 하늘을 어기어 하늘의 성내심을 부르게 되면 하늘도 임금을 깨우치기 위하여 도리어 재이(災異)를 보여주는 것이니 그렇다면 하늘이 사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요 사람이 하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sup>10)</sup>(洪範)에서 숙예철모성(肅則哲謀聖)으로 휴징<sup>11)</sup>(休徵)이 생기는 근본이라고 하였고 광참예태몽(狂僭豫怠蒙)으로 구징<sup>12)</sup>(咎徵)이 생길 상징이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재이를 돌려 상서가 되게하는 방도가 오직 임금의 마음속 천리(天理)에 있는 것이 아니겠

10) 洪範: 書經篇名 箕子が 武王에게 傳했음.

11) 休徵: 좋은 祥瑞의 징조.

12) 咎徵: 불길한 징조.

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일이 다급해진 사람은 천천히 가는 수가 없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늘어진 소리를 하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하의 마음이 이제 급하고 아프게 되셨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천천히 걷고 늘어진 소리를 내는것 같은 말로 전하의 밤낮으로 애타시는 걱정을 저버리겠습니까? 삼가 진성수덕<sup>13)</sup>(盡誠修德)의 네글자로 써 오늘날의 폐단을 구하시라고 하겠습니다. 무릇 하늘을 감격시키기는 성(誠)에 있고 재앙을 없애기도 성에 있는 것이니 반드시 나의 성의를 다한 뒤에야 위에 있는 하늘을 감격시킬 수 있고 먼저 나의 덕을 닦은 뒤에야 저 요기(妖氣)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신하 동중서(董仲舒)는 「하늘을 받드는 방도는 오직 성의를 다하는데에 있다」 하였고 송나라 신하 왕암수(王巖叟)도 「재앙을 없애는데 속한 것은 덕을 닦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였으니 맞는 말입니다. 이 성의와 덕이야말로 하늘을 감격시키는 요긴한 방도요 재앙을 없애는 절대적인 일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옵서는 하늘을 감격시키기가 어렵다는 것만 걱정하지 말고 나의 성의가 극진하지 못함을 걱정하시고 재앙을 없애기가 어렵다고만 걱정하지 말고 나의 덕이 닦아지지 못함을 걱정하시고 재이(災異)를 만난 날에 더욱 조심을 하시어 오래도록 애를 쓰시웁고 요기(妖氣)를 보신 날에 두려워 하시어 언제나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시어 남이 안보고 안듣는 속에서도 조심하고 두려워 하시며 소리도 냄새도 없는 천도(天道)를 무서워하여 재이(災異)를 하늘이 하는 것이라 하지 말고 더욱 성의를 다하시고 변괴를 운(運)이라 하지 말고 더욱 덕을 닦으소서 두려워하고 삼가시어 일을 생각해 보아 일이 잘못되었거든 고치고 정치를 살펴 정치에 하자가 있거든 바로 잡으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고 내일도 그렇게 하여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여 함부로 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면 화순(和順)하고 성경(誠敬)한 공부가 속으로 쌓여 형저동

13) 盡誠修德: 정성을 다하여 덕을 닦으라.

작<sup>14)</sup>(刑著動作)의 효과가 자연 밖으로 나타나리니 나의 마음이 바로 잡히면 천지의 마음도 바로 잡히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요, 나의 기(氣)가 화하면 천지의 기도 화해져 요기가 말끔해지고 재이도 없어져 건곤(乾坤)을 옥촉<sup>15)</sup>(玉燭)으로 조정할 것이요, 백성이 편안하고 재물도 풍성하여 국가가 반석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늘을 응하신다고 전전을 피하고 수라를 감소하시는 일은 말(末)이요, 성의를 다하고 덕을 닦는 일이 근본입니다. 만약 힘쓰고 닦는 공부를 극진히 하시지 않고 한갓 준례의 기도나 하신다면 아무리 손톱을 깎고 피를 짜매고 노지(露地)에 계신다고 해도<sup>16)</sup> 하늘의 노기를 돌릴수는 없을 것이요, 재앙도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 성실만이 모든 일을 다 진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가롭게 계실적에도 생각 하시기를 「내가 흑시 선(善)을 행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은가?」 하시어 한가지의 재이를 만나시면 더욱 자신을 다스리기를 힘쓰시고 한가지의 변괴를 만나시면 구례에 구애하지 마시고 더욱 하느이 부여해준 도리를 진실하게 하시며 더욱 내가 얻은 바의 덕을 닦으시고 널리 좋은 말을 받아드리고 착한 행실이 있는 사람을 용납 해주시면 넓고 넓은 하늘이 나와 하나가 될것입니다. 옛날의 일을 상고하건대 십년동안에 아홉번이나 장마가 저서 홍수가 나 이기<sup>17)</sup>(伊祈)를 경각시켰고 팔년동안에 일곱번이나 가뭄이 들어 천을<sup>18)</sup>(天乙)에게 재앙을 끼쳤으니 그것이 어찌 두 임금의 공경과 명철함이 미진해서였겠으며 성경(誠敬)함이 높지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기수(氣數)의 나타남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상상(祥桑)이 말라 죽은 일이나<sup>19)</sup> 형혹성(熒惑星)

14) 形著動作: 나타나고 드러나고 사람을 감동시킴.

15) 玉燭: 四時의 和氣.

16) 湯이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렇게 했음.

17) 伊祈: 堯의 姓.

18) 天乙: 湯의 異稱.

19) 殷나라 太戊란 王때에 殿庭에 뽕나무가 나서 하늘에 아람드리가 되자 太戊가 두려워하여 德을 닦고 善政을 펴자 三日만에 말라 죽어버렸다.

이 자리를 옮긴일은<sup>20)</sup> 모두가 두려워 하고 덕을 닦은 소치입니다. 그런데 포기를 한 임금은 하늘을 잊어버려 재앙이 없는 것이니 그래서 재앙이 없는 재앙이야말로 천하의 큰 재앙인 것입니다. 이제 천하의 명철하심으로 해 볼수 있는 지위에 계시고 해 볼만한 때를 당하셨으니 어찌 삼왕(三王)에 보태어 사왕(四王)이 되고 오제(五帝)에 보태어 육제(六帝)가 될 수가 없겠습니까? 몸을 닦기를 덕으로써 하고 하늘을 섬기기를 지성으로써 할지니 성(誠)은 무망(无妄)이요 무망은 하늘의 도입니다. 그렇게 하여 천위(天位)를 밟고 천시(天時)를 받들면 이는 하늘의 무망을 법받은 것이요. 그렇게하여 천명(天命)을 받들고 천직(天職)을 다스린다면 그것이 하늘의 무망을 몸뚝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덕(仁德)이 따뜻하면 일(日)과 응하고 의(義)가 밝으면 월(月)과 응하고 음(陰)이 숙(肅)하면 양(陽)이 되고 양이 온화하면 화락한 것이니 이 모두가 하늘의 무망이요, 이를 하나하나 받들어 행하면 하늘도 무망의 도로써 일월을 망운<sup>21)</sup>(妄運)치 않게 하여 제길로 운행하게 할 것이요. 일식이나 월식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니 어찌 요기(妖氣)의 무지개가 그 사이에서 재앙을 부리게 하겠습니까? 대범 재이(災異)가 처음 일어났을 때에는 비록 범상한 임금 일지라도 두려워 할 줄을 알지만 재이가 자주 일어나도 금방 보응이 보이지 않으면 이골이 나서 두려워 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재이(災異)가 더디게 맞으면 재앙이 크고 빨리 맞으면 재앙이 적다는 것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재이가 이미 나타나고 재앙이 이미 드러나 버리면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덕을 닦으려 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신이 하늘의 상을 쳐다보고 사람의 일을 내려다 보니 천변(天變)의 무서운 것이 한둘이 아니요, 인변(人變)의

20) 戰國時 宋景公이 熒惑星이 心病의 자리에 든자 子聿에게 물으니 子聿이 國相과 百姓과 歲(農事)에 재앙을 옮기자고 했으나 公이 不許하고 自身이 當하겠다고 했더니 이윽고 熒惑星이 三度를 옮겼다.

21) 妄運: 잘못 운행함.

놀라운 것이 지금 세상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먼저 풍속으로써 말하자면 우리 동방은 이백년 예의의 나라이거늘 이제는 침몰이 되어버린 지역이 되어 혹은 형제끼리 서로 해치고 혹은 부부끼리 서로 해치며 혹은 친구끼리 서로 모함을 하는 자가 수없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풍속이 바른데도 그렇겠습니까? 혹은 신문고(申聞鼓)를 치고 주상께 아뢰고 혹은 어가의 앞에서 혹은 법사(法司)의 앞에 호소하는 자가 전보다 십배나 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백성이 편안하고도 그러겠습니까? 모두가 재이를 부를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벽(泮辟)이 황량해져 버려 공부를 시키는 일이 여사(餘事)가 되었으니 학교가 부실함은 당연한 것이요. 강상(綱常)의 변이 있어도 한천배들을 대우함이 너그러우니 정풍(正風)의 부실함이 드러난 것이요. 군사들이 맥이 풀려있고 무기들로 파괴되어 있으니 무비가 갖추어지지 못함이 분명합니다. 구언(求言)하는 말씀을 해마다 내리지만 채용하신 실상이 없으니 직언(直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현(待賢)하는 예도 겉으로는 후한것 같지만 위임을 하는 실상이 없으니 정사(正士)가 나아가지 않은 것도 당연합니다. 아! 이러한 잘못이 있는데도 고칠 생각은 아니 하시고 한갖 백폐(百弊)가 일어남을 걱정 하신다면 전하께서 밤낮으로 생각하시는 바가 결국 각주(刻舟)하느라 정신은 피로하고 연목(緣木)하는데 지혜를 짜는 격이 되어 모든 일이 모순 투성이고 온갖 폐단이 한꺼번에 생기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옵서는 마음을 성실토록 하시고 일을 성실토록 하시어 하늘이 돌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전각을 피하고 수라를 감소하는 것으로 헛된 사천(事天)의 형식만을 취하지 마시고 몸을 움추려 행실을 닦음으로써 하늘을 성실하게 섬기시고 백성을 걱정하시거든 하나의 명령을 잘 내리고 하나의 일을 걱정하는

22) 刻舟: 배에서 물건을 떨어뜨리고 뱃전에 표시를 새겨둔다는 것이니 事情에 어두운 計劃.

23) 緣木: 나무를 타고 올라 고기를 잡으려 한다는 말이니 안될 일을 하려고 함을 말함.

것으로써 백성을 걱정한다는 형식만을 내지 마시고 백성은 나와 동포니 어린애를 보호하듯 해야 한다는 성실을 보이시고 무비(武備)가 정(精)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성실한 마음으로 장수를 선택하여 맡기는데에 의심을 하지 마시며 학교가 진흥되기를 원하신다면 더욱 그 진덕수업<sup>24)</sup>(進德修業)을 힘쓰시어 의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시고 풍속이 후하기를 원하신다면 더욱 교도(教導)하기를 힘써 진실한 마음으로 윤리를 바로 잡으시고 구언(求言)을 진실하게 하시려면 마땅히 그 밀이<sup>25)</sup>(密邇)의 성의를 극진히 하여 진실하게 하시고 현인을 예우하기를 진실하게 하시려면 마땅히 그 여갈<sup>26)</sup>(如渴)의 성의를 다하여 진실하게 하시어 생각마다 진실하게 하고 일일마다 진실하게 하여 일호라도 부끄러움이 없고 일시라도 간단함이 없으면 치화(治化)는 널리 퍼지고 요망한 재앙은 자연 없어질 것이니 그것을 옮길려는 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편안해지고 들에는 수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없을 것이요 병비(兵備)도 날로 손질을 하여 나라에 간성<sup>27)</sup>(干城)의 지킴이 있을 것이요. 인재가 성하게 일어날 것이니 어찌 학교가 해이해짐을 근심하겠으며 투박한 풍속이 도로 순박해 지리니 어찌 풍속이 일변해짐이 어렵겠습니까? 골베고 나무하는 사람의 말도 반드시 들어보게 되리니 도(道)를 구하는 앞에 하정(下情)이 가리워지지 않을 것이요 산골짜기가 텅 비어 현인들은 권세를 잇는 곳으로 길이 트일 것이니 그렇게 되면 장차 태평한 시대가 될 것이며 풍속도 고상해져서 상서로운 별이 날마다 나올 것이요, 상서로운 구름이 날마다 찬란할 것입니다. 아! 지금의 일은 어느것 하나 낡지 않은것이 없는데 그중에도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몸을 온전히 하고 자리나 지키는 사람

24) 進德修業: 덕을 높이고 학업을 닦음.

25) 密邇: 매우 가까이 함.

26) 如渴: 목마르듯 구함.

27) 干城: 방패와 성.

을 어질다고 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며 설치고 진취(進就)하는 사람을 능하다고 하고 차분하게 물러나 자신을 지키는 사람을 응졸 하다고 하며 각박하고 남과 다투는 사람을 재주있다고 하고 중후장자(重厚長者)는 쓸모가 없다고 하며 감연히 말을 하는 사람은 광망(狂妄)이라고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우활하다고 하고 분발하여 몸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여러사람이 반드시 가로 막고 어질고 재주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반드시 꺼리니 그러한 풍습은 누가 앞장을 서서 유도한 것입니까? 옛날 가의(賈誼)는 한(漢)나라의 전성시에 당하여서도 오히려 한숨을 지었거든 하물며 온갖 폐단이 다 생긴 오늘은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통곡을 하고 또 통곡을 할 일입니다. 또 사치의 풍조가 크게 성하여 호소의 나환<sup>28)</sup>(胡州蘇州의 羅丸)이 빈천한 집에도 번뜩이고 연대(燕과 代)의 초구<sup>29)</sup>(貂裘)가 종들의 몸에도 참람하게 입혀져 있으며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풍족하지 않아서 걱정이고 금수금옥(錦繡金玉)은 많지 않아서 걱정이며 강기는 날로 무너지고 명분이 날로 어지러워지고 있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앞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옵서는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시어 위로는 대우(大禹)의 검소함을 배우시고 아래로는 한문제(漢文帝)의 돈후하고 소박함을 힘쓰시어 금석같이 굳게 지키시고 사시(四時)같이 틀림없이 행하십소서. 그러면 조정에 신하들이 본을 받아 모두가 화하여 주소<sup>30)</sup>(周召)가 될 것이요 백성들도 화하여 다시 순박하게 되어 사치 풍조는 스스로 끊어지고 모든 풍습도 다시 바로 잡힐 것입니다. 신이 또 앞드려 듣자옵건데 천자의 재산은 사해(四海)에 감추어 두고 제후의 재산은 백성에게 감추어 둔다고 하는데 이제 백성들이 발가벗은 격이어서 한번 지고 나설만한 재산도 없으니 국용(國用)이 떨어질 것을

28) 羅丸: 비단의 이름.

29) 貂裘: 단비가죽 옷.

30) 周召: 周公名公.

이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창고에는 묵은 곡식이 밀쳐져 있는 것이 없으며 곳간에는 돈이 적치된 것이 없으니 나라의 경비가 부족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물며 우리나라의 큰 걱정거리는 변경입니다. 일단 위태로움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대저 식량을 족하게 하고 군사를 족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보전하고 적을 막는 양책인데도 사람들은 모두 오랫동안 태평세월에 태연해져 있고 적을 방어하는 데에는 소홀히 여기며 생산을 서둘러 하고 쓰기는 천천히 해야하는 도리에 게을러 있어 나라에는 수년의 저축이 없고 군사는 하나의 무기도 쓸만한 것이 없으니 그래서 신은 간절하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병농(兵農)을 합쳐서 아뢰겠습니다. 대저 나라가 있으면 군사가 있는 법이요 군사가 있으면 무기를 정하게 갖추어야 하는 것이 고금의 떳떳한 도리인데 이제 백가지 법도가 모두 풀어져 군병들 중에 굶고 재물이 있는자는 뇌물을 주고 빠져 버리고 노약자로 가난한 자는 형편이 없어서 복역을 하고 있으니 군번의 부실함이 분명합니다. 전마(戰馬)는 병조(兵曹)의 소관인데 임의로 몰래 팔아 먹고 점고할 때를 당하면 남의 말을 빌려다가 보이고 있으니 전마도 형편이 없다는 것이 뚜렷합니다. 전선(戰船)은 시기가 지나도록 고치지를 않아 좌우로 헐어지고 남아 형체만 남아 있으니 전선의 쓸모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지(城池)도 여러해 동안을 수리하지 아니하여 성가가 무너지고 여우 살쾅이가 길을 내어 다니고 있으니 성지가 굳지 못하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포과(炮戈)는 화약이 젖어 있고 밑 바탕도 녹슬어 있으며 활이나 화살은 줄이 풀어져 있고 깃<sup>31)</sup>이 떨어져 있으니 이런 막중한 모든 기구들이 하나도 쓸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도 유사(有司)는 태연하여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고 전혀 전례대로 하는 것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만약 급변이라도 생기는 날이면 이는 군졸을 적에게 쥐버리는 것입니다. 농사는 천하

31) 깃: 화살끝의 깃.



의 큰 근본입니다. 경(經)에 하였기를 「식(食)은 백성의 하늘이다」 하였고 전(傳)에 하였기를 「백성의 일은 늦출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흉년에 골몰하여 농사에 힘쓸 엄두를 내지 못하므로 논갈고 김매기를 때를 노치고 수확도 때를 넘기고 있으니 저축이 많지 못함도 때를 넘기고 있으니 저축이 많지 못함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흐터지고 그래서 길바닥에 굶어 죽고 있으니 이것을 말하자면 어찌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금의 급무를 하나는 권농(勸農)을 하여 근본을 힘쓰게 함이요, 하나는 군사를 조련하고 무기를 수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별도로 어사를 팔도로 내보내 각읍의 군기와 각처 창고의 곡식을 살펴 보고 그 허실(虛實)을 알아오게 하면 군사를 족하게 하고 식량을 족하게 하는 방도가 여기에서 나올 것이니 이것이 어찌 국가의 만전지책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밤낮으로 반복해서 생각해보니 환난을 생각하여 미리 방비를 하면 힘이 적게 들면서 충실하게 될 것이요, 일이 터진 뒤에 급작스럽게 방비를 하려면 힘만 많이 들고 군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까치가 뿔나무 뿌리의 겹대기를 비오기 전에 뜯어다가 집단속을 하듯이 하고 옷이 떨어지기 전에 준비 하듯이 한것이 나라를 지키는 요긴한 도리요 적을 막는 양책입니다. 아! 옛말에 하였기를 말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을 쓰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왕의 여러 상소중에 만약 폐단을 고치는데 절실히 맞는 말이 있었다면 그런 말들을 과연 모두 거두어 쓰셨습니까? 재이(災異)를 부른 이유를 말씀 올린 사람중에 혹시 대략 진술했을 것으로 생각 하옵니다마는 어리석은 신의 생각으로는 결단코 다른 길은 없고 성의를 다하고 덕을 닦음으로써 폐단을 없애는 근본을 삼고 다음으로 재물을 다스리고 군사를 기르는 것으로 변란에 대응하는 계책을 삼아야 한다고 보며 절실하게 전하를 위하여 근심하기를 깊게 그리고 급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다고 해도 신은 홀로 장차 어지러울 것이라고 하는 바이며 사람들은 모두 백성이 편안하다고 하

지만 신은 홀로 바야흐로 위태롭다고 하며 변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일이 없다고 하겠지만 신은 홀로 일이 있다고 하며 백료(百僚)를 조심스레 골라 세우시니 사람이 있다고 하겠지만 신은 홀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차 일이 있겠는데 사람이 없으니 조정을 욕되게 함을 어찌합니까? 신이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군자와 소인을 한꺼번에 진출시켜 쓴다는 말입니다. 신하를 알아보기는 임금같은 이가 없는 것이니 전하의 밝으신 지혜로써 군자를 친히 하시고 소인을 멀리 하시어 항상 치(治)에서 난을 생각하고 안(安)에서 위(危)를 하시며 일이 없어도 일이 있듯이 여기시고 사람을 얻어도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하시면 국가가 다행인 것이요 신민들도 다행일 것입니다. 신은 지난 무자년에 다행히 은혜를 무릅쓰고 출신(出身)을 했다가 귀양<sup>34)</sup>(歸養)의 허락을 받아 왔는데 이제 이십구 세입니다. 이십구년동안을 성상의 덕택속에서 자라났고 인풍(仁風)속에서 놀았으니 이제 어찌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초야에 엮드려 있으면서 시국이 어렵게 됨을 보고 비록 높은 지위에 있지는 못하지만 살며시 사사로히 걱정함이 있어와 감히 이렇게 누누히 진술합니다. 제 말씀이 우월한듯 하겠지만 실은 절실하옵고 제 뜻이 실정과 먼 것 같겠지만 실은 가까운 말씀이오니 바라옵건대 풀꾼 나뭇꾼의 말이라고 버리지 마시옵소서 신 격동하는 중심을 억누를 수 없아와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 나이다.

## ○ 두번째 올린 상소

### (再疏)

34) 歸養: 집에 돌아가 부모를 봉양함.

엎드려 아뢰옵니다. 신은 들으니 충성스러운 말이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는 이롭다고 합니다. 할만한 말이 있으면 간(諫)하지 않을 수 없고 행 할만한 일이면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어야 하는 것이니 간함을 받아드린다는 것이 어찌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서는 안될 말로 간하고 행해서는 안될 일을 받아드린다면 이것이 이른바 임금은 임금 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하여 국가의 일이 날로 그릇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신이 삼가 전하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이 비록 잘못 위탁된 사람이오나 직간(直諫)을 해도 벌을 안주신다면 종일토록 바른 말씀을 사뵈고져 하오니 하나 하나 굽어 살피시 율기를 엎드려 청하나이다. 대저 하해(河海)가 될수 있는 것은 온 냇물을 잘 받아드리기 때문이요 성군(聖君)이 될수 있는 것은 간하는 말을 잘 받아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간하는 말이 국가에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천문(天門)은 깊고 사해(四海)는 먼데 주상의 덕을 어떻게 선포하며 하민(下民)의 정을 어떻게 통합니까? 그래서 간관(諫官)이 있는 것입니다. 간관이란 전개(展階)의 앞에 서서 임금으로 더불어 옳고 그름을 다투는 사람입니다. 임금이 옳다고 하는 것을 간관이 그르다고 할 수도 있고 임금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간관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상의 덕이 말로써 선포되면 구중궁궐(九重宮闕)의 깊으막함이 마치 태양이 중천에 떠서 초막집 밑에까지 비치듯하여 왕의 덕화가 퍼지는 것이요, 아랫백성의 정이 말로써 통해지면 만리 먼 곳이 마치 눈앞에 있는듯 하여 모두가 세전<sup>1)</sup>(細氈)의 위에 모여져 백성의 정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정의 이해와 백성의 휴척<sup>2)</sup>(休戚)과 병비(兵備)의 허실과 풍속의 후박을 임금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알고도 말을 하지 않거나

1) 細氈: 가는 털방석 왕의 자리

2) 休戚: 기쁨과 슬픔.

말을 하면서도 다하지 않는 것은 신하의 책임이요 듣고도 행하지 않거나 행하면서도 성실하지 않음은 임금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먼저 힘써야 할 것이 간하는 말을 받아드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숨기지 않고 말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서 감히 말 할 수 있는 기운을 돋구어 주고 나의 마음에 순응하기를 원하지 말고 나의 귀에 거스리기를 원해야 하며 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말고 나의 얼굴을 범하기를 원하며 가슴을 비우고 받아주며 얼굴을 온화하게 하여 들어 주어 나의 뜻을 버리고 남의 의견에 따르고 눈을 밝히고 귀를 밝힌다면 어찌 요순같이 안되겠습니까 간하는 말을 따르고 거스리지 아니하며 허물을 고치기를 인색하지 않으면 어찌 우탕(禹湯)같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간하는 말을 들을적에 자만(自滿)하는 말소리와 안색이 천리의 밖에까지 사람의 오는길을 막는다면 고자질이나 하고 아침이나 하는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치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임정(臨政)을 하신지가 이십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래서 무슨 일을 말했는지 위에서 무슨 말씀을 행하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국중의 일에 하나도 말할 만한 일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간관의 말이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지금의 제책으로는 무엇보다 날마다 경연(經筵)에 납시어 한결같이 간관의 말을 따르시되 어떤 말을 먼저 행하지 않았을까? 어떤 일을 먼저 고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을 먼저 진출 시키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을 먼저 물리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시어 간관으로 하여금 각기 그 직책을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말이 옳으면 그말을 쓰고 그 몸을 높여 주며 그 말이 옳지 않더라도 그 말을 따주고 그의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하면 국중의 일이 환하게 마음에 있게 될것이요, 성덕(聖德)도 그로 인하여 날로 밝아지고 성충(聖聰)도 그로 인하여 날로 넓어질 것이니 국가의 지치(至治)를 날을 잡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도 스스로 생각을 하시어 근심해야 할 것을 근심하시고 염려해야 할 것을

염려하시어 덕으로 자신을 닦고 성의로 하늘을 섬기소서 그러면 천재(天災)와 시변(時變)도 반시 소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시종 2자로 경계하고 삼가소서 일국의 다스림을 도모 하려면 반드시 그 처음을 삼가야 하고 일국의 편안함을 보전 하려면 반드시 그 마침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공<sup>3)</sup>(召公)도 왕을 훈계 하면서 「처음 정사를 할적에 경계해야 한다.」고 먼저 말했고 중해(仲虺)도 고<sup>4)</sup>(誥)를 지으면서 「끝을 잘 마치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 날로 새로워지는 덕이 없으면 마음이 편할려고만 하는데에 빠져서 그 비릇을 이룩할 수가 없고 쉬지 않고 계속하는 공부가 없으면 뜻이 반드시 게으르고 거칠어져 그 끝을 마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임금된 분은 삼가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신 앞드려 듣자옵건데 전하께서 등극하신 이래로 공손하고 두려워 하시어 태황(怠荒)하는 잘못이 없으시고 가다듬고 애를 쓰시어 방사(放肆)한 습관은 없으시며 근사록<sup>5)</sup>(近思錄)을 강습하여 마음을 조존(操存)하시기를 매우 근엄하게 하시고 역계<sup>6)</sup>의 병풍도 놔두어 몸가짐을 조심함도 매우 엄하게 하시며 하늘을 섬기는 일로는 말(言)을 구하고 수라를 감소하는 일이 있고 백성을 위해 애쓰시는 일로는 농사를 권하고 형벌을 신중히 살피시는 말씀도 계셨으며 외이(外夷)가 원망을 맺을까 염려하시어 작은 나라도 섬기는 성의를 더욱 다하시고 연곡(年穀)이 풍년들지 못함을 걱정하시어 여러번 조세를 감면해 주라는 영을 내리셨습니다. 선비들의 습관은 국가의 원기(元氣)이기에 바로 잡으려 하시고 기강은 조정의 근본이기에 떨치려고 하셨으니 전하께서 비릇을 삼가하심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천지도 화평하고 순한 응험(應驗)을 보여줘야 할 터인데도 어찌서 천재와 지

3) 召公: 周姬爽

4) 誥: 왕을 훈계하는 글.

5) 近思錄: 宋의 朱子和 呂東萊가 合作한 性理書의 이름.

6) 抑戒: 衛懿公이 九十에 지은 自策의 詩篇.

변이 속출을 하는 것일까요? 태갑(太甲)과 성왕(成王)처럼 시작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오늘에 있고 명황(明皇)과 덕종(德宗)처럼 끝을 잘 맺지 못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오늘에 있으니 바로 지금이 비롯한 끝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으로 부터는 모든 호령을 내리실 적에 편벽 되거나 사사로운 정을 버리시고 모든 형벌이나 포상을 배푸실 때에는 전도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사랑하고 미워함을 반드시 살피서 사정(邪正)이 밝은 거울에서 숨겨지지 않도록 하시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공정하여 평평한 저울대와 맞게 하시고 현인을 친근히 하고 간인을 멀리하여 하루 햇별을 찍이고 열흘 얼려지는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쉬지 않고 애를 써서 구린(九仞)의 산이 한 삼태기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끝을 마치는 일도 잘될 것이요 모든 복의 상징과 상서도 모두 이를 것입니다. 아! 사람의 마음은 침해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리를 정하게 살피기는 쉬울지 언정 전일하게 지키기는 어려우며 일시의 살피고 삼가함은 혹시 능할지라도 오래도록 진실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니 철두철미하게 중시가 여일하여 위로 통하고 아래로 통하며 앞과 뒤가 같은 길을 간다면 밝은 임금이라고 할수 있으며 나라의 진흥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의 법은 3대로부터 똑같이 행해온 방도입니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인재로써 선무를 삼는다.」 하였으니 참으로 맛이 있는 말입니다. 위로 하늘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사람이요 모든 정치를 함께 다스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정치를 꾸미고 임금의 법도를 문채롭게 하여 사물(事物)을 개발하고 사업을 이룩하여 은택을 베푸는 공로는 세우고 예(禮)를 짓고 악(樂)을 만들어 놀랄만치 백성을 변화시키는 치화(治化)를 이룩하는 것이니 그래서 인재가 성하면 아름다운 상서도 나타나고 나라를 창성하고 밝게 하는 것이요 인재가 쇠해지면 경륜하는 계책이 없어 나라를 텅 비이게 하는 것이니 인재가 국가에 중대한 관계자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제왕(帝王)이

인재를 알아 보고 교육의 도리를 다했다는 것을 교서상(校序庠)은 배  
 푼것에서 알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정신을  
 가다듬으시고 경연에서 강론하신 것이 모두 인재를 육성하는 도리였으니  
 마땅히 사습(士習)이 순후하고 투박한 풍조가 없어야 하고 인재가 많이  
 나서 나라를 편히 하는 효과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어찌하여 순후한  
 기풍은 점점 내려가고 인심은 날로 타락해져서 이를 겨우 가는 나이가  
 되면 교사(巧詐)한 버릇이 이미 이루어지고 관도 쓰기전에 벼슬길에  
 나가려는 생각이 이미 짝이 터서 사림(士林)들의 익히는 바가 다만  
 달이나 이슬이나 읍조리는 사장(詞章) 따위여서 도학을 강마하는 기풍은  
 끊어졌으며 마을에서 숭상하는 바가 오직 공명이나 재리 녹(祿) 뿐이  
 여서 글을 배우는 소리는 적막합니다. 엇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먼저 성의 정심(誠意正心)의 학문을 하시어 위로 문왕(文王)의 사람을  
 흥작시키신 방도를 배우시고 아래로 한 당 송(漢唐宋)의 양사(養士)하던  
 규모를 따르시어 인재들을 표출 해주시고 진작 시키시어 그 도리를  
 다하시면 그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는 큰 근본인 것입니다.  
 마음에 반성하시어 마음에 미진한 바가 있으면 학문으로써 바로 잡으  
 시고 일을 살펴보시어 모르신 바가 있으면 학문으로써 밝히소서 학문의  
 힘이 독실해지면 덕도 당우(唐虞)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요 정치도 하상  
 (夏商)과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는 영념을 하옵소서 대저  
 정일집중<sup>6)</sup>(精一執中)은 순우(舜禹)가 전수해준 심법(心法)이요 건중  
 건극<sup>7)</sup>(建中健極)은 탕 무(湯武)가 전하던 심법입니다. 이를 진실로  
 알으시고 실천을 하신다면 2제3왕<sup>8)</sup>처럼 시작도 잘 하실 수 있을 것이요  
 2제3왕 처럼 마침도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요(皐陶)나

6) 靜一執中: 정하게 살피고 專一해야 中道를 잡을 수 있다.

7) 建中健極: 適中한 道를 세우고 準極(표준)을 세움.

8) 二帝: 堯舜, 三王: 禹 湯 文武.

기<sup>9)</sup>(夔) 같은 어진 사람에게 사보(師保)의 책임을 맡기시어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 의리와 고금치란의 원인을 강론 하시면 천리(天理)가 날로 밝아지고 치화(治化)가 날로 나타나 대본(大本)이 서게 될 것입니다. 대본이 서게 되면 풍속도 그로 인하여 후해질 것이요, 백성도 그로 인하여 편해질 것이요, 종사도 그로 인하여 보전될 것이요, 수명도 그로 인하여 길어질 것입니다. 조종(祖宗)의 성덕(聖德)도 이로 인하여 빛을 더 할 것이요, 요순우탕(堯舜禹湯)도 이렇게 해서 아름다움을 짝할 수 있고 한당송(漢唐宋)의 모든 임금은 전하의 풍(風)을 바라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향공<sup>10)</sup>의 법은 그 계도가 오래된 것으로 아름답기는 아름답지만 지금은 가문 형세의 경중만을 전적으로 찾고 공의(公議)의 가부는 상관하지 않으니 효렴<sup>11)</sup>(孝廉)의 이름을 얻은 사람이 어찌 꼭 증민<sup>12)</sup>(曾閔)의 실지가 있겠습니까? 순량<sup>13)</sup>(循良)이란 이름을 받은 사람이 어찌 꼭 공황<sup>14)</sup>(龔黃)의 실지가 있겠습니까? 글을 잘한다는 사람도 반드시 유하<sup>15)</sup>(遊夏)의 실력이 적을 것이요, 절의(節義)가 있다는 사람도 반드시 방비<sup>16)</sup>(逢比)의 실지가 적을 것입니다. 이름만 사고 명예만 낚는 자가 십상팔구요, 근본을 두터이 하고 실지를 힘쓰는 자는 백에 한둘도 없습니다. 엇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그 이름만을 취하지 말고 그 실지를 책망 하소서 삼가 일찌기 들어본바 자주 성조(聖調)를 내리시어 현량(賢良)을 조동류가(晁「晁錯」董「董仲舒」劉「劉向」賈「賈誼」)같은 사람을 얻어 적치(赤墀)의 아래

9) 夔: 모두 舜의 賢臣.

10) 鄉貢: 고을에서 人才를 천거한 法.

11) 孝廉: 효도하고 청렴함.

12) 曾閔: 曾參 閔損 孔子弟子.

13) 循良: 법을 따르는 良吏.

14) 龔黃: 龔遂와 黃霸 모두 漢의 良吏.

15) 遊夏: 子遊 子夏 孔子의 弟子, 文學으로 이름났음.

16) 逢比: 龍逢은 桀을 간하다가 죽고, 比干은 紂를 간하다가 죽었음.



에 용처럼 분발하고 해오리처럼 모이게 하여 하여금 가슴속의 구슬을  
 쏟게하고 북아래 파란을 이르켜 위로는 신충(宸衷)에 침을 놓고 약을  
 주며 아래로는 백성에게 우로(雨露)가 되게 하려고 구하기를 간절하게  
 대우 하기를 지극히 하셨지만 단 한사람도 낚시밥을 삼키고 그물에  
 걸려들어 주상의 마음을 위안해준 사람은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모두가 말하기를 현량을 볼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을 얻기가 어려워서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현량이란 사람이 뱃속에 오경<sup>17)</sup>(五經)을 담고  
 말을 백가(百家)의 글을 샘물처럼 줄줄 외우며 곳간에 구경<sup>18)</sup>(九經)을  
 너넉하게 담고 있고<sup>19)</sup> 오충귀<sup>20)</sup>(五聰龜) 같이 영특해야만 현량의 학문  
 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道)는 학문에 뿌리를 둔것이요 학문은 도에  
 뿌리를 둔것이니 덕이 족히 이려<sup>21)</sup>(伊呂)와 어깨를 나란히 할만하고  
 명예가 족히 관안<sup>22)</sup>(管晏)을 노비(奴婢)로 여길만해야 현량의 도술(道  
 術)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치 태아<sup>23)</sup>(太阿)의 칼날같고 경남<sup>24)</sup>(梗楠)  
 의 튼튼한 줄기 같아서 얽힌 뿌리를 뺄만하고 복극을 받출만 해야만  
 현량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장<sup>25)</sup>(五臟)을 금수(錦繡)가  
 되게 하여 모든 조화를 꾸며대고 문사(文詞)의 근원이 만장(萬丈)이나  
 깊어 삼협<sup>26)</sup>(三峽)의 물을 거꾸로 흘러보듯 해야만 현량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기가 족히 용의 비늘을 훑어잡을만 하고 변

17) 五經: 時, 書, 易, 禮, 春秋.

18) 九經: 五經에 四書를 합한 것.

19) 여기 곳간은 마음속의 記憶을 말함.

20) 五聰龜: 唐의 顏元孫·韋述·駕知章 陸家先·殷踐猷 五人이 모두 총명하여 博識하고 長壽하여 五聰龜라고 했음.

21) 伊呂: 伊尹과 呂尙.

22) 管晏: 管仲과 晏嬰.

23) 太阿: 寶劍 이름.

24) 梗楠: 大木의 이름.

25) 五臟: 心 肺 肝 腎 脾.

26) 三峽: 蜀中の 地名.

론이 죽히 범의 아가리에 부딪칠만 하며<sup>27)</sup> 곧은 기운을 토하면 북두성이 차갑고 충성된 말을 올리면 금석(金石)이 찢어진듯 해야만 현량의 충의(忠義)라고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 여러가지를 겸해 가지고 온전하고 극진해야만 비로소 현량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 원인입니다. 신은 삼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십실(十室)의 읍에도 반드시 충신(忠信)이 있고 백보의 안에도 반드시 향초(香草)가 있는 법이니 물건이란 구하지 않아서이니 물건이 없는 해는 없는 것이요 선비는 쓰지 않아서이지 선비가 없는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대저 일찍이 들은 바 불이 이미 인 뒤에는 탁약<sup>28)</sup>(橐籥)을 쓸 필요가 없고 물이 이미 올라간 뒤에는 길고<sup>29)</sup>(桔槔)를 쓸 필요가 없듯이 어지러움이 많은 때에는 현량을 보기가 쉽지만 태평한 때를 당하면 현량을 쓸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곤룡포가 흑 해지거나(王의 失德) 곤직<sup>30)</sup>(袞職)이 실수를 했을 때에 이르면 돕는 사람이 현량이고 교화(教化)가 묵고 기강이 무너지면 정돈을 하는 사람이 현량입니다. 영진<sup>31)</sup>(嬴秦)의 퇴폐한 풍속이 없었다면 어찌 동중서(董仲舒)가 있었겠으며 일식의 변괴가 없었다면 어찌 두흠<sup>32)</sup>(杜欽)이 있었겠으며 무후<sup>33)</sup>(武后)의 참람함이 없었다면 어찌 장간지<sup>34)</sup>(張柬之)가 있었겠으며 혼시<sup>35)</sup>(關寺)가 국권을 농락함이 없었다면 어찌 유현덕(劉玄德)이 있었겠으며 원호(元昊)의 역명(逆命)이 없었다면 어찌 부필<sup>36)</sup>(富弼)이 있었겠습니까? 대저 천

27) 여기서 용과 범은 임금의 가리킨 말.

28) 橐籥: 성악간에 풍고.

29) 桔槔: 물을 끌어 올리는 기구.

30) 袞職: 王의 任務.

31) 嬴秦: 嬴은 秦王의 姓.

32) 杜欽: 漢人 王莽時에 稱病하고 免職되었음.

33) 武后: 唐의 女帝 則天武后.

34) 張柬之: 武后를 帝位에서 밀어내고 中宗을 復位시킨 사람.

35) 關寺: 漢末의 內侍 十常侍 등.

36) 富弼: 宋의 宰相.

하에 말썽이 생기게 되면 현량이 이르러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 이것이 천명입니다. 육합<sup>37)</sup>(六合)에 먼지가 개고 사해(四海)에 물결이 자면 높은 궁전에는 요순같은 임금의 공수<sup>38)</sup>(拱手)를 하고 가까운 자리에 고기(臯夔)같은 신하가 모시고 있어 위로는 사시(四時)가 옥촉(玉燭)으로 고르고 오성(五星)이 구슬마냥 연하며 아래로는 가화<sup>39)</sup>(嘉禾)가 모개미를 패어나고 예천(醴泉)이 상서를 바치며 안으로는 사람마다 직설<sup>40)</sup>(稷契)이요, 집에는 이부<sup>41)</sup>(伊傅)가 있고 밖으로는 변경에 북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봉화가 오르지 아니하며 어린애 백발노인이 가는 곳마다 길에서 노래를 하고 나뭇꾼 소머리가 아이가 길에서 춤을 태평 극치(極治)의 효과가 삼왕(三王)을 뛰어넘고 오제(五帝)보다 뛰어넘어 전보다 빛나고 후세에도 진동하며 천하에는 말썽이 없고 조정에는 논의할 정사가 없으며 백성들은 없애야 할 병이 없고 군신간에는 지목할만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천하의 선비가 바야흐로 황풍<sup>42)</sup>(皇風) 속에서 고무하고 화우<sup>43)</sup>(化雨)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니 다시 무슨 말을 하여 그런 때는 돕겠습니까? 그렇다면 현량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실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정치에 손을 쓸 곳이 없어 모두 산골이나 들녘으로 물러나 있어 상계서 기사<sup>44)</sup>(器使)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도 헛된 말이 아니겠습니까? 목욕은 꼭 강하(江河)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요 때만 씻으면 그만인 것이요, 말은 꼭 기기(騏驎)라야만 하는 것이 아

37) 六合: 上下四方

38) 拱手: 두 손을 맞잡음.

39) 嘉禾: 상서의 벼이삭.

40) 稷契: 舜의 두 賢臣.

41) 伊傅: 伊尹과 傅說 모두 商賢臣.

42) 皇風: 왕의 風化.

43) 化雨: 活化的 雨露

44) 器使: 자력에 따라 부림.

니요 잘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선비를 취하는 것도 어찌 끝까지 현량만을 중하게 여길 것이 있습니까? 모름지기 사람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위상<sup>45)</sup>(魏相)의 공업을 보더라도 그가 현량으로 진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학관에 제생(諸生)들은 글의 영화(榮華)를 썩으며 오경(五經) 요점을 들추고 육예<sup>46)</sup>(六藝)의 근본을 연구하고 있으니 경연(經筵)으로 나오게 하시면 반드시 계옥<sup>47)</sup>(啓沃)의 도리를 다 할 것이요 난파<sup>48)</sup>(鸞坡) 봉각<sup>49)</sup>(鳳閣)에나 발탁을 해다 두시면 반드시 조羹<sup>50)</sup>(調羹)의 재주를 필수가 있을 것이니 전재(全才)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를 놔두고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었드려 생각하옵건데 전하의 오늘날 급무는 사람을 얻으려는 데에 있지 않고 위임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성탕(成湯)이 이윤(伊尹)에게 세번이나 병례(聘禮)를 베푸신 것을 법받으시고 고종<sup>51)</sup>(高宗)이 꿈속에서 하늘이 내려준 부열(傅說)을 본 일을 생각하시어 아형<sup>52)</sup>(阿衡)처럼 맡기실 뿐만 아니라 좌우에 모든 일을 맡기시고 또 유를 미루어 그밖의 사람을 모두 거두어 고을에 두소서. 대저 조령(詔令; 王命)을 내고 드리는 사람이 수령입니다. 주부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안위(安危)는 민생(民生)의 휴척<sup>53)</sup>(休戚)에 달려 있고 민생의 휴척은 수령의 현부(賢否)에 있다」 하였으니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옛날 제왕들이 반드시 순리<sup>54)</sup>(循吏)를 골라 수령을 삼았던

45) 魏相: 唐의 魏徵.

46) 六藝: 禮 樂 射 御 書 數.

47) 啓沃: 임금의 마음을 열어주고 변화시킴.김.

48) 鸞坡: 翰林院.

49) 鳳閣: 藝文館.

50) 調羹: 정치를 함을 말함이니 西經 若作和羹汝惟鑿梅에서 온 말이다.

51) 高宗: 殷王.

52) 阿衡: 伊尹의 別稱.

53) 休戚: 기쁨과 슬픔.

54) 循吏: 법을 따른 관리.

것이니 그래서 전야(田野)는 즉묵(卽墨)<sup>55)</sup>처럼 개벽이 되는 것이고 부세(賦稅)는 내사(內史)<sup>56)</sup>로 들어오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벼슬을 줄 때에 사람자격의 높낮음을 논하지 않고 먼저 정의의 후박을 살피고 출척(黜陟)<sup>57)</sup>을 할적에도 공적의 잘하고 못하고를 묻지 않고 오직 문벌의 좋고 안좋고 만을 따지니 비록 선치(善治)를 구하고자 한들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아무리 구중궁궐에서 간절하신들 수령이 백리의 땅에서 받들어 행하는 자가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전하의 덕정(德政)은 우로(雨露)의 운택처럼 적셔 주지 않은 바가 없었지만 집의 안에는 미처가지를 못하고 교화(教化)는 일월의 빛처럼 비치지 않는 바가 없지만 엮어는 동이의 속에는 비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조화의 주재(主宰)가 편벽되어서 그런것 이겠습니까? 어떤 물건이 가리워서 그리된 것입니다. 왜냐면 임금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조화의 자취인 것이고 전하가 그 덕택을 무릅쓰지 못한 바가 있는 것은 우리왕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알수가 없는 것이요 임금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것은 오직 조령(調令)의 말씀인데 조령을 선포하는 것은 수령이 어떻게 봉행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령들을 보면 그 조령을 벽에나 걸어두는 허문(虛文)으로 삼고 책상에 쌓아두는 현종이로 여기지 않는 자가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고금의 임금들을 보면 부세를 적게 받으라는 조서를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수령들이 백성의 기쁨을 북으고 백성의 골수를 빨아 부세가 더욱 무겁게 부과되고 형벌을 애처러워하는 조서를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수령들은 사납게 굴기를 개를 잡듯하고 모질기가 매와도 같아 형벌을 더욱 거세게 가하고 양로(養老)의 조서도 내리지 않은것이 아

55) 卽墨: 魏文侯때에 卽墨大夫가 다스린 고을. 田野가 開闢되었음.

56) 內史: 官召 爵祿廢置生殺與奪을 관할한 職.

57) 黜陟: 내보냄과 올려줌.

니지만 수령이 외롭고 약한 백성에게 잔학하게 굴고 환과<sup>58)</sup>(鰥寡)에게 포학스럽게 굴어 머리 벗겨지고 귀가 누런 늙은이가 더욱 살바를 잃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망<sup>59)</sup>(遊亡)을 불러 돌아오게 하라는 조서가 내려졌는데도 어떤 사람이 하호(下戶)를 불러 모았던 말을 듣지 못하였고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진휼(賑恤)하라는 조서가 내려졌는데도 어떤 사람이 빈민을 구해서 살렸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이는 것은 그들이 큰 휘장을 날리고 살찐 말을 달리며 예쁜 계집이나 끼고 멋진 술병이나 차고 더러는 물을 임하여 시나 읍조리고 더러는 높은데 올라가 노래하고 읍조리는 일 뿐입니다. 그래서 곁에 사람이라고 있어 조령(調令)을 선포 했느냐고 묻기라도 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급무가 아니다」 하고 뒤늦게 반포한 것을 보면 겨우 몇줄의 쪼각말에 불과하니 백성들은 애당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 누가 지팡이를 짚고 가서 들겠습니까? 수령들이 막고 있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덕화가 퍼지지 못하고 은택이 흐르지 못한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일찍이 한(漢)의 일대를 가지고 살펴보니 그 당시 영특한 호걸로 사람을 놀라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마는 이른바 현수령(賢守令)이란 사람들이 어찌 다른 잘한 것이 있었습니까? 불과 거것으로 호구를 늘린거나 불과 오고(五袴)의 노래가 일게한 것이나<sup>60)</sup> 불과 봉황이 오고 황충(蝗虫)이 지경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나(黃霸事) 불과 가버린 구슬이 다시 돌아오고(孟當事) 맹호(猛虎)가 하수를 건너갔다(劉昆事)는 등 뿐이요, 그중 조령을 선포하여 백성이 그 은택을 무릅썼다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황폐(黃霸)한 사람을 겨우 보았을 뿐입니다. 대저 폐가영천(潁川)을 다스릴 적에 조령을 선포하여 백성

58) 鰥寡: 홀아비와 과부.

59) 流亡: 집을 버리고 떠돌아다님.

60) 廉范이 治蜀에 백성이 昔無襦令五袴란 노래를 불렀음.

으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였으니 이는 임금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능히 받들어 행하고 감히 가리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당(唐)의 일대 수령을 놓고 상고해 본다면 정치를 잘한 이름이 역사책에 향기로운 사람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른바 어진 수령이란 사람이 어찌 다른 잘한 것이 있습니까? 불과소를 취하여 사위에게 돌려준 일이나<sup>61)</sup> 불과 녹봉(祿俸)으로 대수(代輸)한 일이나<sup>62)</sup> 불과 재해(災害)를 사실대로 보고한 일이나 상서(祥瑞)를 거짓으로 꾸며 아뢰일 따위의 일뿐이요. 그중에서 조령을 선포하여 백성이 그 덕택을 무릅썼다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원결(元結)한 사람을 겨우 보았을 따름입니다. 원결이 도주(道州)를 지킬적에 무릇 임금의 인후하고 걱정하시는 명령과 근심하고 애쓰신 조령을 모두 받들어 행하였으니 그가 임금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반듯이 받들어 행하고 감히 가리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세의 수령들은 조령을 선포하여 백성에게 혜택을 줄줄은 모르고 한갓 번거로운 세무(細務)만을 들어 행하고 도리어 허망한 상서(祥瑞)나 꾸며 아뢰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나라를 속이고 백성을 속이기를 심하게 함이 아니겠습니까? 아! 공이 있는데 상을 안준다면 비록 요(堯)가 다섯 일지라도 제(帝)가 필수는 없는 것이요 죄가 있는데도 벌주지 않는다면 비록 우(禹)가 열일지라도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무릇 재목(宰牧)이 능히 조령을 선포하여 정적(政績)이 특이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아침에 들었거든 저녁에 상을 내리시고 조령을 가리우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자는 저녁에

- 
- 61) 張允濟가 武陽令이 되었을 때 元武고을 백성이 새끼를 낳 소를 가지고 妻家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여러마리 새끼를 낳으나 妻家에서 그 송아지를 안준다고 호소 하거늘 그 백성을 거짓 소도둑으로 몰아 그 집으로 가서 「도둑이 맡긴 소를 내노라」하자 그 집에서 이는 「우리 사위의 소입니다」 하므로 「그렇다면 돌려줘라」 하여 사위에게 찾아왔다.
- 62) 黃琰이 閩令이 되어 郡守 黃裳이 道藏을 지으면서 각 縣에 數萬兩씩을 걷어 올리라 하자 琰自己의 四個月 俸錢으로 代輸를 했다.

들었으면 다음날 아침에 별을 내리소서 그러면 사람들마다 징계를 삼아 덕택이 백성에게 미칠것ियो 이 세상이 희황<sup>63)</sup>(羲皇)의 세상이 되고 우리 백성이 성강<sup>64)</sup>(成康)의 백성이 될것입니다. 불쌍한 이 백성의 곤궁함은 상고 이래로 드물게 보는 형편입니다. 자주 큰 흉년을 겪은 나머지에 또 각가지 징구<sup>65)</sup>(徵求)에 시달려 아비가 그 자식을 팔고 지아버가 지어미를 팔아 젊은 사람은 사방으로 흐터지고 노약자는 구렁에 굴러 죽고 있으니 정협<sup>66)</sup>(鄭俠)의 유민도(流民道)를 그 당시에만 바칠 것이 아니요 주(周)나라의 미유혈유<sup>67)</sup>(靡有子遺)시를 오늘날에도 읊을만 합니다. 어떻게 본고방령<sup>68)</sup>(本固邦寧)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구하는 방도를 오직 수령과 재정(財政)에 있습니다. 수령이 밝지 못하면 도적이 이로 인하여 날떨 것ियो 간사한 아전이 이로 인하여 농간을 할 것이니 이것이 근심스러운 일이요 채용(財用)을 절약하지 않으면 부세를 거두어 드림이 이로 인하여 번거롭고 까다로워질 것ियो 정요(征瑤: 出役)도 이로 인하여 범람해질 것이니 이 또한 염려가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볼때에 일국의 안위는 전적으로 수령에게 있고 수령을 간택하는 것은 또 군상(君上)에게 있습니다. 전법<sup>69)</sup>(詮法)이 이미 정(精)해지면 사리에 밝지 못한 자가 요행으로 등용되지 않을 것ियो 과공(科擧와 薦擧)을 신중히 하게되면 요행만을 노리는 자가 나아가지를 못할 것ियो 남모<sup>70)</sup>(濫冒)가 다스려지게 되면 구차하게 세월만 보내고

63) 羲皇: 代羲와 三皇.

64) 成康: 成王과 康王, 周王임.

65) 徵求: 뜯어냄.

66) 鄭俠: 宋人 仁宗에게 流民圖를 올려 庶民의 窮困狀을 아뢰므로써 靑苗錢法을 廢止하였음.

67) 靡有子遺: 半身의 民도 남기지 않음.

68) 本固邦寧: 근본인 백성이 굳어야 나라가 편안함.

69) 詮法: 전형하는 法.

70) 濫冒: 자격없이 관직에 늘러있는 자.



있는 자가 요행으로 머물러 있지를 못할 것이요 풍화<sup>71)</sup>(風化)가 엄하게 되면 탐욕부리고 염치없는 자가 요행으로 녹을 먹지 못할 것이요 용관(冗官: 雜官)을 도대해 버리면 인원수나 갖추고 자리나 채우고 있는 자가 요행으로 벼슬자리를 옮기지 못할 것이요 사애<sup>72)</sup>(私愛)를 막아버리면 좌우에서 가깝게 시중든 자가 요행으로 자리를 얻을 수 없으리니 그렇게 되면 수령이 저절로 중(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태종(唐太宗)이 말하기를 「계전(階前)이라고 말하지 말라 여기가 바로 만리다」 하였으니 이것이 고금을 통해 제왕의 지극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수령이 패하(陛下)를 사퇴할적에 새겨서 주면 수령도 일편 충심이 있어 반드시 영념을 하고 봉행을 했던 것이요 또 수의(繡衣: 御史)를 보내 안찰을 하게 하였으니 잘하고 못한 자를 상주고 벌주기가 무엇이 어려웠겠습니까? 각고의 간악한 아전이나 마을에 윤리(倫理)를 상한 자를 또 조사해서 다스리게 하면 풍속도 그로 인하여 바로 잡힐 것이요 백성도 그로 인해 편안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주(州)마다 황폐(黃霸)요 읍마다 원결(元結)일 것입니다. 어찌 국태민안(國泰民安)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나라를 근심하고 봉직(奉職)을 하는 사람이요 난(亂)을 임하면 절의(節義)에 죽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해야 할 일이기이 이렇게 감히 당돌한 말씀을 아뢰는 바입니다. 원하옵건데 전하는 신중히 행하옵소서 신은 시국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고 헌芹<sup>73)</sup>(獻芹)을 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혼정<sup>74)</sup>(昕庭)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하지 못하면 명일에 강호에서 근심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에 외람됨을 꾸지람하실 것을 무릎쓰고 감히 축적 되어온 정성을 다하오니 사죄(私罪)이옵니다. 엿드려 원하

71) 風化: 기풍을 세워 다스림.

72) 私愛: 私的으로 사랑함.

73) 獻芹: 古人이 미나리가 맛이 있자 임금께 드리고 싶어 했음. 忠誠.

74) 昕庭: 대궐의 뜰.

웁건데 전하께서는 영념을 하옵소서. 신 감격하고 두려운 마음 가늘  
길이 없습니다.

### ○ 세번째 올린 상소

#### (三疏)

엎드려 아뢰옵니다. 신은 궁향(窮鄉)에서 태어나 궁향에서 자라났고  
성질도 용렬한데다가 재주와 식견도 천박하여 녹록하게 세상을 살면서  
백에 한가지로 능한 것이 없으니 무엇을 듣고 의리의 깊은 것을 알겠으며  
무엇을 보고 사물의 편의를 알겠습니까? 다만 충성심이 저절로 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먼지 만큼이나마 나라에 보답하고 목숨을 마치고겠다는  
본심이 조정에 서게된 이후로 더욱 간절해져서 향시 시사(時事)가 어  
려워지고 염려스러워짐을 보면서 글월을 두번 냈던 바 여러 소인배들  
에게 미움만 사고 마침내 신용(信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또  
부모 같으신 사랑만을 믿고 부월<sup>1)</sup>(斧鉞)의 벌을 잊으며 다시 신엄<sup>2)</sup>  
(宸嚴)께 모독<sup>3)</sup>(冒瀆)을 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데 전하께서는  
살펴보옵소서 옛날 성주(盛周)의 세상에도 훈육(훈육) 곤이(昆夷) 힘운  
(穢允)의 침입함이 있었고 대한(大漢)의 흉할 때에도 흉노(凶奴) 선우  
(單于) 목특(冒頓)의 변이 있었는데 하물며 세상이 내려가고 현인들이  
멀어져 치도(治道)가 점점 쇠하고 생민이 도탄에 빠져 도적이 수없이  
일어난 때 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남으로 섬오랑캐와 연해 있고 북  
으로 야인(野人)과 접해 있는데 야인은 사나워서 사람같기도 하고 짐  
승같기도 하여 반복이 무상하고 섬오랑캐는 교활하여 파도위로 출몰

1) 斧鉞: 도끼

2) 宸嚴: 왕의 尊嚴.

3) 冒瀆: 대고 귀찮게 함.

을 하고 슬적 나타나 헤아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엮드려 생각하옵건데 우리 태조대왕께서는 먼저 이정(夷情)의 천심(淺深)을 탐지하시고 또 지형(地形)의 험한데를 살피시어 각 진영을 바닷가와 변경수자리에 별처럼 벌려 놓으시고 그것은 절제(節制)에 소속시켰으며 또 통호<sup>4)</sup>(通好)와 세빙<sup>5)</sup>(歲聘)을 받아드려 그들을 어루만지고 간곡히 대우하는 은덕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르러서는 부강(富強)한 형세를 이용하고 신무(神武)의 위엄을 힘입어 기빈<sup>6)</sup>(岐鬪)의 옛 강토를 회복하고 육진(六鎭)을 새로 설치했으며 남북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장강(長江)이 천塹<sup>7)</sup>(天塹)이 되었으며 또 변경에 간청을 하고 와서 거주를 청하는 말을 허락하면 오랑캐를 굴복시키고 막는 방도를 다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철기<sup>8)</sup>(鐵騎)가 횡행하지 않고 경파<sup>9)</sup>(鯨派)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운데에 있으나 남쪽을 보나 북쪽을 보나 어찌 벼개를 벼고 걱정을 잊을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주사(舟師)를 쓰자면 그 장기(長技)는 남쪽에 있고 기사(騎士)를 쓰자면 본래부터 익힌 기술이 북쪽에 있으니 이는 교전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능히 지킨 뒤에야 싸울 수도 있고 화친도 할 수 있고 지키지 못하면 싸울수도 화친을 할수도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현장(賢將)을 가려서 우리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주함(舟艦)을 다스려 우리 군사를 용납하게 하며 군량을 축적하여 우리 식량을 넉넉하게 하고 무기를 정하게 하여 우리가 쓸수 있도록 하고 봉화(烽火)를 신중

4) 通好 : 好意를 통함.

5) 歲聘 : 해마다 使臣이 往來하는 禮儀.

6) 岐鬪 : 周의 故土.

7) 天塹 : 천연의 城塹.

8) 鐵騎 : 철갑입힌 기마병.

9) 鯨派 : 고래가 일으킨 물결.

원컨데 그 그림자를 보옵소서 지난 해 왜사(倭使) 현소(玄蘇)를 목베고 엄병(嚴兵)으로 대비하자고 했는데 조현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모르거니와 만약 조금이라도 사체(事體)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국가가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현소가 일 없이 왔다가 일 없이 갔다」하지만 신은 홀로 말하기를 「현소가 뜻이 있어서 왔다가 계획이 있어서 갔다」고 합니다. 옛날 진인(唇人)이 우(虞)에게 길을 빌려 궤(軌)을 치려할 때에 백리해(百里奚)가 간하지 않은 것은 우국(虞國)이 망할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왜놈이 우리에게 길을 빌려 천조(天朝:明國)를 범하려 함에 조현이 그를 베어야 한다고 청함은 우리나라의 형편을 장원(長遠)하게 안것입니다. 그리고 신도현의 말이 나라에도 유익하고 세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바입니다. 신은 시사(時事)를 보고 팔을 건어부치고 탄식을 하다가 탄식으로는 부족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통곡을 하고 통곡으로도 부족해서 바다를 밟고 죽고만 싶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탄식을 하며 「바다에 뛰어든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 어느때인데 이런 성명(聖明)하신 임금을 두고 어찌 노호<sup>14)</sup>(魯胡) 이자(二子)의 자니친 짓을 하리요」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흉년이 겹친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풍속이 퇴폐한 것도 걱정이 아니요 잇을 수 없는 일념은 항상 장수가 사람다워야 하고 군사가 정예(精銳)해져야 하고 성지(城池)가 완고해져야 하고 주함(舟艦)이 견실해야 한다는 것이니 그래야만 방어를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평일에 천정을 쳐다보며 길게 탄식을 했던 바로써 설(說)을 지었아온데 「유현덕(劉玄德)이 세번이나 제갈량(諸葛亮)을 찾아가 은근한 성의를 보이다가 어수<sup>15)</sup>(魚水)가 합해졌으니

14) 魯胡:魯仲連과 胡筵 魯는 春秋時 齊人이니 秦을 帝로 받들면 東海를 밟고 죽겠다고 했고 胡는 宋人이니 高宗에게 올린 封事에서 역시 「金에게 屈하면 東海에 뛰어들어 죽겠다」고 했음.

15) 魚水:劉가 「내가 孔名을 얻은 것은 고기가 물을 얻음과 같다」 했음.

그 현(賢)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굽힘이 어떠한가? 광무황제(光武皇帝)도 호타하(濠沱河)에서 보리밥을 먹고 무루정(蕪葦亭)에서 콩죽을 먹고 남양(南陽)에서 비를 맞아 나무를 피워 옷을 말리고 하였으니 어려운 대목을 얼마나 겪었는가? 그러니 예로부터 이제에 이르기까지 능히 대업을 이룬 것은 모두가 군신이 서로 만나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길수 있는 중요한 요건은 양장(良將)을 얻어야 하고 양장은 또 현군(賢君)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면 가령 지금 만곡(萬斛)의 배를 배열하고 섬리(織離)의 말은(織離는 名馬名) 타고 의천<sup>16)</sup>(倚天)의 검을 쥐고 오호<sup>17)</sup>(烏號)의 활을 당기구 수서<sup>18)</sup>(水犀)의 갑옷을 입었다 손치더라도 그 장수가 조괄<sup>19)</sup>(趙括)이라면 능히 백기를 막아냈겠습니까? 태공<sup>20)</sup>(太公)으로 상장(上將)을 삼고 양저<sup>21)</sup>(穰苴)로 중군(中軍)의 장수를 삼고 손빈<sup>22)</sup>(孫臏)으로 좌장(左將)을 삼고 오기<sup>23)</sup>(吳起)로 우장(右將)을 삼고 염파이목<sup>24)</sup>(廉頗李牧)은 앞에 있고 한신 조참<sup>25)</sup>(韓信曹參)이 뒤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 임금이 주<sup>26)</sup>(紂)라면 무왕(武王)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천하의 장기(長技)를 모아서 군사를 만들어도 그 장수가 유능한것만 못하고 만고의 영웅을 모아서 장수를 삼는 다해도 그 임금이 유도(有道)함만 못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명(聲明)하신 덕은 실로 트집 잡을데가 없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저

16) 倚天: 名劍.

17) 烏號: 名弓名.

18) 水犀: 소물.

19) 趙括: 趙將秦의 白起와 싸워 四十萬軍을 죽였음.

20) 太公: 周將呂尚.

21) 穰苴: 齊의 名將.

22) 孫臏: 齊人兵家.

23) 吳起: 魏人兵家.

24) 廉頗李牧: 모우 趙의 名將.

25) 韓信曹參: 모두 漢의 名臣.

26) 紂: 殷의 暴君

의 간곡한 생각은 혹시라도 전하께서 우탕 문무(禹湯文武)에 미치지 못하실까하는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과거에 외람되이 올라 은혜를 받잡고 체적이 되어 돌아가서 아버이를 봉양하며 대궐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은근히 서울을 돌아보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한몸을 가지고 어찌해야 합니까? 임금을 섬기고 아버이를 섬김이 날이 길고 짧음이 있는지라 불충과 불효의 죄를 도망할 바가 없더니 이제는 아버지도 안계시고 어머니도 안계시니 신은 전하에게 충절을 다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신은 국가에 대하여 의(義)로는 군신이지만 은(恩)으로는 부자와 같사오니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기(記)에 하였기를 「어리석은 자도 천번이나 생각하면 반드시 한번쯤은 제대로 맞출 때가 있다」 하였고 또 하였기를 「광부(狂夫)의 말로 성인(聖人)이 취택하는 수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신을 보고 「어리석은 자가 옳게 알았다」던가 「광부의 말은 취택한다」 하신다면 국가에 일조(一助)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을 보고 「허망한 소리를 한다」 하여 법으로 처벌을 하신다면 신이 망녕된 사람이 아니한 것을 오래가지 않아서 온 나라가 다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비노니 성상께서는 사랑으로 신이 올린 전후 소장(疏章)의 간곡한 뜻을 살피시와 하나는 삼유사<sup>27)</sup>(三有事)를 고르시되 진실로 훌륭하고 심히 착한 사람으로 하시고 하나는 백집사(百執事)를 가리되 재물을 좋아하는 자에게 맡기시지 마시고 하나는 양장을 골라서 변경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는 양리(良吏)를 뽑아서 열읍(列邑)에 두시고 하나는 군기를 정하게 하여 군위(軍威)를 늘리고 하나는 양곡을 저축하여 군식(軍食)을 돕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 열성(列聖) 십사세의 중사가 이를 힘입어 편안할 것이요 만년에 이르도록 오직 왕위를 지키며 자자손손이 영원히 신민을 보전하리이다 신 감격과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7) 三有事:三公 즉 三政丞.

## 문(文)

### ○ 제가(諸家)에게 통하는 문

#### (通諸家文)

삼가 아뢰는 말씀은 생각하옵건데 우리 열성조(列聖朝)의 지극한 다스림이 이웃나라에 까지 소문이 난것은 예의(禮義)의 행실과 문명의 치화(治化)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이백년동안 무(武)는 눌러 두고 문(文)을 닦아 태평이 오래가다 보니 나라에서는 편안하여 위태로움을 생각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 즐거워 할줄만 알고 걱정할 줄을 모르게 되었는데 한번 다스려지면 한번 어지러워짐이 본다 이치인지라 그래서 경(經)에도 하였기를 「적국(敵國)이나 외환(外患)이 없는 자는 나라가 언제나 망한다」 하였고 또 「융적(戎狄)을 치니 형서(荆舒)가 징계된다」 하였으니 이 환난을 없애고 저 경계를 두고 있으면 비록 진초(秦楚)같은 포학 함으로도 침략해 오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이 남쪽 오랑캐들은 선왕(先王)의 도리도 모르는 것들 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전화위복(戰禍爲福) 할수 있는 때요 백성들이 효도를 옮겨 충성을 할 날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십실(十室)의 읍에도 반드시 충신(忠臣) 한 사람이 있다」 하셨는데 본 고을은 비록 적으나 십실은 넘은 고을이니 이중에 임금께 충성하고 벗에게 신의를 지키며 시석(矢石)의 사이에 종사(從事)할 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 나라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 군부(君父)가 몽진(蒙塵)을 하셨으니 신자(臣子)가 충절을 다할 때가 바로 이 때요 옛날 과부가 주나라를 걱정하고 기인<sup>1)</sup>

1) 杞人:기나라 사람

(杞人)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한 것이 모두 필부필부(匹婦匹婦)의 부득이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니 사대부(士大夫)란 이름을 지니고 임금의 곡식을 먹고 임금의 옷을 입은 자가 어찌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팡로(彭老)는 유가(儒家)에서 출신을 한 사람으로서 본시 사람을 겸한 용맹이나 못사람을 진압할 만한 지위도 없으면서 이제 거사(舉事)를 한것이 하나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의(義)로써 사람을 복종케 하려는 것이요 힘으로써 사람을 굴복 시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위태롭고 어려운 속에서도 모여든 사람이 이미 반천(半千)이 넘어 잘못 추대하여 대장으로 삼은 이상 부득불 외로운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위해서 한번 죽을 작정입니다. 옛날 회음<sup>2)</sup>(淮陰)이 군사를 쓸때에 「죽을 땅에 둔 뒤에야 살수 있다」 하였고 무후<sup>3)</sup>(武侯)가 군사를 낼 때에도 「반드시 죽은 뒤에야 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두 분같은 지략을 가지고도 오히려 그러했거든 하물며 두 분 같지도 못한 사람이 거의(舉義)를 하였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현재 적의 형세는 마치 홍수가 하늘에 닿은듯 하여 막아낼 수가 없고 그들이 성을 치고 땅을 차지하고 힘이 이보다 심할 때가 없으니 실로 전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상께서는 토지때문에 이 백성을 짓밟개가며 싸울 수가 없어서 결국 파천(播遷)을 하시게까지 되었으니 거가가 돌아오실 때가 언제일지도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되놈들이 탐욕을 내는 것도 토지요 제후(諸侯)가 소중한 것도 토지인데 저들이 탐욕으로 우리 소중한 것을 도모하지만 그것은 천명이 아니고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늘이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마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죄있는 자를 치는것이 임금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무엇을 합니까?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포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 신하입니다. 그러나 만약 임금이

2) 淮陰 : 韓信.

3) 無侯 : 諸葛亮.



덕을 닦지 않는다거나 신하가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사람을 길러 줄 것으로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금이 대대로 지켜온 나라와 우리가 대대로 살아온 땅을 가볍게 적에게 준다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원컨대 모든 군자가 그것이 옳은지 안옳은지를 살피시고 죽어야 하는지 안죽어야 하는지를 마음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충성을 다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강토안에 있는 사람이 왕신(王臣)이 아닌 사람이 없으리니 국가를 걱정하고 사직을 보존할 생각은 아니하고 제 몸이나 온전히 하고 처자나 보전 하려는 계획을 하는 사람은 무슨 면목으로 천지의 사이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중에 의기(義氣)가 있는 사람은 달려와서 우리 군사에 들어 저들 흉악한 무리를 쳐 없애고 우리 종사(宗社)의 억만년 무궁한 터를 다져주기를 천만 바랍니다.

## ○도내(道內)에 내는 격문

### (檄道內文)

임진 5월 초2일 옥과(玉果)의 의병장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 유팽로(柳彭老)는 삼가 재배하고 도내의 각고을 수령과 모든 사민(士民)에게 통고합니다. 앞드려 생각하옵건데 이백년의 종사(宗社)는 하늘이 장차 당우(唐虞)의 다스림을 열려고 함에 심천리의 봉강(封疆)에 사람마다 추로(鄒魯)의 가르침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군의 은택이 길러줌을 받고있는 즈음에 감히 사특한 기운이 그 사이에 싹이 텄습니다. 아! 하늘이 내려다 보시는 가운데 국운(國運)이 중도에 쇠해져서 들은 바 동래가 적에게 함락 되었다는 소식이고 조정에서 징병(徵兵)을 한다 하오니 어찌다가 갈백<sup>1)</sup>

1) 葛伯 : 湯時의 無道君

(葛伯)과 이웃이 된것ियो 또 묘민<sup>2)</sup>(苗民)이 역명(逆命)을 한것입니다. 천조(天朝)를 범하겠다고 길을 빌리라 하는 현소(玄蘇)를 마땅히 배었어야 할 것이요, 지형(地形)을 살펴보고 도모를 해야겠는데 수길(秀吉)을 못보는 것이 한입니다. 되놈의 소리가 천하에 가득하니 차마 보고 듣지를 못하겠고 조수(鳥獸)의 발자국이 국중에 팍차 있어 나아가기도 물러가기도 어렵습니다. 대중(大衆)을 얻는다면야 어찌 제후가 실국(失國)함을 걱정하리요 무도(無道)한것이 이적(夷狄)들의 군신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천명을 얻었다 하여 부강(富強)만을 믿고 우리 토지를 탐욕내어 감히 포학을 자행하고 있으니 저들은 교활하고 반복하는 나라요 이 나라는 위급하고 존하느냐 망하느냐의 때입니다. 일이 어찌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합니까? 우리 성상께서는 사직과 종묘를 근심 하시어 경사(傾土)와 서인들에게 까지 논의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빈(份)을 버리고 양산(梁山)을 넘어갈 행차<sup>3)</sup>를 정하시고 장차 거(莒)를 보전하여 연(燕)나라를 항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sup>4)</sup> 바로 위국(魏國)에서 양상(良相)을 생각할 때요<sup>5)</sup> 제왕(齊王)에 친신(親臣)이 없는 격입니다. 옛날 임금만을 섬기는 사람은 다만 아첨만을 일삼았는데 이제는 나라를 근심하는 선비가 없으니 어찌 충신(忠信)하여 속이지 않는다고 하리요. 그리하여 때로 잔치나 하여 위의(威儀)를 잃고 사람마다 갈팡질팡 하여 간궤(姦宄)보다 더합니다. 벼슬을 하였으면 직책이 있는 법이니 반드시 임금을 보기를 복심(服心) 같이 해야 하나니 몸이나 온전히 하고 생명이나 보전 한다면 또한 세상에 서있는들 무슨 면목이리요. 왕조(王朝)에 있으면서 군록(君祿)을 먹고 이와같은 짓을 한다면 이는 적에게 무기를 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싸

2) 苗民: 舜時의 逆命國民

3) 周太王의 일 孟子에 나옴

4) 戰國時 齊의 田單事

5) 戰國時 魏文侯의 말이니 國亂思良相이라 했음.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홀로 지존(至尊)만 근심을 하게 하다니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요 한번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원한을 씻어보자는 생각이 누구나 없겠습니까? 묘(苗)를 가꾸며 억지로 키우려는 것이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만 못하고 끓는 물을 뒤적여 끓음을 그치게 하려는 것이 타는 나무를 치우는 것만 못합니다. 나라의 형편이 앞으로 급하게 됐으니 병사(兵事)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팡로(彭老)는 고가(古家)의 후예요 신학소생(新學小生)으로서 한갓 옛글만 읽었지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충분(忠憤)이 발하여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요. 군무에 시달려 이 한몸 죽을 각오가 돼있습니다. 비록 무부(武夫)가 나라의 간성(干城)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스스로 지사(志士)는 구렁에 굴러 죽어도 좋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데 일은 크고 힘은 적어 모기가 태산을 질머지는 격이란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위는 낮고 말만 크게 하고 있으니 감히 곤봉<sup>6)</sup>(鯤鵬)의 남해를 가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갓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충(忠)과 내 마음으로 미루어 헤아리는 서(恕)만 간절할 뿐이요. 전혀 사람을 겸한 용맹이나 사람보다 나은 재주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삼익<sup>7)</sup>(三益)을 위태로운 때에 만나보고 일려<sup>8)</sup>(一旅)의 군사를 죽음을 피하는 지경에서 얻었으며 삼척검(三尺劍)을 갈아 백척의 긴 무기를 꺾을 것이요 오리구(五里歐)를 채찍질 하여 천리의 먼 길을 치달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여 그 군사를 거느리니 복종하지 않을것이 무엇이며 이 칼을 차고 이 말을 탔으니 나를 대적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한갓 백리안에서만 무력을 떨치려는 것이 아니요 장차 사방에 힘을 써볼 작정입니다. 그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 아쉬움을 도모하는 자는 성공을 하는 것이요 순(順)한 바로 반(叛)한 바를 치

6) 鯤鵬: 莊子에 나온 말. 곤은 北溟의 大魚이니 鵬鳥로 化하면 南海萬里를 一舉에 갈수 있다고 하였음.

7) 三益: 益者三友

8) 一旅: 旅는 五百名

면 도와준 바가 많은 것이니 이로써 날카로운 무기를 지닌 진초(秦楚)의 군사를 매때릴 수 있을 것이요 어찌 춘추(春秋)책 속에 처럼 의전(義戰)이 없겠습니까? 난(亂)이 극하면 치(治)가 오는 것이니 반드시 천시(天時)를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비(否)가 가면 태(泰)가 되는 것이니 인도(人道)가 펴질 때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義)는 그 임금을 배신하지 않는 법이요 현(賢)은 반드시 나라에 유익 합니다. 온 땅의 사람이 신하가 아님이 없고 모든것이 왕사(王事)가 아님이 없으며 원수는 같이 하늘을 떠받지 못할지니 감히 의모(義謨)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전장군(田將軍)이 북채를 잡듯이 하고 마치 두원개(社元凱)의 파죽지세 처럼 이길 것입니다. 칼을 뽑아 책상을 찍으며 결의를 다짐하기를 우리는 손중모(孫仲謀)의 말대로 할 것이요 노를 치고 강을 건너면서 맹세하기를 누가 조사아(祖士雅)처럼 하리요 몽둥이를 만들어 중행열(中行說)의 등을 때릴 것이요<sup>15)</sup> 끈을 칭하여 남월왕(南越王)의 목을 걸어 오겠다든 용기도 필요합니다.<sup>16)</sup> 특히 기(旗)위에다가 쓰기를 충용(忠勇)이라고 한 사람은 양신(良臣)이요 인중(人中)의 의표(儀表)가 되는 사람은 열도(閱道)입니다. 땅을 다루어 싸

9) 否: 易卦名 不運의卦

10) 泰: 易卦名 通運의卦

11) 田將軍: 齊將 田單 燕을 쳐 齊를 恢復한 장수

12) 社元凱: 晉의 장수 社預의 勳을 쳐서 破竹의 勢로 勝利하여 滅했음

13) 孫仲謀: 三國時 孫權이니 仲謀는 字 赤壁戰에 앞서 曹操에게 降伏을 권하는 자는 이 책상과 같이 하겠다면서 칼로 책상을 찍었음.

14) 朝士雅: 晉의 祖士雅를 건너면서 노를 치고 맹세하기를 맹세코 中原을 맑히지 못하면 다시 이 강을 건너지 않겠다 하였음.

15) 中行說은 漢의 內侍니 公主를 匈奴에게 시집보낼 때에 따라가서 항복하여 漢의 기밀을 누설해 漢에 害를 끼쳤음.

16) 宗계이 弱冠에 漢帝에게 長篇하나를 주시면 南越王의 목을 걸어 闕下에 바치겠다 했음.

17) 良臣: 宋의 韓世忠의 字니 忠勇하여 土賦 方臘을 잡고 叛賊 苗傅와 劉彥之도 잡아 죽이고 全庫도 大破하였음.

18) 闕道: 宋 趙扶의 字니 淸直하여 작인의 표본이 되었다.

우는 적의 불평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하늘을 순하는 자가 존(存)하는 것이니 진실로 이 난(亂)한 것을 견고하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유곤<sup>19)</sup>(劉琨)이 대가(大駕)를 맞게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공훈이 있을 것이요 제갈량(諸葛亮)은 한 나라의 구도(舊都)로 돌아가기 위하여 모자라는 힘을 다 했습니다. 어찌 싸워 보지도 않고 패 할수가 있는가 성공 할수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요 불의(不義)로 사는것 보다는 어찌 죽을 데서 죽는 것만 같으리요 옳드려 원하옵건데 여러분께서는 여전히 나서서 두루 상의를 해봅시다. 진운<sup>20)</sup>(陣雲)이 합해지면 그림자 처럼 따를 것이요 기풍<sup>21)</sup>(旗風)이 동하면 산울림 마냥 호응하여 혹은 붓을 내던지고 혹은 쟁기를 놔두고 일어 나고 수레도 내주고 군량도 운반하여 오십시오 아버지는 자식을 권하고 형은 아우를 권하여 사(士)는 장수가 되고 민(民)은 군사가 되어 더욱 예기(銳氣)를 떨칠지니 비록 마원(馬援)이 늙었어도 쓸만하고 윤탁<sup>22)</sup>(尹鐸)이 젊지만 조양자(趙襄子)는 그리로 찾아가다. 피를 마시며 동맹을 하고 병부(兵符)를 맞추듯이 의론을 정했으니 일을 시작한 사람은 나이지만 절의를 세우고 끝을 마칠 분은 누구일고?

## ○군사를 내는 격문

### (出師檄文)

임진 6월 3일에 의병장 성균관학유 유팽로는 글을 잡고 울어 눈물이 다하여 피를 흘리면서 삼가 백배하고 서둘러 고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데 바다의 도적이 남쪽에서 건너와 난로(蠻貉)가 서쪽으로 가시

19) 劉琨: 진의 愍帝때에 盡忠竭力한 臣

20) 陣雲: 軍陣의 모습

21) 旗風: 깃발의 바람.

22) 尹鐸: 趙臣으로 陰陽을 잘 지켰음.

니 도성은 진양(晉陽)마냥 함몰이 되고<sup>1)</sup> 묘정(廟庭)도 이릉(夷陵)마냥 타버렸습니다.<sup>2)</sup> 이것이 일조일석(一朝一夕)의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오월오일<sup>3)</sup>의 행(行: 氣數의 運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편안히 살수가 없었고 여러신하들은 기계(奇計)를 내는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방금 시국이 위태롭고 세상이 어지러운 즈음은 바로 임금이 옥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선비는 앞서 걱정할 생각을 아니하고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 온전하려는 피를 하고 있으니 다름이 아니라 전혀 친상사장<sup>4)</sup>(親上死長)의 의(義)를 모르는 까닭이며 그래서 변경을 방비하고 적을 막기가 실로 어려운 것입니다. 현능<sup>5)</sup>(賢能)이 조정에 서있지를 아니하고 기준<sup>6)</sup>이 일자리에 있지를 아니하니 아!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은 역시 시운이 성하고 쇠하고 한 까닭인 것입니다. 천문(天文)을 쳐다보면 저들은 먼저 이겼다가 뒤에 패할 것이요 미리 국운(國運)을 짐작해 보면 반드시 처음은 위태롭다가 나중에 편안할 것이니 대부(大夫)들은 나라의 보존을 도모해야 할 것이요 군자들도 어찌 싸우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무(武)를 쓸 곳이니 만약 성공을 한다면 천운인 것이요 의리의 마음이 있는자도 그속에서 나올것이요 이름을 세우려면 반드시 죽은 뒤에야 마는 것입니다. 팽로는 용기가 한사람을 대적할 뿐이지만 마음은 만부(萬夫)보다 웅장합니다. 몸은 음두(飲頭)의 안장에 걸터앉고<sup>7)</sup> 마음은 마가죽 푸

1) 智伯이 韓 魏의 軍을 이끌고 趙의 晉陽을 공격 城에 물을 대니 城中이 잠겨 三版만 남았었다.

2) 秦의 阿房宮을 項羽가 불태우니 세달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夷陵은 地名

3) 五月五日: 음력 단오날이니 이날을 五行家에서는 凶日이라 함.

4) 親上死長: 上을 親愛하고 長을 위해 죽음.

5) 賢能: 德과 才能을 갖춘 사람.

6) 耆俊: 老宿하고 俊傑한 사람

7) 飲頭는 盧子의 異稱이니 盧子의 안장임

대에 시체가 담겨질 생각을 하며 허리에는 누란<sup>8)</sup>(樓蘭)을 벨 칼을 차고 손에는 월초(越椒)의 머리를 꿰뚫을 활을 들었습니다<sup>9)</sup> 저 억조나 되는 오랑캐들은 서로 마음이 떠나고 德에서 떠났으나 우리 신자(臣子)들은 기(氣)를 한가지로 하고 소리를 한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연장을 구별 할려면 얽힌 뿌리를 만나봐야 하고 빠른 바람이 지나봐야 거센 풀을 압니다. 추성(鄒聖: 孟子)이 말하기를 적국이나 외환이 없으면 나라가 언제나 망한다고 하셨고 윤후<sup>10)</sup>(胤侯)는 나라의 운명이 중절(中絶)했을 때에 능히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시호(豺虎)가 종횡하니 형세가 조란(鳥卵)위에 천균<sup>11)</sup>(千鈞)을 얹은 격이요 용어<sup>12)</sup>(熊魚)를 선택하여 취하고 버릴줄을 알면 일신(一身)이 홍모(鴻毛)보다도 가볍습니다. 꿈에도 항상 이릉<sup>13)</sup>(李陵)이 흉노를 치는 것을 생각하고 죽으면 마땅히 장순<sup>14)</sup>처럼 여귀(厲鬼)가 되리라 다짐합니다. 이광<sup>15)</sup>(李洸)의 불신(不臣)한 죄를 사람마다 붓을 들어 꾸짖고 신립<sup>16)</sup>(申位)이 적에게 죽었던 소리를 듣고 누가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지 않으리요 불쌍하다 우리 백성이 짓몽개진 이 땅이여 저들의 목숨을 끊어줄 하늘만을 믿습니다. 금년에 기병(起兵)을 하면 어느날에 되놈을 평정하리요? 의병을 일으키는 실로 오십주<sup>17)</sup>(五十州: 全羅道)가 함께 하는 일이요 출사(出師)는 십일일(十一日)로 기일을 잡았습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데 여러분께서는 마땅히 국가를 우선으로 급하게 여기시고 적진에 용

8) 樓蘭: 單于의 이름

9) 越椒는 楚의 逆臣 鬪越椒니 養由基의 활을 맞고 죽었음.

10) 胤侯: 夏의 諡侯로 命을 받고 義和를 攻伐한 사람

11) 千鈞: 一鈞은 三十斤

12) 熊魚: 꿈의 발바닥과 고기니 生과 義를 비유함.

13) 李陵: 漢將 五千軍으로 匈奴를 大破했음.

14) 張巡: 唐將 · 安祿山亂에 睢陽城을 고수하다가 節死를 하였음.

15) 李洸: 壬辰當時 金羅監司로 戰意가 없어 中道에서 망설이다가 敗死했음.

16) 申位: 大將으로 忠州의 달水에서 敗死함.

17) 五十州: 全羅道

감히 달려갈줄도 아십시오 형세가 양립(兩立)을 할수가 없으니 홀로 당할수 없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위백(衛伯)처럼 수(수: 창비숫하나 칼날이 없는 것)를 들고 앞장을 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sup>18)</sup> 어찌 번장(樊將)처럼 방패를 끼고 바로 들어간 사람이 없겠습니까<sup>19)</sup> 사방을 지키는 한사(漢士)가 수를 헤아릴수 없고<sup>20)</sup> 천리를 비치는 제신(齊臣)이 넷 뿐만이 아닙니다<sup>21)</sup> 우선 먼저 북으로 올라가 나라가 영구히 보존되게 하고 다음으로 군사를 돌려 남정(南征)을 하여 적들을 써도 남기지 않고 멀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왕사(王事)이니 누가 감히 국을 잊으리요 국가의 팔다리가 되어 한마음으로 짐을 질머지고저 속 창자를 털어내어 모든 말에 앞서 맹세하는 바입니다.

## ○영남에 내는 격문

### (檄嶺南文)

전라도의 의병장 옥과 전박사(前博士) 유팽로는 삼가 격문으로 경상일도(慶尙一道)의 대부군자(大夫君子) 여러분께 아됩니다. 옛날에 위(衛)나라 임금이 간성의 장수를 버렸지만 구변(苟變)이 어찌 재주가 없는 것이겠으며<sup>1)</sup> 송의(宋義)는 사직지신(社稷之臣)이 아니었기에 항우(項羽)가 범을 쓴 것입니다.<sup>2)</sup> 그러니 임금이 장수를 제대로 가리지 못

18) 詩經 衛風篇에 伯也執殳爲王前驅를 引用한 말.

19) 번회가 鴻門宴에서 방패를 끼고 바로 들어가 項羽를 노려보니 羽가 참으로 壯士로다 하고 술과 돼지고기를 컸음.

20) 漢高祖의 丈風歌에 安得猛士兮守四方의 句를 引用한 말.

21) 齊威王이 梁惠王을 보고 그 四臣은 千里를 비출수 있는 寶라고 하였음.

1) 衛侯가 大將 苟變이 남에게 鷄卵 두개를 받아 먹었다 하여 卞莊子가 子思가 苟變은 干城之將인데 버리면 안된다고 하였음.

2) 楚義帝가 宋義를 上將軍으로 삼아 秦을 치게 했으나 四十日을 두류하고 進軍을 안하자 項羽가 社稷之臣이 아니라 하여 斬하고 그 軍을 代領했다.



한다면 그 장수를 적에게 주는 것이요 장수를 비록 제대로 썼다고 해도 군사가 싸울만한 사람이 못되면 패전하는 것이니 아! 이것을 사람을 얻고도 사람을 잃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라가 있어도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으니 변경을 순찰하는 순찰사가 성을 버리고 먼저 도망을 쳤다고 하니 어찌 뒤를 따른 종사관(從事官)을 법에 의하여 목을 베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여 저 민정(民情)의 위구(危懼)함을 어찌 합니까. 모두가 적을 보고 겁을 내니 저들은 갈수록 승승(乘勝)을 하고 사람이 없다는 논평을 면하기 어렵겠으니 장차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갑자기 진병(秦兵)이 임치(臨齒)에 드는 것을 보았고<sup>3)</sup> 조맹(趙孟)이 진양(晉陽)으로 피해 가게 되었다.<sup>4)</sup> 삼가 생각 하옵건데 영남은 큰 도회(都會)로 이름이 난 곳이요 선비가 많다고 하는 곳이니 반드시 글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武備)를 갖춘데도 있을 것이며 효자로서 충신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죽기로 싸운다면 삼리 칠리(三里七里)의 성곽을 지킬수도 있을 것이요 용맹을 좋아하는 자도 있어 천부백부(千夫百夫)의 장(長)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모(奇謀)를 지닌 사람이 어찌 진유자<sup>5)</sup>(陳孺子) 뿐이리요 참으로 장군인 사람이 주아부<sup>6)</sup>(周亞夫) 한 사람뿐이 아닐 것입니다. 거병(去病)이 겁을 돌보지 않음<sup>7)</sup>이 바로 오늘에 해당되고 정로(征虜)는 항상 나라를 근심 하였으니 어찌 내년을 기다리리요. 세상이 어지러워도 진출을 하는 사람은 이윤(伊尹: 商臣)의 선지(先知)요, 늙을수록 더욱 장(壯)한 문연<sup>8)</sup>(文淵)을 쓸수 있으며 단거(檀車)로 사람을 잃은 원보<sup>9)</sup>

3) 臨齒는 齊의 都城이니 齊王이 無防備로 있다가 秦兵이 突入하여 齊를 滅했음.

4) 趙孟은 바로 趙襄子니 智伯과 韓魏의 軍을 피해 尹鐸이 지킨 晉陽으로 갔다.

5) 陳孺子: 漢臣 陳平을 말함

6) 周亞夫: 漢文帝의 臣 文帝가 此眞將軍이라고 했음

7) 漢將 崔去病의 故事

8) 文淵: 漢馬援의 字

9) 元甫: 宋 王元規의 字 金人을 잘막아 城을 끝까지 지킨 사람

(元甫)같은 재주를 지닌 사람이 많을 것이요. 목양<sup>10)</sup>(木鬻)으로 군사를 물 건네게한 회음<sup>11)</sup>(淮陰)같은 계책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의병을 이끌고 북으로 향하여 나아가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존(至尊)으로 하여금 홀로 남면(南面)을 하고 근심을 하시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이웃 지역에 소문이라도 날까 두려움이 오늘 같을 때가 없었습니다. 본시 수길(秀吉)이가 지도(地圖)를 가져간 것이 뒷 생각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를 못하고 다만 김성일(金誠一)이 연전(筵前)에 아뢰는 말만 믿고 탄 의심을 안한 것이 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견(先見)의 밝음이 없었고 또 군사들은 쓸 물건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날개를 드리웠다가 다시 날개를 떨친다는 옛 명장의 말도 있거니와 의(義)를 취하고 인(仁)을 이루라는 옛 성인의 훈계도 있습니다. 송천곡<sup>12)</sup>(宋泉谷)의 먼저 죽음은 적을 징계 하였고 곽망우<sup>13)</sup>(郭忘憂)가 뒤에 나선 것은 사람을 감격 시켰습니다. 이를 뒤이어 날 사람이 칠십주<sup>14)</sup>(七十州: 慶尙全道)에 몇사람이나 되는가? 때를 기다려 감춰둔 백만군사를 당할 일검(一劍)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을 멸할수 있는 것이요.

다행히 나라도 보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팽로는 호남에서 살아온지 오래인데 영남을 태산같이 우러렀습니다. 일찍이 동래에서 바다를 보고 적선이 다시 건너 오리라 탐지하고 북궐(北闕)에다 글월을 올려 병기(兵器)를 미래 준비해야 한다고 청했었는데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 갔는데 나라의 걱정이 급하게 되어 칼과 말을 얻고 따르는 오백명도 있어서 기고(旗鼓)를 세우자 나중에 호응한 자가 수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고 남녘 오랑캐의 소리가 나

10) 木鬻: 나무 두릅박

11) 淮陰: 韓信이 趙를 칠때의 일

12) 宋泉谷: 宋象賢 東萊府使로 節死하였음

13) 郭忘憂: 郭再祐 義兵將

14) 七十州: 慶尙全道

지 않게 하며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 놓고 저들이 견아(犬牙: 개의 아가리)처럼 서로 견제를 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촌성(寸誠)을 다하여 삼가 칙서(尺書)를 만들어 호남호서로부터 시작하여 가까운데로부터 전하였고 관동 관서까지 먼데로 가지 않은데가 없습니다. 모두가 의병을 일으켜 적을 치는 자가 아무개라고 알고 있는데 힘을 합하여 나라를 위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 ○ 모든 도에 통하는 문

### (通諸道文)

전라의병대장의 장하사<sup>1)</sup>(帳下士)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 유팽로 등은 삼가 재배하고 충청 경기 황해 평안 4도의 열읍수재(列邑守宰)와 향교의 당장(堂長) 유사에게 글월을 보냅니다. 삼가 아뢰옵건데 섬 오랑캐가 불공하여 승여(乘輿)가 멀리 나가시고 5묘<sup>2)</sup>(五廟)가 불타버리고 만성(萬姓)이 도탄에 빠졌으니 이는 진실로 고금에 없는 변이요 충신 의사가 몸을 버리고 나라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로 지방을 지키는 중신(重臣)들이 관망만 하고 서성거려 징병(徵兵)의 교(敎)가 한두번만 내린 것이 아닌데도 한사람도 북으로 향하여 죽었던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의 사대부는 조정을 저버리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 하옵건데 호남은 본시 군사고 정(精)하다고 일컫는 곳인데 근왕<sup>3)</sup>(勤王)하는 군사가 겨우 금강에 이르러 도성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헛소문이 멀리 퍼져오자 주장(主將)이 미처 중의(衆議)와 타협해 보지도 않고 갑자기 전령을 하여 파진(罷陣)을 하는 바람에 십만의 군사가

1) 帳下士: 막하의 군사

2) 五廟:天子는 七廟 諸侯는 五廟니 太祖와 高曾祖考의 廟

3) 勤王: 왕을 위하여 나서서 싸움.

무단히 그냥 돌아와 버림으로 일도의 일심이 흉흉하여 마치 미친 물결이 옆으로 터지듯 했던 것이요. 나중에 다시 군사를 조발(調發)하려하자 백성들이 지극히 미련하여 그 명령을 좇지 아니 하니 칠실의 근심<sup>4)</sup>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사직(社稷)의 복과 조종(租宗)의 신령으로 무너진 군졸이 날로 모여들고 군성(軍聲)이 크게 떨치니 행여 궁금(宮禁)을 막히고 난로(鑾輅)를 모셔올 것인가 했으나 인모(人謀)가 잘못되고 천화(天禍)가 그치지 않아 사소한 적이 겨우 나타나자 대군이 또 무너져 버려 무기와 양곡을 버려 도리어 도적들에게 도움을 주고 말았으니 아! 우리 열성(列聖)께서 수백년동안 길러온 것이 어찌 이렇듯 하나도 적개<sup>5)</sup>(敵愾)하는 신하가 없단 말입니까? 공론(公論)이 하민(下民)에게 있는 것을 옛사람이 이미 불행한 일이라고 했으며 초야에 있는 사람이 창의(倡義)를 한다는 것도 부득이한 일입니다. 군부(君父)가 어려움에 계시는데 그밖의 일을 걱정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다시 생각 하건대 영남과 양호<sup>6)</sup>(兩湖)는 실로 우리 동방의 근본인데 영남에서 의병이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적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서울에 이르러 왕실을 붙들기가 쉽지 않고 호서의 천리 땅에도 어찌 남자가 없으리요 마는 죽이고 약탈하고 한 끝에 겁을 먹어 아마도 자신을 구하기에 여력이 없을 것이니 오늘날 중외(中外)가 믿는 바는 호남 한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막부<sup>7)</sup>(幕府)께서 만번 죽을 각오를 하고 일방(一方)의 대중을 움직이니 민심이 고국을 생각 했던지 열사(烈士)들이 운집(雲集)하니 바야흐로 북을 향해 길게 나아가 요망한 무리를 쓸어 버리려고 하는데 천리길에 군량을 운반하는 일이 사력(私力)으로는 어려우니 만약 의를 좋아하는 군자가 힘을 합하여 붙잡

4) 魯의 漆室邑. 과부가 太子의 未婚을 걱정함이니 분에 넘는 근심을 말할.

5) 敵愾: 王이 분개해 하는 자를 대적해 싸움

6) 兩湖: 忠淸全羅

7) 幕府: 高靈峯

아주지 않는다면 비상한 큰 공을 어떻게 한사람의 힘으로 이룰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역중(域中)이 모두가 왕토(王土)인지라 그래서 양호(兩湖)의 군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니 앞드려 원하옵건데 모든 군자는 함께 순국(殉國)의 뜻을 떨치고 지군(指囡)의 의를 본받으시오<sup>8)</sup> 각기 곡식을 내어 군식(軍食)을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양묵(楊墨)을 물리친단 말을 한 사람이 성인(聖人)의 무리란 것과(孟子語) 마찬가지로 또한 충신입니다. 또 생각하면 산길이 험악하고 도로도 돌고 곧고 하여 만약 향병(鄉兵)의 지도가 아니면 창졸간의 어려움을 면하기가 어려우니 만약 토인(土人)을 불러 모집해서 우리 군세를 확장케 해준다면 묘사(廟社)의 깊은 수치를 한번 씻을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부자형제의 적에게 죽은 분도 구천의 아래서 눈을 감을 것입니다. 오늘의 일은 비록 어리석은 지아비와 어리석은 지어미라도 모두 이마를 찡그리고 분한 마음을 갖게 되었거든 하물며 열읍의 수재(守宰)들은 모두가 국은을 받은 처지이니 어찌 월인(越人)이 진인(秦人)의 비척(肥瘠)을 보다시피 앉아서만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소매를 떨치고 일어난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전해오는 말에 있기를 「남의 먹이를 먹은 사람은 남의 일에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소식을 듣고 강개(慷慨)한 마음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분이 있다면 원컨데 피를 마시고 맹세하여 함께 왕사(王事)에 나갈 것이요. 혹 군량이나 기계를 준비하여 군전(軍前)에 수송해 준다면 이 또한 일조가 되는 것이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해서<sup>10)</sup>(海西)와 관서<sup>11)</sup>(關西)는 비록 도로가 통하지 않지만 각기 믿을 만한 사람을 모집하여 사이길로 가서

8) 吳의 周瑜가 貧困하여 魯적을 찾아가 적이 千石의 노적을 가리키며 주었다.

9) 楊墨:楊朱 墨翟의 道

10) 海西:黃海道

11) 關西:平安道

월파집(月坡集)

차차로 전달하여 일각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원근이 들으면 혹시라도 믿고 두려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통문이 가는날 열읍의 향교에 당장이나 유사들은 일본(一本)씩 등해가지고 경내(境內)의 선비 집에 전해 일러서 모두 알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파집 2권  
(月坡集 卷二)

설(說)

잡저(雜著)





## 설(說)

### ○유가설

#### (儒家說)

대저 유도(儒道)가 천하에 공이 있음이 크다. 천운이 통태하면 진유(眞儒)가 나는 것이요 진유가 나면 세도(世道)가 형통한 것이니 인주(人主)가 중히 여길 바가 유도 말고는 합당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 선비가 되어 하늘을 떠받고 땅을 밟았다면 유자(儒者)의 이름이 생기는 것이요, 말을 하고 책을 저술하여 지나간 성인(聖人)을 이르고 뒷 학자를 개도(開導)하면 이것이 유자의 도리가 밝아지는 것이니 육경 사서(六經四書)는 유(儒)의 업(業)이요, 사단만선(四端萬善)은 유의 그릇이요, 덕행도의(德行道義)는 유의 뿌리요, 문학정사(文學政事)는 유의 꽃이요, 사람의 법도를 유지하고 조화(造化)를 세우는 것은 유도의 천지(天地)요, 명교(名教)를 밝히고 정치를 베푸는 것은 유도의 일월이다. 유도가 행해지면 당세가 현저하게 덕택을 입고 유도가 밝아지면 만세가 현저하게 그 아름다운 빛을 무릅쓰게 되는 것이니 이른바 전성 후성(前聖後聖)이 그 법도가 하나란 것이다. 어찌 궁달(窮達)로써 우리 유를 논할 수 있겠는가 대저 성인(聖人)이 태어나기 전에는 도(道)가 천지에 있고 성인이 태어난 뒤에는 도가 성인에게 있는 것이다. 옛날 당우(唐虞)의 때에 요순(堯舜)이 임금이 되고 고요(庫搖) 직(植) 설(楔)이 신하가 되었으니 한 당(堂)에서 훈계하고 피하고 하는 바가 어느것이 정일집중<sup>1)</sup>(精一執中)의 말이 아니겠으며 3

1) 精一執中:정하게 살피고 전일해야만 中道를 잡을 수 있다.

대의 때에는 우·탕·문무(禹湯文武)가 임금이 되고 이윤(伊尹) 부열(傅說) 주공(周公) 소공(召公)이 신하가 되어 사해를 평정 하였으니 어느 것이 충·질·문(忠·質·文)을 숭상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때에는 임금은 모두 유아<sup>2)</sup>(儒雅)하고 신하는 모두 유행<sup>3)</sup>(儒行)을 했던 것인데 유자(儒者)란 이름은 들을 수가 없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대저 하락(河와 洛)에 드러내어 용마(龍馬)와 신귀(神龜)의 등에 도서(圖書)의 그림을 엮어 놓으므로써 유도는 이미 하늘에게서 누설이 된 것이요, 고요·직·설·이윤·부열·주공·소공이 그 임금을 도와 도가 행해졌으니 이른바 천지에 세워도 어긋지지 아니하고 귀신에 마취봐도 의심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것이요, 이른바 3왕에게 상고해봐도 틀리지 않고 백세뒤의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천하가 어찌 유자의 이름을 알겠는가 그러다가 춘추 때에 공자는 스승이 되고 안·중·자사(顏衆子思)가 제자가 되어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가르쳐 줬는데 그 어느것이 도덕 성명(道德性命)의 말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전국(戰國)시절에 맹자가 스승이 되고 만장 공손추(萬章公孫丑)가 제자가 되어 어려운것 의심난것을 대답하고 했는데 어느것이 인의 예악(仁義禮樂)의 지극한 말이 아니었겠는가 이때에 이르러 스승도 모두 유술(儒術)을 가르치고 제자도 모두 유업(儒業)을 배우므로써 유자의 이름이 비로소 서게 되었다. 이는 무슨 까닭인가? 이는 왕강(王綱)이 풀리고 이단(異端)의 학이 종횡하여 유도가 거의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안중자사와 만장 공손추가 그 스승을 도와 도가 밝아진 것이니 이는 천지를 위하여 마음(理)를 세워주는 것이요, 생민(生民)을 위하여 명<sup>4)</sup>(命)을 세워주는 것이 지나간 성인을 위하여 끊어진 학문을 이르고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열어준 것이다. 천하에 유자의 도가 없어서 되

2) 儒雅: 선비답고 젊잖음.

3) 儒行: 선비의 행실.

4) 命: 使命 즉 道理

겠는가 아! 천하에 요순의 정학(正學)이 있음으로써 공맹이 있는 것이니 사람은 비록 선후가 있지만 도는 선후의 간격이 없는 것이요. 지위는 비록 궁달(窮達)이 있으나 도는 궁달로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요순보다 낫다고 재어(宰予)가 부자(夫子)를 칭했겠으며 공이 우(禹)의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한유(韓愈)가 맹자를 칭하고 또 우직안회(禹植顔回)의 도가 같다고 7편(壹子七篇)의 안에 다 밝혀 냈겠는가 허지만 공자의 때에 장주(莊周)란 자가 있어 그 성명·도덕·인의·예악(性命道德仁義禮樂)을 논한것이 유도에 가까웠다. 그러나 허무적멸(虛無寂滅)의 교리를 조종으로 삼고 사생 수요(死生壽夭)의 정(情)에 빠졌으니 황당한 학문일 뿐이요. 하물며 성현을 업신 여기고 두려워할 줄을 몰랐으니 유자가 그런 것을 하겠는가 맹자의 때에는 순황(荀況)이란 자가 있어 그 예·시·서·역·춘추(禮詩書易春秋)를 말함이 유도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상한 말을하기를 좋아하여 공손하지 않고 감히 고담(高談)을 하면서 돌아보지 않았으니 형명<sup>5)</sup>(刑名)의 학문일 뿐이요. 하물며 또 녹리(祿利)를 쫓아 부끄러워 할줄을 몰랐으니 유자가 그런 짓을 하겠는가 대저 공맹으로써 제왕에게 비교 한다면 온갖 새중에서 봉황이요. 장주 순황으로써 공맹에 비교 한다면 오곡중의 체폐(帶耨)인 것이다<sup>6)</sup> 그래서 자신을 위하는 학문은 지행(知行)이 같이나아가 실지가 있는 것이요. 남의 이목을 의식한 학문은 언행(言行)이 서로 달라 그 이름만 있는 것이나 이것이 어찌 우연한 연고 이겠는가 서한(西漢)으로 내려 오면서 경술(徑術)을 숭상하여 일시의 유자들이 모두 유술으로써 진출을 하였으니 진실로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러나 춘추(春秋)의 학문을 한다는 사람은 장마지고 가뭇드는 것을 알아내는 방책으로 오도하여 사견(私見)을 성립하고 상서(尙書)의 학문을 한다는

5) 刑名: 刑罰과 名分을 앞세우는 학문.

6) 耨: 耨(耨)은 곡시와 비슷한 풀

사람은 형명(刑名)에다 붙여 말이나 꾸미고 시(詩)를 배운다는 사람은 임금을 보상(輔相)했다는 공적이 드러나지 못했고 주역(周易)을 배운다는 사람은 과정(課程)을 살피는 법이 행해지지 못하고 말았으니 이른바 경술(徑術)이란 것이 이름 뿐이었다. 이것이 과연 제왕의 도가 될수 있겠는가 그때에 오직 가의(賈誼)의 치안책(治安策) 하나가 국체(國體)를 통달 했다고 할수 있고 동중서(董仲舒)의 천인삼책(天人三策)이 제심(帝心)에 꼭 맞는 말이었으니 유도에 가까웠다. 그런데 어째서 삼표 오이(三表五餌)는 잘못되고 공교함으로 흘렀고<sup>7)</sup> 종음 폐양<sup>8)</sup>(縱陰閉陽)의 말은 재이(災異)에만 빠졌으므로 군자는 항시 이것을 서운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공광(孔光) 장우(張禹)는 아침으로 버릇이 되고 두흙(杜欽) 곡영(谷永)은 충의가 전혀 없으니 모두가 우리 도의 죄인이다. 어찌 유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동한(東漢)때에는 기절(氣絕)을 숭상하여 일시의 유자가 모두 기절로 드러났으니 진실로 아름답다. 그러나 계고<sup>9)</sup>(稽古)의 학문을 하는 자는 거마(車馬)에 뜻을 두었고 명경<sup>10)</sup>(明經)의 학문을 하는 자는 청자(靑紫)에 정을 빠뜨렸으니 광자(狂者)를 배워 변통할줄 아는 사람이 어데있으며 견자<sup>11)</sup>(狷者)를 배워 경제(經濟)하는 재주가 어데 있는가? 그러니 이른바 기절(氣絕)도 이름 뿐이다. 과연 성현의 도를 간직할 수 있겠는가. 그때에 오직 엄광(嚴光)이 벼슬을 마다하고 동강(桐江)에서 낚시질을 한일이나 이옹(李膺)에게 찾아간 사람이 「용문(龍門)에 한번 올랐다」고 자랑한 일은 사대부의 도리가 의뢰할 수 있었으니 유도에 가깝다고 할것이다. 그런데 어찌

7) 賈誼가 凶奴를 달래는 계책을 말하며 愛其貌體好其技 安其心이 三表와 융숭한 대우로 그 耳目口腹心을 달래준 五餌를 말했음.

8) 縱陰閉陽: 陰氣를 발산하고 陽氣를 閉藏한다는 術法으로 董仲舒말.

9) 稽古: 古學.

10) 明經: 經傳研究

11) 狷者: 고집스러움.

서 양구(羊裘)를 입고 이름을 널리 알렸으며(事嚴光) 표방<sup>12)</sup>(標榜)을 세워 재앙을 불렀던가(李膺事) 군자는 대양 이것에 불만을 한다. 그밖에 성진(成瑨)의 앉아서 휘바람을 분것은 세상 사람의 기룡을 받고 호광(胡廣)의 중용(中庸)은 당시 권력층에 아부나 하였으니 그 또한 우리 도의 죄인이다. 그들을 또 유자라고 칭할수 있겠는가 마융(馬融)의 오경(五經)을 통달한 것이나 하휴(何休)의 육경(六經)에 정통한 것이나 정현(鄭玄)의 구경(九經)을 주석한 것이나 그밖에 구양생(歐陽生) 하후승(夏侯勝) 호모생(胡毋生) 엄팽례(嚴彭禮) 등이 모두 경학(經學)의 명가(名家)들이다. 동균(董鈞)은 통유(通儒)란 말을 들었고 위현(韋賢)은 대유(大儒)라고 했고 가규(賈逵)는 순유(純儒)라고 했고 고당생(高堂生) 양구가(梁丘駕) 안안락(顔安樂) 정강성(鄭康成)은 모두 유학자의 영수(領袖)다. 경서(經書)를 띄고 발을 맨 예과(倪寬) 같은이나 막힘이 없이 경(經)을 풀어낸 대빙(戴憑) 같은이나 우공<sup>13)</sup>(禹貢: 書經篇名)으로 행세를 한 사람으로는 평당(平當) 같은이가 있었다. 학문에 뜻을 두어 독실한 이로는 소광(疎廣)같은 이가 있었고 학문을 좋아하여 게을리 하지 않은 이로는 왕길(王吉) 같은이가 있었고 홍범<sup>14)</sup>(洪範: 書經篇名)으로 진강(進講)을 한 이심(李尋) 같은 이가 있었다. 숙손통(叔孫通)은 조의<sup>15)</sup>(朝儀)를 만들었고 양웅(揚雄)은 법언(法言)을 만들었으며 반고(班固)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나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부(賦)나 왕포(王褒)의 송(頌)들은 유도에서 얻은 바가 많은 것들이다. 공우(貢禹)는 묘사(廟祀)를 지었고 최식(崔寔)은 정론(政論)을 지었으며 황헌(黃憲)은 도량이 컸고 순욱(荀勗)은 인후(仁厚)했고 채옹(蔡邕)은 효행이 있었으니 이 또한 유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충의(忠義)

12) 標榜: 특별한 태도.

13) 禹貢: 書經篇名.

14) 洪範: 書經篇名.

15) 朝儀: 朝會하는 禮儀

가 늠름(凜凜)한 유향(劉向)과 주감(周堪)이며 의론이 강경한 사단(師丹)과 환담(桓譚)이라든가 육가(陸賈)가 신어(新語)를 짓고 허신(許慎)이 설문(說文)을 지은것이 어찌 옛을 알고 이제를 아는것이 아니겠는가 덕행(德行)이 진실한 사람은 정공(丁恭)과 종흥(鍾興)이요 문질(문학과 덕행)이 훌륭한 사람은 정홍(丁鴻)과 노식(盧植)이다. 그리고 익봉(翼奉)의 육정(六情)을 노한 것이나 유흠(劉歆)의 칠략(七略)을 논한것도 어찌 유식하고 본바가 있음이 아닌가 위소(韋昭) 왕숙(王肅) 우번(虞翻) 유소(劉邵)의 경(經)에 밝고 행실이 깨끗한 것이나 양진(楊震) 원안(袁安) 이고(李固) 두교(杜喬)의 위태로움을 불들려고 함도 있었다. 무릇 한(漢)의 때에 이르러서는 때가 어떠한 때였는가? 그 임금으로 따지자면 시서(詩書)를 일삼지 않았고 신하로 따지자면 학술을 알아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요 그 정치를 따지자면 황로<sup>16)</sup>(黃老)를 숭상 하였는데 어찌 그리도 유자가 많았는가? 대저 질(質)이 극하면 화(華)가 없는 것이요 실(實)이 부족하면 허명(虛名)만 나는 것이 이치요 형세다 이제 상고해 보건데 모든 유자들이 입으로 유언(儒言)을 말하고 몸은 유행(儒行)을 지녔으니 거의 성인의 무리와 다른 바가 없을듯 하지만 그러나 그 실지를 알아보면 마음에 사정(邪正)이 있고 학술에 순박(純駁)이 있어 성인의 무리와는 크게 다를바가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학자가 마땅히 무엇을 기준삼아 좇아야 하는가? 그리고 삼국<sup>17)</sup>(三國)때에 이르러는 사해(四海)가 정분<sup>18)</sup>(鼎分)되어 정벌(征伐)을 하는자는 싸움을 잘하는 자를 피가 많다고 하고 종횡<sup>19)</sup>(縱橫)을 하는 자는 간절하게 변론을 하는 자를 좋은 모사(謀士)라고 하여 애초부터 유도(儒道)가 무엇인지 조차 알지를 못했다. 그중에서 내가

16) 黃老: 黃帝教와 老子教

17) 三國: 漢·魏·吳

18) 鼎分: 三分·술의 발이 셋임.

19) 縱橫: 流說

위하는 바는 오직 제갈량(諸葛亮) 뿐이다. 그리고 또 양진<sup>20)</sup>(兩晉) 오호<sup>21)</sup>(五胡)가 소란스러울 때에 청담(淸談)을 하는자는 노장<sup>22)</sup>(老莊)을 성인(聖人)이라고 하고 행신(行身: 몸가짐을 잘함)을 한다는 자는 방달<sup>23)</sup>(放達)한 사람을 현사(賢士)라고 하였으니 애초부터 유도가 무엇인지를 어찌 알았겠는가 그중에서 내가 취하는 사람은 오직 도잠(陶潛) 한사람 뿐이다. 대저 제갈량은 무엇때문에 죽었는가? 한나라를 위하여 죽은것이다. 그 태어남이 한을 위함이요 죽음도 한을 위함이니 그 충간의담(忠肝義膽)은 일월로 더불어 빛을 다루는 것이다. 유(儒)가 아니고 능히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도잠이 세상에 나간것은 무엇때문에 나갔는가? 진(晉)을 위하여 나간 것이요 잠이 들어앉은 것은 무엇때문에 들어앉은 것인가. 그러니 나감도 진을 위함이요 들어앉음도 진을 위함이니 그 영풍 청절(榮風淸節)은 빙설(冰雪)과 같이 높은 것이다. 유자가 아니고 그럴수 있겠는가 제갈량의 뜻은 아마도 한(漢)과 적(賊)이 양립(兩立)할수 없고 왕업(王業)은 한편에서 편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서쪽으로는 기산(祈山)을 뺏고 남쪽으로는 맹획(孟獲)을 사로잡았으며 항시 관중(管仲)과 악의(樂毅)로 자신을 비하였으니<sup>24)</sup> 제갈량은 사업(事業)의 유자요 잠은 아마도 부귀는 뜬 구름과 같고 공명은 떨어진 쉼신과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뜯고 북쪽 창문 아래에 높이 벼개를 버고 누워 희황(羲皇)의 백성이라고 자부를 하였으니 잠은 도덕의 선비라고 할수 있다. 위대하도다 양의 정대함이며! 천지도 그 정성을 살피 봤을 것이요, 귀신도 그 충성을 내려다 봤을 것이니 천년의 뒤에라도 족히

20) 兩晉: 東晉 西晉

21) 五胡: 漢·趙·燕·秦·大夏

22) 老莊: 老聃 莊周

23) 放達: 방탕하고 동달한척함.

24) 管仲은 齊相으로 霸諸侯를 했고 樂毅는 燕將으로 敎燕伐齊를 했음.

간인(姦人)은 두려워할 것이요 대의(大義)를 필수가 있을 것이다. 지극하도다 도잠의 고결함이어! 빈천(貧賤)으로도 그의 뜻을 옮기지 못하고 위무(威武)로도 능히 굽힐 수 없었으니 백세의 뒤에라도 듣게 되면 나악한 사람을 격동시키고 박한 풍속을 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말하기를 한나라에 문장이 없고 오직 두 출사표(出師表)가 있을 뿐이요 진나라 때에도 문장이 없고 오직 두 귀거래사(歸去來辭)가 있을 뿐이라고도 하였다. 대저 양과 잠은 자취는 비록 같지 않으나 같은 바는 마음이요 마음이 비록 같지 않았을 지라도 같은 바는 이 도인 것이다. 양으로 하여금 잠의 처지에 놓였다면 그 또한 잠의 도를 밟았을 것이요 잠으로 하여금 양의 처지에 놓였다면 그 또한 양의 사업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장완(莊琬)이나 방통(龐統)은 백리(百里)를 다스릴 재주가 아니라고 하고 마초(馬超) 황충(黃忠)은 용맹이 삼군(三軍)에 으뜸이 되었으니 유(儒)가 될만 하다고 하지만 이는 특히 지모(智謀)나 기능(技能)의 선비일 뿐이니 제갈량에 비한다면 자그만 언덕과 태산인 것이다. 어찌 제갈량을 안다고 할수 있겠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사안(謝安) 왕도(王道)는 풍류가 유아(儒雅)하고 고영(顧榮)과 하순(賀循)은 당대의 유종(儒宗)이었으니 종주(宗主)가 될만 하다고 하지만 이는 특히 총명하고 재능이 있는 선비일 뿐이요 잠에게 비하면 이는 행로<sup>25)</sup>(行潦)와 하해임을 모르는 말인 것이다. 어찌 잠을 안다고 할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야 왕통(王通)이 예악(禮樂)을 지을만 하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는 안하고 홀로 양에게만 하였겠는가 문제(文帝)가 정절(靖節)의 시호(諡號)를 다른 사람에게는 내리지 아니하고 홀로 잠에게만 내렸겠는가 삼국(三國)시절과 양진(兩晉)의 유자를 논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수(隨)에 이르러는 어찌다가 다행이도 하나의 왕통(王通)이 있었던가 통의 학문은 무슨 학문인가? 육경(六經)

---

25) 行潦: 길위에 웅덩이.



은 성인이 산정(刪定)한 것으로서 거기에 대경 대법(大經大法)이 들어 있는 것이어늘 통은 원경(元經)이란 것을 지어 육경을 이어 성인과 나란히 갈려고 하였고 논어(論語)는 성인이 저술한 것으로서 성현의 깊은 말과 깊은 뜻이 붙여 있거늘 통은 중설(中說)이란 것을 지어 논어에 비기며 성인과 나란히 설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원경을 가지고 살펴볼 때에 거기에 나오는 고·문·무·선(高祖·文帝·武帝·宣帝)의 제도가 어떻게 요순의 정일집중(精一執中)의 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조(曹: 曹植) 류(劉: 劉植) 심(沈: 沈全期) 사(謝: 謝靈運)의 시귀가 어떻게 물칙 병이<sup>26)</sup>(物則秉彝)의 교훈이 될 수 있으며 조포(曹褒)의 예(禮)가 어떻게 백이(伯夷)와 상대가 되며 선천 후천(先天後天)의 체용(體用)을 찬술(贊述)한 것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순욱(荀彧)의 음악이 어찌 후기(後기)와 상대가 되며 남조(南朝)와 북조(北朝)에 대한 여탈(與奪)도 공평하지 않으니 참람한 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요 중설(中說)을 보더라도 동생(董生)의 현(賢) 하기가 어찌 안자(顏子)에 비할 수 있으며 공경(公卿)의 논(論)이 어찌 공자 제자의 논과 같을 수 있으며 순욱(荀彧)의 인(仁)이 어찌 비간(比干)과 상대가 되리요 이는 고기의 눈알로 주옥과 혼동 하려는 것이요 조식(曹植)의 양위(讓位)가 어찌 태백<sup>27)</sup>(泰伯)에게 상대가 되는가 이는 무부<sup>28)</sup>(玦)로 옥과 혼동하려는 것이니 망녕된 의론의 잘못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다. 나라에서 써주고 버림에 따라 나가기도 하고 들어 앉기도 하여 만만 바에 편안히 대응하는 것이 성인의 출처(出處)하는 도리 이거늘 통은 대궐 아래에 책(策)을 올려 자신을 굽히기를 가볍게 하였고 나아가기를 서둘렀으며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고 지극한 선(善)에 그치는 것이 성인의 체용(體用)을 갖춘 학문이어늘 통은 하분(河汾)에서 교

26) 物則秉彝: 詩大雅에 有物有則 民之秉彝의 詩·周公의 所作.

27) 泰伯: 周泰伯 太王子.

28) 玦: 옥과 비슷한 돌.

수를 하면서 세변(世變) 자세하게 말하고性情(性情)에 대하여는 소략하였다. 그래서 당(唐)나라의 방현령(房玄齡) 두여회(杜如晦) 왕규(王珪) 위징(魏徵)같은 사람들이 모두 그 제자이지만 사관(史官)이 입전(立傳)을 하지 않았고 송(宋)나라 때도 동(董仲舒) 한(韓愈) 정(程明道伊川) 주(朱熹)같은 분은 모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를 하면서 통은 그 옆에 끼이지 못하였으니 이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규구(規矩)를 밟아 옛 군자의 품이 있었으므로 주자(朱子)도 통을 논하기를 「어찌 그 학문을 다 그르다고만 하리요 아주 좋은 말들이 있어 은군자(隱君子)의 덕이 있다.」 하였으며 정자(程子)도 통을 논하기를 「어찌 그의 글을 다 그르다고 하리요」 하였던 것이니 애석하다. 통의 만난 바가 수(隨)이고 당(唐)이 아니었음이어! 만약 수사<sup>29)</sup>(洙泗)의 자취가 희미해진 뒤에 염락(濂洛)의 줄기가 이어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세상에 극히 드문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당나라의 3백년 역사를 본다면 다스려진 날은 적고 어지러운 날이 많았으니 이는 군자가 적고 소인이 많은 탓이 아니겠는가? 태종(太宗)이 유학을 숭상하여 십팔학사(十八學士)를 홍문관(弘文館)에 뽑아두니 당시 사람들이 영주(瀛洲)에 신선이 되어 올라감과 같은 당선(當選)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령(玄齡)은 피를 잘 쓰고 여회(如晦)는 단(斷)을 잘 내렸을 뿐 도(道)는 극진하지 못하였다. 하물며 그밖의 사람들이라 그리고 심지어는 고종(高宗)이 정후(正后)를 폐하고 재인(才人)을 세우는데 학자들도 그대로 뜻을 받들었으니 이는 이름만 선비였지 실상은 아니었던 것이요 현종(玄宗)도 유학을 숭상하여 역시 십팔학사(十八學士)를 함상정(含象亭)에다 뽑아두니 당시 사람들이 진부<sup>30)</sup>(秦府)중에 영현(英賢)이 성했을 때에다 비하였다. 그러나 장열(張說)도 글재주가 있을 뿐이었고 소정(蘇頌)

29) 洙泗: 孔子居地

30) 秦府: 唐太宗이 秦王으로 있을때의 王府.

도 글 재주가 있을 뿐이었으며 덕은 부족했다. 하물며 그밑의 사람이라 그리고 현종(玄宗)이 태자를 폐하고 귀비(貴妃)를 드러 세우는데도 학사들이 역시 찬성을 하였으니 이른바 유자란 사람들이 조용히 말만 잘하고 실행에 가서는 틀린 것이다. 그리고 유우석(劉禹錫) 이백(李白) 원결(元結) 백거이(白居易)의 시들은 호매(豪邁)한듯 하지만 군자가 취하는 바는 오직 하나 두보(杜甫)다. 두보는 풍경을 그리면서도 임금을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여 시경(詩經) 삼백편의 체를 조종으로 삼았으니 두보의 시는 유자(儒子)의 시인 것이다. 그리고 왕발(王勃) 양형(楊炯) 노조린(盧照隣) 낙빈왕(駱賓王)의 글은 부려<sup>31)</sup>한듯 하지만 군자가 취하기는 오직 하나 한유(韓愈)였으니 그것은 성경(聖經)을 좌우하여 쇠한것을 붙잡아 일으키고 빠진것을 건져 삼왕(三王)의 법을 갖추었기 때문이니 유(愈)의 문은 유자의 문인 것이다. 요숭(姚崇)과 송경(宋璟)은 시종된 잘했을 뿐 당시에 도움은 없었고 상곤(常곤)과 양거원(楊巨源)은 제책<sup>32)</sup>의 공은 있었지만 정치에는 절실하지 못했으니 군자가 취하는 바는 육지(陸贄) 한사람 뿐이다. 그는 충성이 족히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했고 말이 족히 왕업을 도울만하여 맹자 7편과 같은 인의(仁義)가 있으니 지(贄)의 의론은 유자의 의론이다. 이밖에 서문달(徐文達) 안사고(顏師古) 저무량(渚無量) 윤지장(尹知章)같은 사람은 경학(經學)으로 유명했고 구양순(歐陽詢) 소덕언(蕭德言) 원행충(元行忠) 공약사(孔若思)같은 사람은 사학(史學)으로 유명했고 정여경(鄭餘慶)의 주대<sup>33)</sup>는 경의(經義)를 많이 인증했고 그때指南이란 칭호를 받은 사람은 왕원감(王元感)이었다. 장문창(張文昌)의 의론은 석로(釋迦 老聃)를 배척하기를 좋아 하였고 총영수(總領袖)란 칭호를 받은 사람은 은천유(殷踐猷)였다. 아! 당나라 때의 여러 선

31) 富麗: 넉넉하고 화려함.

32) 制冊: 冊對製구

33) 奏對: 王의 물음에 대답함.

비는 어찌 그리도 성하였으며 그 임금의 유학을 숭상함도 어찌 그리도 성하였던가? 그런데도 치도(治道)가 끝내 당우 삼대(唐虞三代)의 치적(治績)만 못하였으니 어찌된 일일까? 그것은 군자와 소인이 함께 나아간 연고다. 그러다가 송덕(宋德)이 융성하여 정치나 교화가 아름답고 밝았으니 진유(眞儒)가 배출함은 당연하다. 대저 유자(儒者)로 이름이 나면 사람이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람이 의심할 수도 있다. 사랑하는 것은 유자의 실상이 있기 때문이요 의심하는 것은 유자의 이름만 지녔을 수도 있기 때문이니 학자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면 구양공<sup>34)</sup>(歐陽公)은 고문(古文)을 주창(主倡)하였으니 유자라고 한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유자는 반드시 성(性)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구공(歐公)은 여기에 어두웠으니 자연 성교(聖教)와 배려(背喉)되는 것이요 구공도 그러했거든 하물며 황정견(黃庭堅) 소식(蘇軾)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왕형공(王荊公: 名安石 字介甫)은 당시에 알맞은 학문을 한다고 했으니 유자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유자는 반드시 경(經)을 알아야 하는데 형공은 배반을 하였으니 성문(聖門)에 죄를 얻은 것이다. 형공도 그렇거든 하물며 장돈(章惇) 여혜경(呂惠卿) 이겠는가 그래서 유자의 이름만 지녔다는 것이다. 이래서 남들이 선비를 의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옥연금정(玉淵金井)같이 뜻이 고결하고 광풍제월<sup>35)</sup>(光風霽月)같이 가슴이 시원한 주무숙<sup>36)</sup>(周茂叔)을 나는 사랑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절을 삼가하여 늙름 하기가神明(神明)같고 이치를 궁구하고 천성(天性)을 다하여 깨끗하기가 빙설(氷雪)같은 장자후<sup>37)</sup>(張子厚)를 나는 사랑하고 덕성(德性)이 관대하고 규모가 광활하여 안자(顏子)처럼 순수한 정백자<sup>38)</sup>

34) 歐陽公: 名修 字永叔

35) 光風霽月: 봄바람과 비 갠 뒤의 달.

36) 周茂叔: 名敦頤 號濂溪

37) 張子厚: 名載 號橫渠

38) 程伯子: 名頤 字伯淳 號明道

(程伯子)를 나는 사랑하고 기상이 모나고 강하며 문학 조리가 세밀하고 밝은 맹자와도 같은 정이천<sup>39)</sup>(程伊川)을 나는 사랑하고 독실히 배우고 힘써 행하여 청고한 수신(修身)과 애를 쓴 절의(節義)를 지닌 사마공<sup>40)</sup>(司馬公)의 상업<sup>41)</sup>(相業)을 나는 사랑하고 손으로는 월궁<sup>42)</sup>(月窟)을 더듬고 발로는 천근<sup>43)</sup>(天根)을 밟은 소요부<sup>44)</sup>(邵僥夫)의 심학(心學)이 사랑할만 하고 일심(一心)으로써 조화의 근원을 궁구하고 성명(性命)의 묘를 다했으며 성현의 깊은 뜻에 통달하여 일신(一身)으로서 천지의 운행을 간직하고 사물(事物)의 이치를 갖추어 강상(降常)의 책임을 담당한 분은 주자양<sup>45)</sup>(朱紫陽)이다. 그밖에 양중립(陽中立)의 천리(踐履)가 순진하고 견고함과 나중소(羅仲素)의 엄하고 굳세고 청고(淸苦)함과 유정부(遊定夫)의 청덕(淸德) 중망(重望)이 일성(日星)처럼 환한것이나 윤화정(尹和靖)의 진실하고 정직하며 속이 넓고 굳셈이며 범조우(范祖禹)의 성신독실(誠信篤實)함이며 주광정(朱光庭)의 박학(博學) 강행(強行)이 금석같이 굳은거나 사현도(謝顯道)의 긍(矜)의 글자를 없애려고 노력하여 명리(名利)의 관문을 뚫고지난 것등이 도에 얻음이 있지 아니하고 능할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리고 이원중(李原仲)의 충분한 수양과 완전하고 순수함이며 황면제(黃勉齊)의 영오(穎悟)하고 숙성함이나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大學衍義)는 치도(治道)에 도움을 주는것이요, 여조겸(呂祖謙)의 강론하고 연구함이 해박한 것이나 요중노(饒仲魯)의 학문깊은 것이나 보한경(輔漢卿)의 사서찬록(四書纂錄)은 성경(聖經)에 간절한 것이요 장경부(張敬夫)는

39) 程伊川 : 名頤 字正叔

40) 司馬公 : 名光 字君實

41) 相業 : 정승이 되어 이룩한 사업.

42) 月窟 : 周易의 姤卦

43) 天根 : 周易의 復卦

44) 邵僥夫 各雍 號庸節

45) 朱紫陽 : 朱子名熹 字號晦菴

인(仁)이란 글자를 배워 이욕(利慾)의 한계를 강명(講明)하였으니 도에 연음이 없어서 그럴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호안정(胡安定)과 호치당(胡致堂)의 체용(體用)의 학문이 연달아 계승이 되었고 채원정(蔡元定)과 채중묵(蔡仲默)의 이수(理數)의 학문이 연달아 이어졌으며 위료옹(魏了翁)은 벗을 모아 글을 읽고 법을 행하며 천명을 기다렸고 사방득(謝枋得)은 충성을 다해 나라를 돕고 몸을 닦아 천명을 기다렸으니 이는 모두 우리 유자들이 실지를 힘쓰고 이름 얻기를 힘쓰지 않은 것이다. 그밖의 여대균(呂大勻) 여대림(呂大臨)은 말은 비록 황로(黃老)에 빠졌으나 도교(道教)의 의론에도 취할바가 있고 육자정(陸子靜) 육자미(陸子美)는 학술은 비록 치지(致知)를 약했지만 덕성(德性)의 의론이야 무시할 수 있는가 대저 유자가 우리 도에 큰 공이 있는 것이다. 한나라 당나라의 동중서(董仲舒) 한유(韓愈)의 외에는 적막하게 알려진 사람이 없다가 송나라에서 주정장주(周濂溪, 程明道伊川, 張橫渠 朱子)의 외에도 여러분을 들수가 있으니 하늘은 어찌 전에는 인식하다가 뒤에야 풍성하였는가? 아! 한나라 때에는 황노(黃老)의 교가 성하고 당나라 때에는 사장(詞章)이 성하여 사람들은 우리 도에 뜻이 없었으니 그래서 동중서 한유가 외롭게 선것이요 별이 규(奎)자리에 모이고 낙수(洛水)에 서광이 비쳤으니 하늘이 우리 도에 뜻을 둔것이다. 이래서 주정장주(周程張朱)가 번쩍 번갈아 일어난 것이다. 그러다가 말기에 이르러 천운(天運)이 비색하고 국조(國祚)도 옮겨가 버리니 어찌 도가 행해지지 않았는가 만약 왕자(王者)가 일어나고 유자가 보조 했다면 중하(中夏)의 도리로 오랑캐를 변화할 수가 어찌 없겠는가 원(元)나라는 북쪽의 오랑캐로서 중국에 들어와 차지하였으니 진실로 유자가 그 사이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음이 있었겠는가 이때에 노제허씨(魯齊許氏)가 가까이 정주(程朱)의 글을 상고하고 멀리는 주공(周公: 孔子)의 대도(大道)를 살펴봐 몸을 같기는 추상열일<sup>46)</sup>(秋霜烈日) 같이하고 사람을 가르치는데는

46) 秋霜烈日: 가을 서리 따가운 해.

춘풍화우(春風化雨) 같이 하였으니 이는 그 천자(天資)가 높아 굳세고 유능했던 것이다. 초려오공(草慮吳公澄)은 육경(六經)의 정미한 이치를 연구하고 백가(百家)의 고루한 풍습을 씻어 기(己)를 이기기를 마치 무부(武夫)가 적을 이기듯하고 경(敬)을 닦기를 마치 여자가 몸을 지키듯 하였으니 이는 그 천자(天資)가 영특하여 탁연하게 지키는 바가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서 원나라 유학자를 논하려면 첫째도 오허(吳許: 草慮魯齊)요 둘째도 오허다 오허 외에 유병충(劉秉忠) 염희헌(廉希憲)의 사업은 천지를 경륜하였고 정거부(程鉅夫) 조맹부(趙孟頫)의 문장은 고금에 뛰어났다. 오직 양유중은 도로써 자임(自任)을 하여 사람의 예문(禮文)이 밝아졌고 조인보(趙仁甫)는 도로써 사람을 교화하여 선비들의 습관이 크게 달라졌다. 황극(皇極)의 수(數)에 정통한 사람은 이준민(李俊民)이요 안거(安車)로 모셔가 도가 더욱 높아지고 성리(性理)의 학문에 깊었던 사람은 유정수(劉靜修)다. 징벽(徵召와 薦舉)을 사양함에 이름이 더욱 중(重)해진 요추(姚樞)의 학문은 정심(正心)에 근본하였고 요수(姚遂)의 학문은 성의(誠意)에 근본하였으며 두묵(竇默)의 치도(治道)를 논한것이나 이맹(李孟)의 대정(大政)을 아뢴것은 체(體)를 밝히고 용(用)을 적합하게 하는 공이 있었다. 왕반(王磐)의 문은 기(氣)에 주장하였고 왕악(王鶚)의 문은 이치에 주장하였으며 확경(郝敬)은 기절(氣節)을 숭상하고 범곽(范梈)은 청고<sup>47)</sup>(淸苦)를 달게 견디어 나약한 사람을 격동하고 완악한 사람을 흥기케 하는 뜻이 있었다. 등문원(登文原) 우백생(虞伯生)은 경술에 밝고 행실이 깨끗했으며 마조상(馬祖常) 원명선(元明善)은 문이 부려(富麗)하면서 기운이 호탕하고 김리상(金履祥)은 사도(師道)로 자존(自尊)하였고 허겸(許謙)은 사서총설(四書叢說)을 지었는데 모두 지수(指數)한 바가 있다. 주오강(朱梧岡)은 본디 가정에서 교훈을 받았고 공천(公薦)은 시전소의(詩

47) 淸苦: 청백하고 고통을 견딤.

傳疏義)를 지었는데 모두 면명<sup>48)</sup>(面命)을 받은바가 있다. 조성에 올라가 우뚝 서서 관(官)에 임하기를 청백하게한 사람은 황진경(黃晋卿)이 있는데 그 문장과 정사(政事)는 더욱 따를수가 없고 몸가짐을 검약하게 하고 관(官)에 거하기를 청렴공평 하게한 사람은 구양립(歐陽立)이 있는데 도덕은 더욱 미칠 수가 없다. 그러다가 대명(大明)이 천하를 다스리게 되면서 문운(文運)이 통태 하였으니 진유(眞儒)가 세상에 쓰이면서 문화(文化)가 이루어져 유도는 이에 이르러 크게 갖추어졌다. 조종(祖宗)이 창업을 할때에도 유자(儒者)로써 흥하였고 열성(列聖)이 왕업을 이으면서도 유자로써 드러났으니 유학을 존중하고 도를 중히 여김이 역세(歷世)에 비하여 높이 뛰어난 것이다. 성의백유기(誠意伯劉基)는 주책(籌策)을 써서 개국(開國)의 업을 이룩하였고 강기(綱紀)를 베풀어 경세(經世)의 법전을 전하였으니 깊고 깊은 천인(天人)의 학문이요, 태학사 송렴(宋濂)은 사(邪)를 물리치고 정(正)을 붙잡았으며 성현의 도를 밝히고 고금을 짐작하여 제작<sup>49)</sup>(制作)의 저울대를 잡았으니 쟁쟁한 금석의 문이다. 도안(陶安)은 이학(理學)에 정통하여 국조(國朝)에 모략(謀略)으로는 쌍이 없고 왕위(王緯)는 경사(經史)를 널리 통하여 성세(聖世)의 학문으로 첫째가 된다. 장익(章益)의 학문은 성(誠)에 근본하여 엄치로써 풍속을 장려 하였고 황복(黃福)의 학문은 정(正)에 근본하여 강직(剛直)으로써 인심을 격려했고 주선(朱善)은 학문이 깊었으니 시경해이(詩經解頤)에서 알수 있고 유주(劉珠)는 기절(氣節)이 호매 하였으니 양계문집(兩溪文集)에서 볼수 있다. 삼양<sup>50)</sup>(三楊)은 이름이 사이(四夷)에 까지 크게 났는데 증계(曾縉)같은 사람이 짝을 이룰만하고 이왕<sup>51)</sup>(二王)은 명망이 일세에 으뜸이 되었는데 송눌

48) 面命: 직접 명령함.

49) 制作: 禮樂의 制作.

50) 三陽: 楊士奇, 楊榮, 楊溥

51) 二王: 王守乍, 王世貞



(宋訥)등 제공(諸公)이 짝을 이룰만 했다. 이시면(李時勉)은 그 한번 올린 봉사(奉事)만 보아도 위무(威武)로써 어찌 급힐수가 있겠으며 오흥필(吳興弼)의 병폐(聘幣)<sup>52)</sup>를 한번 사양함은 이록(利祿)으로 그를 어떻게 달랠수 있겠는가 호엄(胡儼)은 성균관(成均館)의 학도를 가르침에 호안정(胡安定)같은 칭호를 받았고 설선(薛瑄)은 학교에서 교수를 하여 설부자(薛夫子)란 칭호가 있었으며 진선(陳選)은 성현으로서 스스로 기대하여 비록 권귀(權貴)와 부딪쳐도 피하지 않았고 나륜(羅倫)은 경제(經濟)를 자부하여 비록 권귀와 거슬려도 사피하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가 충의가 넘쳐서 일월로 더불어 빛을 다투니 사람을 흥기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에 고금을 차례로 상고하여 논하건데 유자의 제(帝)는 요순이요 유자의 왕은 우탕 문무요 유자의 스승은 공자 증자 자사 맹자 주렴계 정자 장횡거 주자이다. 크도다 유도여! 유자를 꼭 쓰고 쓰는 사람이 유자였음은 이것이 옛날의 치평(治平)이 된바요 유자를 쓰지 아니하여 쓰이는 사람이 유자가 아니었음은 후세가 어지러운 바다. 그러니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중히 여기는 임금이 취사(取舍)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 병가설

### (兵家說)

유자(儒者)가 군사쓰는 법을 모른다면 유자라고 할수 없다. 그리고 遠大한 생각도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대강을 대략 진술해 왔다.

대저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군사가 있어야 하고 군사가 있으면 반드시 장수가 있어야 한다. 장수가 제대로 얻어진 뒤에 군사를 통솔할 수가

52) 聘幣: 초빙하는 폐백

있는 것이요 군사가 제대로 통솔된 뒤에 나라가 편안 할수 있는 것이다. 왜냐면 군사를 쓰는데는 법도가 있는 것이고 그 꾀도 무궁한 것이며 그 묘함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혹은 기(奇)로 하고 혹은 정(正)으로 하여 일정 하지만 않은 기회가 있는 것이고 혹은 치고 혹은 지켜 일정하지만 않은 형세가 있는 것이니 호흡하는 사이에 바람 우뢰 처럼 치닫는 것이요, 지령하고 돌아보는 사이에 천일(天日)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니 군사를 잘쓰는 사람이 아니고는 말 할수가 없다. 옛날을 상고해 보건데 황제(黃帝)의 5진은 직진(直陳)은 목(木)에 속하고 예진(銳陳)은 화(火)에 속하고 원진(圓陣)은 토(土)에 속하고 방진(方陣)은 금(金)에 속하고 곡진(曲陳)은 수(水)에 속한다. 태공(太公)의 3진은 천진(天陳)은 성신(星辰)의 고허(孤虛)를 말하고 지진(地陳)은 산천(山川)의 배향(背向)을 말하고 인진(人陳)은 편대의 조직을 말한다. 풍후(風后)의 8진은 천(天) 지(地) 풍(風) 운(雲) 호익(虎翼) 사반(蛇蟠) 용비(龍飛) 봉상(鳳翔)이요 손자(孫子)의 8진은 방(方) 원(圓) 빈(北) 모(牡) 충직(衝直) 방의(方宜) 거륜(車輪) 안행(雁行)이요 오기(吳起)의 8진은 또 곡(曲) 직(直) 예(銳) 방(方) 거상(車箱) 거공(車輦) 아관(鵝鸛) 충진(衝陳)의 다름이 있고 공명(孔明)의 8진은 또 동당(洞當) 중황(中黃) 용등(龍騰) 조상(鳥翔) 연횡(連衡) 악기(握奇) 호익(虎翼) 절충(折衝)의 다름이 있고 이정(李靖)의 좌우후(左虞候) 우우후(右虞候) 좌일상(左一箱) 우일상(右一箱) 좌이상(左二箱) 우이상(右二箱)은 육화진(六花陳) 이라고 하지 않는가 대적(大赤) 대흑(大黑) 청사(靑蛇) 백룡(白龍) 좌돌(左突) 우격(右擊) 전충(前衝) 후충(後衝) 최홍(摧兇) 결승(決勝) 파진(破陳) 전봉(前鋒)을 십육진(十六陳)이라고 하지 않는가. 3도3급(三道三急)이란 것은 정병(正兵) 기병(奇兵) 복병(伏兵) 득지형(得地形) 졸복습<sup>1)</sup>(卒服習) 기용리<sup>2)</sup>(器用

1) 卒復習: 군졸의 훈련이 잘됨.

2) 奇用利: 무기가 좋음.

利)요. 5습(五習)은 이습<sup>3)</sup>(耳習) 목습(目習) 심습(心習) 수습(手習) 족습(足習)이요. 5교(五敎)는 형색(形色)의 기(旗)와 호령(號令)의 수(數)와 진퇴(進退)의 도(度)와 장단(長短)의 별(別)과 상벌(賞罰)의 신(信)이다. 대저 병법이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이요. 또한 믿을 수만도 없는 것이다. 장량(張良)은 주(籌)를 써서 계책을 결정했는데 그법이 태공(太公)에게서 나왔고 한신(韓信)은 싸우면 이기고 공격하면 취했는데 그 법이 손무(孫武)에서 연유되었으니 이는 모두 법에서 얻은 바가 있었던 것이요. 곽거병(霍去兵)은 병법을 배우지도 않았지만 여러번 흉노(匈奴)를 이겼고 장순(張巡)은 병법에 의하지 않고도 능히 수양(睢陽城)을 지켰으니 이것이 법에만 얽매이지 않음이요. 조괄(趙括)은 부친의 글만 읽었다가 장평(長平)에서 패하였고 마속(馬謖)은 병법을 잘 말했으나 가정(街亭)에서 패하였으니 이는 법을 믿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만들어가지고 쓰는 것을 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미루어서 쓰는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 이것이 군사를 쓰는 사람의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이다. 병가(兵家)에 6도3략(六蹈三略)이 있는 것이 마치 유가(儒家)에 4서6경(四書陸經)이 있는 것이나 같으니 경전(經傳)에 밝지 못하면 글을 지을 수 없듯이 도략에 밝지 못하면 장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마치 바둑이 일정한 규칙이 없듯이 병법도 일정한 규칙이 있겠는가 형세를 살필줄을 모르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바둑에 이기지 못한 것만 걱정을 한다면 천하의 용렬한 재주요. 기회를 살필줄을 모르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적병을 대적할 수 없음을 걱정만 한다면 천하의 용렬한 장수다. 그러니 장수를 뽑는 일을 삼가지 않아서 되겠는가 무릇 장수는 국가의 안위가 달려있는 바다. 처음 선택할 때에 세밀히 살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니 한번 맡긴 뒤에는 전임(專任)을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옛날 이윤

---

3) 耳習: 귀의 훈련.

(伊尹)은 신야(莘野)에 하나의 농사꾼 이었다. 그런데도 탕(湯)이 얻어가지고 결국 결(桀)을 쳐서 창엽의 공을 이룩 수가 있었으니 이는 문망(門望)에 구애하지 않은 것이요, 부열(傅說)은 암야(巖野)에 하나의 축부(築夫: 집짓는 사람)였으나 고종(高宗)이 얻어가지고 마침내 귀방(鬼方)을 쳐서 중흥의 업을 이룩하였으니 이는 시망<sup>4)</sup>(時望)에 구애하지 않은 것이요 태공은 반계(潘溪)의 한 낚시꾼 늙은이였으나 무왕(武王)이 얻어가지고 마침내 주(紂)를 쳐서 육도(六稻)를 전하였으니 이는 중망<sup>5)</sup>(衆望)에 구애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더욱 떨어져 인재가 어려우니 어찌 선택하는 방법을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8징<sup>6)</sup>(八徵)의 법으로써 시험을 해볼 것이니 말로 물어 그 말솜씨를 보고 말로 물어볼여 그 변통성을 보고 간첩(間諜)을 보내 그 성의를 보고 명백하게 물어 그 덕을 보고 재물을 주어 시켜보아 그 청렴함을 보고 여색으로 시험하여 그 끈은 가를 보고 어려움을 고하여 용기를 보고 술으로써 취하게 하여 그 태도를 볼것이나 그렇게 하면 겉과 속이 비록 같지 않을 지라도 그 실정을 숨길 수 없이 살필 수 있으며 마음과 얼굴이 비록 한결 같지 않아도 그 간특함을 부릴 수 없이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장차 영웅들을 모두 부릴수가 있을 것이요 준걸(俊傑)들이 모두 망라되어 용맹있는 자는 그 힘을 바치고 지혜 있는 자는 그 피를 바치고 하여 부리는 바에 따라 모두 적개(敵概) 어모<sup>7)</sup>(禦侮)의 공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며 한고조(漢高祖)의 한신(韓信)이나 광무제(光武帝)의 등우(登禹)나 당태종(唐太宗)의 이정(李靖)이나 송태조(宋太祖)의 조빈(曹彬)을 오늘에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저 하나의 후기<sup>8)</sup>(后夔)을 얻어 버리면 천하

4) 時望: 당시의 名望

5) 衆望: 大衆의 印望

6) 八徵: 여덟가지의 시험.

7) 禦侮: 侮禦를 막음.

8) 后夔: 舜의 樂官

에 맞추기 어려운 5음<sup>9)</sup>(五音)이 없는 것이요, 하나의 백락<sup>10)</sup>(伯樂)을 얻어 버리면 천하에 이끌기 어려운 말이 없는 것이요, 하나의 현장(賢將)을 얻어 버리면 천하에 막기 어려운 용적(戎狄)이 없는 것이다. 무릇 산에 맹수가 있으면 여우 삼행이가 낮에 울부짖지 못하는 것이요, 강물에 교룡이 있으면 미꾸라지 두렁이가 감히 밤에 놀아나지 못하는 것이니 그것은 저희들의 두려워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아! 십실(十室)의 읍에도 반드시 충신(忠信)이 있는 것이요, 백보의 안에도 반드시 향초가 있는 것이니 어찌 오늘날 같은 당당한 성조(聖朝)에 믿을 만한 현장(賢將) 하나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현장만 있다면야 어찌 병마가 없겠는가 장수도 반드시 말이 있어야만 이 무거운 짐을 실어 먼데에 운반 할 수 있는 것이고 군사도 반드시 말이 있어야 만이 적봉을 꺾고 적진을 부술수 있는 것이니 장수에게 군사가 없어서도 앓되고 군사는 또 말이 없어서는 앓되는 것이다. 땅은 험하고 평탄한 다름이 있고 군사는 거도<sup>11)</sup>(車徒)의 차이가 있다. 옛적에는 군사를 도보로 걸렸기에 후세에 그로 인해 보병이 생겼고 옛적에 싸움을 수레로 했기 때문에 후세에 그로 인해 기병이 생긴 것이다. 높은 등성이나 험한 비탈길이나 앞에 쌓인 돌이 있고 뒤에 옥어진 나무가 있다면 이는 보병에게 유리한 곳이요, 평원광야에 앞에 산림이 없고 뒤에 또랑이 없다면 이는 기병에게 이로운 곳이다. 보졸이 정예하여 모질기가 범갈고 건장하기가 용갈아 창을 들고 방패를 나란히 맞대고 나간다면 싸움에 어찌 이기지 못하겠는가 기사(騎士)가 충돌을 하여 바람처럼 번개처럼 나아간다면 적봉을 꺾고 적병을 부술 것이니 공격을 하여 어찌 취하지 못하겠는가. 옛날에 마원(馬援: 漢將)은 3천의 군사로써 선령(先零)을 쳤고 사현(謝玄: 晉將)은 8천군사로써 부견(苻堅: 秦王)을 패하게 하

9) 五音: 官商角 徵弱

10) 伯樂: 馬相을 잘 본 사람.

11) 車徒: 수레단 군사와 도보의 군사.

였으니 이는 보졸이 전적으로 공을 세운것이요, 오한(吳漢:漢將)은 5천기로 왕랑(王朗)을 쳤고 이정(李靖:唐將)은 3천기로 돌궐(突厥)을 습격하였으니 이는 기병이 공을 세운 것이다. 그러니 이 두가지를 겸하여 쓴다면 어찌 국가의 만전지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기병만 있고 보병이 없어서 한고조는 백등(白登城)에서 포위를 당했던 바요, 보병만 있고 기병이 없어서 이릉(李陵:漢將)은 흉노에게 투항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손자(孫子)가 말하기를 「말로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금고(金鼓: 징과 북)를 만든 것이요 보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旌旗)를 만든 것이다」 하였으니 무릇 정기와 금고는 진중의 이목인 것이다. 그래서 밤의 싸움에는 금고를 많이 사용하고 낮의 싸움에는 정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니 사람의 이목을 번갈아 이용하는 것이다. 또 말했기를 「아침 기운은 날카롭고 낮 기운은 해태하고 저녁 기운은 근본으로 돌아간다」 하였으니 군사를 잘 쓰는 사람은 그 날카로움은 피하고 그 해태할 때를 이용한 것이다. 또 말했기를 「모진 새가 작은 새를 치려면 그 머리를 숙이고 맹수가 짐승을 덮치려면 그 발톱을 감춘다」 하였다. 그래서 군사를 쓰는 방도는 약한 것을 보여줬다가 강한 것으로 대들고 동으로 갈려면 서쪽으로 가려는 듯이 보여주며 분산을 할려면 합치는 것을 보여주어 이쪽의 거동과 동정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 계략이 두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거전(車戰)이요, 둘째는 수전(水戰)이다 거전은 수레를 만드는 법이 있는 것이요, 수레를 쓸 땅이 있는 것이니 요는 그 사람을 제대로 얻어 맡겨야 하는 것이다. 대저 수레는 6등급이 있는데 이를 싸움터의 속에다 붙여둔 것은 그 절제(節制)를 붙여두는 뜻에서이다. 그 법도는 있어도 이것을 사용할 만한 땅이 없거나 그 땅은 있어도 그만한 사람이 없으면 거전을 할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군사는 비록 충돌을 숭상하지만 거전은 막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요, 군사는 비록 적을 추격하는 것을 숭상하지만 거전은 그칠데서 그칠줄을 아는 것을 잘한다고 한다. 말을 달리는 것도

법이 있지만 궤우<sup>12)</sup>(詭遇)로 잡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퇴(進退)가 뒤통스름이 있지만 참애<sup>13)</sup>(斬艾)의 공은 구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옛 사람의 거전을 하는 방법이요, 인후하면서도 의뢰가 극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가 본디 쓰는 장기(長技)가 아니니 논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수전은 역시 제대로 사람을 얻어야 하고 기회를 따라 응변(應變)을 해야 한다. 노를 저어 진퇴의 형세를 한결같이 하고 흐름을 좇아 오르고 내림을 한결같이 한다면 틀림없이 싸움에 이기고 공격하여 취할수 있는 것이다. 옛날 무왕(武王)이 주(紂)를 칠때에 맹진(孟津)의 모임이 있었어으니 이것이 주사(舟師)의 비롯이요, 선왕(宣王)이 회(淮)를 평정하면서 강한(江漢)의 시를 남겼어니 이것은 주사가 성한 것이요, 주매신(朱買臣)이 누선(樓船)을 만들어 동월(東越)을 피하였고 양박(楊樸)은 수군을 발하여 남월(南越)을 평정 하였어니 이것이 한(漢)나라 때에 주사(舟師)를 쓴것이 아니겠는가. 하간왕(河間王)은 크게 배를 만들어 수륙으로 병진하여 강릉(江陵)을 평정 하였고 조성왕(曹成王)은 보병과 수군을 2만인을 뽑아 희열(希烈)을 평정 하였어니 이는 당나라의 주사를 쓴 일이 아니겠는가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주사란 한 기술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니 이는 서북쪽에다 국도를 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長技)가 될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익히지 않은것은 아니었어니 강회(江淮)의 사졸들이 본시 수전을 익혔기 때문에 호익(虎翼)이란 군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요, 월일(越逸)의 천택(川澤)에서 익혀오기를 오래했기 때문에 결국 평하(平河)란 군을 세울수도 있었던 것이니 그 뽑기를 정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조공(曹公 : 曹操)은 순류(順流)를 하여 동으로 갈적에 선함이 꼭차고 수미(首眉)가 서로 연결을 하였지만 주공근(周公瑾)이 몽충(蒙衝 : 大戰般)으로 한번

12) 詭遇 : 물레 돌아가서 잡는것.

13) 斬艾 : 羊白늪은이를 베임.

진격을 하자 모든 배가 불타 없어져 버렸고 오인(吳人)은 진사(晋師)를 막을 적에 강물의 요소에다 철쇄(鐵鎖: 쇠사슬)로 가로 막아 놓았지만 왕준(王濬)이 햇불을 얹은 뗏목을 한번 쓰자 철쇄들이 모조리 공중에서 끊어져 버렸으니 이것은 용병할 때에 살피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저 주사(舟師)를 쓰는데 두가지 계책이 있으니 북병 해논테를 엄습했다가는 반드시 패하는 것이요. 견고한 군사를 막다가는 반드시 패하는 것이니 군사를 잘 쓰는 사람은 반드시 두가지를 깊이 헤아려 이해(利害)를 알아야 한다. 병서(兵書)에 하였기를 아무리 활을 잘 쏘아도 조정(調停)이 되지 않은 활은 쓰지를 못하고 조부<sup>14)</sup>(造父)도 말을 잘 몰지만 길드려지지 않은 말은 몰지를 못하고 공수<sup>15)</sup>(公輸)도 나무를 잘 깎지만 날카롭지 않은 자귀는 쓰지를 못하고 손오<sup>16)</sup>도 군사를 잘 거느리지만 훈련시키지 않은 군사는 데리고 싸울수가 없다고 하였다. 애석하도다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째서 문무(文武)를 같이 다루어 후일의 불의에 대비하지 않았던고? 이제 성명(聖明)하신 임금의 위에 있어 마음을 정하게 하시어 무(武)를 강론하고 좌석이 불안하여 현자(賢者)를 구하고 계시니 진실로 병가(兵家)의 설에 통달을 한 사람이 있다면 긴 휘파람을 불어 적을 물리친 일이나(張良事) 바둑을 두면서 적을 파한 일이나(謝安事) 부채를 휘저어 먼지를 맑힌 일이나(諸葛亮事) 붓을 던지고 봉후(封侯)가 된 일(班起事)이 우리 서생(書生)들이 할 일이 아니겠는가.

14) 造父: 周의 善御者

15) 公輸: 古代의 巧者

16) 孫吳: 孫武吳起



## ○ 농가설

## (農家說)

나라는 백성으로써 근본을 삼는 것이요. 백성은 먹는 것으로써 목숨을 삼는 것이요. 농사는 의식(衣食)의 근원이며 왕정(王政)의 급선무이다.

윗사람이 성심을 가지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어떻게 부지런히 근본(農)을 힘써 생활의 낙을 누릴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인정이 하루에 두번 먹지 아니하면 배가 고프는 것이요. 일년내내 옷을 지어입지 않으면 추운 것은 떳떳한 이치다. 만약 배가 고프는데 먹지를 못하고 살이 추운데 입지를 못한다면 비록 사랑하는 어미라도 그 자식을 보전하지 못한 것이 어느 임금의 어떻게 그 백성을 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명(聖明)한 제왕은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의 농사일을 권장하여 기한(飢寒)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니 그래야만 국태민안(國泰民安)이 되는 것이다. 주옥이나 금은도 보화는 보화이지만 배고플 때에 먹을 수 없는 것이요. 추울 때에 입을 수도 없는 것이니 오늘날 논할 바가 못된다. 오직 곡식이나 배(布)는 땅에서 나가시고 시일을 지내서 자라고 힘이 있는데로 모아지는 것이니 짧은 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봄에 바람 이슬을 피하지 아니하고 여름에 더위를 피하지 아니하고 가을에 음울한 날씨와 비를 피하지 아니하고 겨울에 춥고 얼물 피하지 아니하여 4시의 사이에 하루도 쉴 때가 없는 것이다. 그 농사도 짓는 방도에 지극한 이치가 있으니 인사(人事)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요 부지런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천시(天時)를 살피고 다음에 지의(地宜)를 살피며 절후의 조만을 맞추고 풍우의 치는 때를 증험해 가지고 사람은 그 힘을 다하고 땅은 그 이(利)를 다하면 가을철에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무릇 농사꾼이 3품이 있으니 게으른 자는 못한다. 첫째는 위로 천기(天機)를 살피고 아래로는

지의(地宜)를 살펴보아 적기에 논갈이를 하고 적당하게 김을 배주어 그 묘방을 다하면 백배나 수리(收利)를 하는 것이니 이것이 농(農)의 상이요. 이런 사람은 하늘도 재화(災禍)를 주지 못하고 사람도 곤핍하게 못하는 것이다. 둘째는 백묘(百畝)의 사이에 옥토와 박토가 섞여 있고 거기에 적합한 품종이며 적합한 시기가 있어 이것을 제대로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면서도 힘을 다하고 노력을 하여 인력을 다해서 십배의 수리(收利)를 한 것이니 이것이 농(農)의 중이다. 하늘이 비록 재화를 내려도 사람이 시기를 빼앗지만 앓는다면 자라 익고 사람이 비록 시기를 빼앗을 지라도 하늘이 재화만 내리지 않는다면 곡식이 익는 것이다. 셋째는 심기는 비록 제때에 했으나 김매는 방법이 틀려 비록 천시(天時)를 얻었으나 일베의 수리(收利)만을 하는 자니 이가 농(農)의 하(下)다. 만약 함부로 천시(天時)를 어기고 기회도 잃어 편안하게 쉬기만 하여 남이 수그러울 때에 나는 편안하고 풍년이 들어도 생업은 쪼들려 백에 하나도 이로움이 없다면 이는 게으른 농사꾼인 것이다. 이 말이 옳은 말이 아니겠는가 또 늙은 농사꾼에게 들어 보면 땅이 습기가 많고 거름진데는 조생벼를 심는 것이 좋고 땅이 건조한 기운이 많고 강한테는 만생종을 심는 것이 좋다고 하며 그 까닭은 땅이 습하고 거름진데는 지력(地力)이 왕성하여 생물(生物) 하기를 일찍하고 땅이 건조하고 강한테는 지력이 약하여 생물 하기를 더디 한다고 한다. 그러니 조습(燥濕)의 분별과 조만의 적의함을 살피지 못한다면 지력이 곡식의 성질과 완급(緩急)이 맞지 않아 묘(苗)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왜냐면 땅은 건데 늦게 심으면 곡식이 지력에 미치지 못하여 도리어 덜되는 것이요. 땅은 강한테 심기를 일찍하면 땅이 곡식의 성질을 따르지 못하여 제대로 모개미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필연의 이치다. 이것을 잘 안사람이 상농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농부인 것이다. 그 사이가 다만 호리를 다루는데 이(移)를 몇배로 다르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다. 효경(孝經)에 하였으되 「하늘의 도(道)」를

쓰고 땅의 이(利)를 인용하여 몸을 삼가고 쓰기를 절약히 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니 이것이 서민의 효도다」 하였으니 맛지도다 말씀이여! 저 게으른 자는 갈고 씨뿌리기를 이미 때를 놓치고 김매고 북돋우고 거름주기도 힘쓰지 않고 물대주기도 않으며 뽕나무나 삼 모시등의 일도 소홀히 하여 힘쓰지 않아 논밭은 더욱 척박해져 가기만 하고 수확은 더욱 적어져 위로는 국가에서 떳떳하게 부과하는 부세를 제대로 바치지 못하고 아래로는 조고(祖考)가 물려준 생업을 잃어 버리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형체는 비록 존재한다 한들 걸어다니는 시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모름지기 항상 먼 생각을 두고 다시 가까운 걱정거리도 생각하여 애를 쓰고 힘을 다하여 남이 한번 일할 때에 나는 백번이나 해야 한다. 4민(四民) 중에서 오직 농민이 가장 고생을 하는 것이니 추위를 무릅쓰고 갈고 더위에 김을 매며 몸에 땀을 흘리고 밭은 진흙에 넣으며 밤낮을 모르고 노고를 하는데 만약 논갈고 수확하는 적기를 모르고 풍상(風霜)의 절기나 곡물이 조습(燥濕)에 알맞는 성질이나 누예치기 뽕나무 가꾸기등의 방법을 모른다면 헛수고만 할 따름이니 수확이 어떻게 많을수 있겠는가 전(傳)에 하였으되 「백성의 일은 늦출 수가 없다」 하였으며 경(經)에 하였기를 「게으른 농사꾼은 스스로 편하기만 하여 명칭하니 노력 할 줄을 모른다」 하였으니 이는 모두 성인의 큰 가르침이 명백한 것이다. 모든 서민들은 절실히 지켜야 한다. 지금 봄기운이 한창 이어서 토맥이 열리기 시작하였으니 바야흐로 논밭을 갈아야 할 때이다. 종자를 물에 담그고 모를 심으며 깊이 갈고 얇게 심어 때를 서둘러 따춘 사람은 수확한 바도 자연 이르고 힘을 많이 쓴 사람은 소득도 많다. 행여 게으름을 피워 스스로 굶주림을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래서 차라리 지나치게 근로(勤勞) 할지언정 게으름의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저수지를 설치한 것은 농사의 근본이니 더욱 협력을 해서 만들고 고치고 하여 봄에 물을 저축하고 보도 미리 단속을 해놓으면 견고하여 부수지지 않을 것이다.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이제 8도의 큰 뚝 외에 각 고을에 작은 못을 헤아릴 수 없는데 농민들이 태만하여 오랫동안 내버려둠으로써 물이 저축되지 않고 한갓 사석(砂石)만 축적되어 있으니 그밑에 있는 논들이 가뭄의 재화를 당할 것은 뻔한 일이다. 강물에 막은 보는 본시 돌 무드러기 속에다가 농민들이 임시로 주먹만한 돌들로 가려서 막은 것이어서 윗사람의 시킴에 시늉을 내는 데에 불과하므로 조금만 소낙비가 쏟아지다 보면 영원히 형터리조차 남지를 않는다. 그래서 물은 고래처럼 달리고 있는 데도 논은 거북이 등마냥 벌여져 가물지 않는데도 가뭄이 들고 흉년이 아닌데도 흉년이 드니 수리의 시설을 한 효과가 과연 어디 있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농민이 게을러서 그런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권유하고 이끌고 한다면 못을 만들만한 곳에는 못을 만들고 보를 막을 만한 곳에는 보를 막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농사를 권하고 근본을 힘쓰게 하는 도리인 것이다. 우리 조정에 성군들이 잇달아 거의 2백년을 지나는 동안 모든 권농(勸農)의 정사와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 모조리 거행되어 이제에 와서 크게 갖추어졌으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삼가 살피건대 주례(周禮)에 여름 4월에 천자가 몸소 간다 하였고 또 전준<sup>1)</sup>(田峻)이란 관리와 권농(勸農)하는 관(官)이 있었다. 아조(我朝)의 제도는 이것을 보아 손익(損益)을 했기 때문에 동서(東西)의 적전<sup>2)</sup>(籍田)에 친경<sup>3)</sup>(親耕)의 예가 있고 군현(郡縣)의 마을에 권농관을 보내게 되어 있으니 권과<sup>4)</sup>(勸課)하기를 지극히 하고 있다. 또 곡양전<sup>5)</sup>(穀梁傳)에 하였기를 「백성이 일에 부지런하면 공축<sup>6)</sup>(功築)이 드물고 백성이 먹기에 부지런하면 백

- 
- 1) 田峻 : 농사 감독관
  - 2) 籍田 : 宗廟登位畝
  - 3) 親耕 : 왕이 몸소 감.
  - 4) 勸課 : 과정의 일을 권장함.
  - 5) 穀梁傳 : 春秋의 풀이
  - 6) 功築 : 修築해야 할 일.

사가 폐해진다」하였다. 아조(我朝)의 제도는 이것으로 경계를 삼았기 때문에 부세 걷어드림을 박하게 하고 창고를 채우며 화려한 누관(樓觀)을 지은 일이 없었다. 그러니 그 부세와 노역을 절도 있게 함이 지금 하였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산을 등지고 강물을 띄어 토지는 옥토요 사람이 많으니 당연히 나라에는 풍족한 저축이 있고 백성들은 기한(飢寒)에 시달림이 없어야 할 것임에도 한번만 수한(水旱)을 만나게 되면 금방 유망(떠돌아 다님)이 생기게 되니 농관(農官)이 권과(勸課)하는 방법을 다하지 않아서인가? 농민이 힘을 쓰지 않아서인가? 그 까닭을 대개 알 수가 있다. 옛일을 상고해 보면 공류(公劉)의 황간(皇澗)이나 태왕(太王)의 서호(西澗)를 원성(元聖)이 농사에 밝아 그 구혁<sup>7)</sup>(溝洫)의 법을 만들었으니 뒷 사람이 법칙이 된 것은 당연하다 위(魏)나라. 이회(李懷)의 하(河)를 이용함과 진(秦)나라 정국(鄭國)의 거(渠水道)나 한(漢)나라 문옹(文翁)의 구<sup>8)</sup>(溝)나 당(唐)나라 위단(韋丹)의 피(陂:뚝)는 비록 당시에 공은 있었으니 그 위인들은 족히 오늘날 칭하질 것이 없다. 그리고 정전(井田)의 법이나 수거(水車) 역거(役車)는 그것이 농사를 짓는데 크게 유리한 줄을 사람들이 모두 알지만 우리나라에는 혹은 땅이 좁아서 못하기도 하고 혹은 그 제도를 몰라서 못하기도 하여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로움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 아니 애석한 일인가? 옛적에 농사에 밝은 것은 실로 백성의 재산을 제정하여 풍년에는 몸껏 배부르고 흉년에는 사망에서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풍년든 해에도 몸껏 고생을 하고 흉년에는 사망에서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위에서 백성에게 취하는 것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잔약한 백성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폐업을 하는 것이니 곡식이 천해지지 못한것은 당연한 것이다. 빈인(閼人)의

7) 溝洫: 논고랑.

8) 溝: 물도랑

보리와 낙인(籬人)의 벼는 모두가 시인들이 읊은 것인데 이것이 별스럽게 깊은 뜻이 없는 것이라면 어찌 오늘날에 말 하잘 것이 있겠는가 원습<sup>9)</sup>(原隰)의 높낮음과 남북을 가지고 말한다면 벼의 성질은 들녘에 알맞고 골짜기에는 알맞지 않으며 서직<sup>10)</sup>(黍稷)의 성질은 건조한데 알맞고 습한데는 알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북방에서는 서직을 숭상하고 남방에서는 벼를 숭상하는 것이다. 농민이 비록 어리석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갈아야 할 때에 갈줄을 알고 심어야 할 때에 심을 줄을 알고 김매 때에 김매줄을 알며 수확해야 할 때에 수확 할줄을 아는데 혹은 흉년이 들어 굶주려 못하기도 하고 혹은 우고(憂故)가 있어 못하기도 하고 혹은 쟁기가 없어 못하고 혹은 가뭄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갈고 매고 씨뿌리고 거름주고 하는 등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요, 또 천시(天時)를 놓치기도 하는 것이다. 이미 지력(地力)을 다하지 못하고 또 많이 축적도 못하여 그 때문에 사방으로 흐터져가고 그 때문에 구렁에 굴러 죽기도 하는 것이니 이것을 말하자면 어찌 한심스럽지 않은가 대저 농사는 한달이나 하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잡농(蠶農)도 뽕을 가꾼 뒤에야 먹일 수 있고 먹인 뒤에야 고치를 만들고 고치가 만들어져야 실을 쉰 뒤야 실을 쉰 뒤에야 배를 짤 수가 있는 것이니 여러달을 걸린 뒤에야 명주배를 얻게 된 것이요, 논농사도 간 뒤에 심고 심은 뒤에 매고 맨 뒤에 수확하고 수확한 뒤에 방아를 찧으니 일년이 걸린 뒤에야 곡식을 얻게 된다. 그래서 달별로 폐단을 없게 하는 방법을 말 하자면 정월달 얼음이 조금 풀리고 토맥(土脈)이 열리기 시작 하거든 즉시 저수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흙을 쳐내 옛모습대로 복구를 시키고 또 뚝 위예다가 나무를 심어놓아 봄 물을 담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큰 보있는 곳으로 가서 그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을 동

9) 原隰: 高地의 低地.

10) 黍稷: 지장과 피.

원하여 먼저 황토를 붓자리에다가 깔고 다음 큰 돌로 여러겹을 막고 겹하여 띄짱으로 막은 다음 다시 황토로 보안에다 여러짐을 깔아 놓으면 물이 새어 나가지 않아 보가 견고하여 비록 큰 물이 진다고 해도 염려할 것이 없다. 작은 보나 작은 못도 때때로 보살펴서 막기도 하고 파기도 하면 물빛이 들판에 가득 할 것이요. 물대기가 전보다 백배나 나올 것이다. 이것 수공(水功)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겠는가 다만 물의 성질이 비록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지만 막히고 굽은 곳에서는 흔히 제대로 가지름을 아니하고 전답을 해치는 수가 많으니 강물가의 꼬부라진 곳을 두루 다녀보아 막히고 꼬부라진 곳은 모두 비록 수환(水患)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질 것이 없다. 하물며 이렇게 근년에는 가뭄이 안들면 홍수가 나고 홍수가 안나면 가뭄이 들리라! 이는 모두가 농무(農務)의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 달의 그뭉이 되어 쾌히 해동이 되거든 비로소 논갈이를 해야 하는데 그중에 쟁기가 없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집에 소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협력을 하여 소 한 마리로 두집의 농사를 짓기로 하여 먹이게 되면 두집이 겸전(兼全)하여 폐농(廢農)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2월에는 또다시 두번갈이를 하는데 습기가 있으면 도리어 해롭고 유익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거년의 곡식을 해치던 벌레가 그대로 고랑 사이에 서식하고 있다가 다시 금년에도 해를 끼치는 것이니 논을 갈 때에는 그 논뚝을 불질러야 한다. 또 논에 거름을 주는 일은 농사에 큰 대목이니 이도 힘을 다해야 한다. 뽕나무나 삼은 의복이 나오는 바이니 뽕나무나 삼 모시도 많이 심고 부녀자들이 애를 써서 누에를 길러서 삼배나 명주배를 만들어야 한다. 또 묘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좋은 땅을 가려서 갈고 또 갈아 거름을 두복히 깔아 한식때를 기다렸다가 종자를 담그고 45일 뒤에 낙종(落種)을 하면 된다! 3월에는 보리밭을 한번 매면 수확이 배나 더난다. 목화(木花)도 큰 농사다. 춘종(春種)이 있고 화종(花種)이 있는데 춘종은 3월 상순때에 심고 화종은 4월 입하(立夏)때에 심는다. 모두가 사석

(砂石)이 많고 건조한 곳이 알맞는데 각히 심을 때에 거름을 두복히 주고 사이에다 판젓을 섞어 심지 않으면 목화를 잡절이나 더 수확을 한다. 콩 팔 기장 피 채소 가지 등도 사람이 먹는 것이니 밭에 많이 심어야 한다. 양판(秧坂)은 한번 매주면 벼가 잘 자란다. 4월에서 각 마을에 다짐하여 일찍 서둘러서 모내기를 하게 하되 망종(芒種) 때로 시한을 잡으면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아 천시(天時)와 맞는 것이다. 마을 가운데 우고(憂故)가 있는 자는 온 마을이 힘을 합하여 농삿일을 도와 주면 이것도 후한 풍속이다. 전준<sup>11)</sup>(田駿)은 그 파종할 때에 오늘은 동쪽 들판으로 가고 내일은 서쪽 들판으로 가서 농사꾼들과 농사 이야기도 하고 함께 농주(農酒)도 마시면 이것이 즐거움을 함께 하는 길이다. 농사꾼들도 크게 기뻐하여 백배나 일을 부지런히 할 것이다. 5·6월은 김을 매는 철이니 역시 논두렁들을 찾아가서 부지런히 하고 게으름을 보아 그에 따른 상벌을 주되 늦게 와서 일하는 자는 별도로 징수(徵收)함이 있도록 한다. 7월이 되면 보리갈이의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름이 되는 물건을 합부로 해서는 안된다. 보리는 가을 보리와 봄 보리가 있는데 각기 때를 따라 거름을 많이 주면 울밋하게 자라게 된다. 서두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소맥(小麥)은 8월의 상무일(上戌日)이 으뜸이요 중무일이 중이 되고 하무일이 하가 되며 대맥(大麥)은 8월의 중무일이 상이요 하무일이 중이요 9월이 하가된다. 봄 보리는 다음해 2월 양기가 온화한 날에 심는데 만약 2월이 넘으면 말아야 한다. 심고 매고하는 법은 가을 보리와 꼭 같다. 9월은 벼를 베어 수확하는 때인데 하늘의 기후를 잘 살피고 지키기를 잘하여 도둑맛을 후환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수확이 끝나고 나면 삼동<sup>12)</sup> 동안 농부가 할 일은 전적으로 딸감 나무를 하는 일과 울타리를 막는 일과

11) 田駿: 농사감독관

12) 三冬: 孟冬, 仲冬, 季冬.



지붕을 덮는 일인데 지질히 고생을 한 끝에 게으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여 한가롭게 놀기만 하는데 이것을 도외시(度外視) 해버리는 것도 폐풍이다. 이 또한 각 부락에 다짐을 하여 설때 하루 이틀쯤으로 노는 날을 정해 주고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크게 벌을 줘야 한다. 농사를 부지런히 지어 근본을 힘쓰게 하는 방도는 이것 뿐이다. 지금 성명(聖明)하신 임금께서 위에 계셔 감영(監營)이나 각 고을에 단속을 하여 권과<sup>13)</sup>(勸課)를 힘쓰게 하시니 감사나 수령들이 구중 궁궐의 걱정을 나누어가져 성심을 가지고 인도하고 이끈다면 하늘의 보심이 바로 백성의 보는 바요 하늘의 들음이 바로 백성의 들은 바니 앞으로는 우순풍조(雨順風調)하고 시화년풍(時和年豐)하여 작은 논에서도 그릇에 가득찬 곡식이 나오고 낮고 넓은 논에서도 수레에 가득한 곡식이 날 것이며 번지르르하고 씨름씨름하여 년년세세(年年歲歲) 풍년이 들면 3년의 농사에 1년의 곡식이 남아 우리 동방의 나라가 예의의 나라만 될뿐 아니라 또 의식(衣食)의 고장이 되어 도(道)마다 주소(周召:周公召公)의 도가 되고 읍(邑)마다 공황(龔黃)의 읍이 될 것이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

13) 勸課: 일의 課程을 권장함.



## 잡저(雜著)

### ○ 이단을 배척함

#### (排異端)

우리 도(道)는 이단(異端)과는 사(邪)와 정(正)으로 양립(兩立)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도를 밝히고자 하면서 이단(異端)을 없애지 않는다면 사투한 말이 백성을 속여 인의(仁義)를 막아버리게 된다. 그러나 이단을 없애려고 하면서 그 근본을 먼저 없애지 않으면 동쪽을 잡자마자 서쪽이 터지고 위를 막자 마자 아래가 터지는 것이니 그래서 학자는 우리 도를 밝히려면 이단을 물리치는 것으로 급무를 삼는 것이다. 옛날 주(周)나라의 도읍이 동으로 옮겨지면서<sup>1)</sup> 왕강(王綱)이 풀려버려 황극<sup>2)</sup>(皇極)을 세우는 임금이 일어나지 못하여 우리 도맥(道脈)이 이미 미약해 졌는데 다행이도 공맹(孔孟)이 한번 나오자 간엄<sup>3)</sup>(簡嚴)한 1부의 춘추(春秋)로써 난적(亂賊)을 성토하고 명백한 7편의 인의(仁義)로 양묵<sup>4)</sup>(楊墨)을 막았다. 아! 공맹이 한번 작고하자 신한황로(申: 不害, 韓: 非, 黃: 黃帝說, 老: 老聃)의 말이 세상에 성행하여 비록 가의(賈誼) 같은 미재(美才)로도 오히려 형명(刑名)의 학을 배웠고 비록 박식인 사천(史遷)도 청쟁<sup>5)</sup>(淸爭)을 숭상하여 우리도가 한번 액운을 당했다. 그러다가 동자(董子)같은 사람이 나서 백가(百家)를 물리치고 6경을

1) 平王이 鎬京에서 洛陽으로 遷都함.

2) 皇極: 임금이 세우는 표준법도.

3) 簡嚴: 간략하면서도 엄함.

4) 楊墨: 楊朱黑籍

5) 淸爭: 老子敎

밝혔으니 그 공이 막대하다. 그러나 끝내 이단을 없애지 못한 것은 천인(天人)의 책(策)이 세번 올라가자 강도(江都)의 상(相)으로 갑자기 영이 내려졌기 때문이니 동자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는가 동한(東漢) 이래로 오랑캐 땅의 불씨(佛氏)의 교가 중국으로 흘러들어와 유학을 숭상하던 명제(明帝)가 꿈에 금인(金人)을 봤다 하여 받아드리고 영명(英明)했던 헌종(憲宗)마저 몸소 불골(佛骨)을 맞이하므로써 우리 도는 또 한번 액운을 당했다. 이때에 한자(韓子)같은 사람이 나서 이단을 배척하여 불로(佛老)를 내쳤으니 그 공이 얼마나 큰가 그러나 역시 이단을 없애지 못한 것은 이단을 없앨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불골표(佛骨表)가 한번 올라가자 조주(潮州)의 귀양길이 뒤틀렸기 때문이니 한자야 또 무슨 허물이겠는가 그러나 증음폐양<sup>6)</sup>(縱陰閉陽)의 말을 한것으로 보아 동자도 도에는 밝지 못한듯 하고 성(性)이 3품(三品)이 있다는 말<sup>7)</sup>을 한것으로 보아 한자도 도에는 밝지 못한듯 하다. 그래서 나는 송나라의 선정(先正)들에게 기대한 바가 있다. 아! 석로(釋老)의 교는 우리 도와 병행을 하면서 입고 먹고 하는 것이나 사는 집의 사치함이 참람하게도 공후(公侯)에 비길만하며 화복과 이해의 말로 중외(中外)를 경동(驚動)케 하고 있으니 매우 우리 도의 염려가 된다. 그러니 반드시 그 뿌리를 끊고 그 소혈(巢穴)을 헐어버려 수천년동안 내려온 묵은 폐단을 일조에 바람으로 몰아내야 한다. 그래야 인심도 바로 잡히고 치도(治道)도 성해져 우리도의 일월이 세상에 크게 밝아지고 이 단의 몹쓸 지꺼림이 없어질 것이다.

## ○ 분경(奔競)을 억누름

### (抑奔競)

6) 縱陰閉陽: 陰氣를 풀어놓고 陽氣를 가두어둠.

7) 上·中·下 三等說.

대저 분경은 참으로 비루한 것이다. 그러나 선비들도 하는 수 없는 일이다. 옛적에는 정전법(井田法)이 행해지고 학교의 정사도 거행되었으므로 사람들마다 안분(安分)을 하여 안정된 풍습이 있었는데 후세에는 정전법이 무너지고 학교의 정사가 폐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해진 향방이 없어 요행(僥倖)을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 것이니 그래서 소진(蘇秦)도 6국을 유세(遊說)하면서 밤낮으로 허둥대고 부곽<sup>1)</sup>(負郭)의 논이 없음을 한탄 했던 것이다. 그러길래 권(權)이 좌우(左右)에 있으면 그 문을 찾아가 기다리고 권이 귀행<sup>2)</sup>(貴幸)에게 있으며 그를 위해 말을 끌어주고 그의 문병을 가서 똥맛을 보아주며 회식(會食)을 하면서 그의 수염을 털어주며 작게는 한번이라도 얼굴을 접하기를 바라고 크게는 종신토록 감싸주기를 바라는 것이니 선비의 기풍이 이렇게 까지 비루해진 것을 만약 상(上)께서 격동시키고 바르게 가기를 권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옛날 당우(唐虞) 3대(三代)의 때에는 사람이 선비다운 행실이 있거나 선비가 절의(節義)를 완비한 사람이 있으면 세 번을 읍(揖)하여 나오게 하고 한번 사양하면 물러갔으니 예가 이렇듯 준엄했던 것이다. 사십에 벼슬을 할수 있고 오십에 작(爵)을 받을 수 있었으니 진취하기도 이렇듯 엄했던 것이며 논의가 정해진 뒤에 관직을 주고 일을 맡겨본 뒤에 작을 주었으니 맡기기도 그렇게 어렵게 했던 것이다. 그러니 들어앉아 있어도 매우 편안하여 엄체<sup>3)</sup>(嚴滯)의 근심이 없고 지조를 지키기를 매우 단당히 하여 조금한 마음이 없고 모두가 본분을 지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제상(齊相)의 문이 한번 열리자 분경(奔競)하는 기풍이 비로소 일기 시작했다.<sup>4)</sup> 그래서 아침에는 진(秦)나라의 관문을 두들기고 저녁에는 연(燕)나라의 성벽(城壁)을

1) 負郭: 성밑의 옥토

2) 貴幸: 貴戚大臣으로 王의 총애를 받는 者

3) 嚴滯: 진출을 못하여 처져있음.

4) 齊相 孟嘗君 田文의 食客이 三千人이었음.

찾아 다니면서 그것을 태연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상(漢相)의 문이 한번 열리면서부터 분경(奔競)하는 기풍이 더욱 성하였으니 그래서 공거<sup>5)</sup>(公車)에다 글을 올리고 왕문<sup>6)</sup>(王門)에 소매를 끌고 다니면서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았다. 이 십사우(二十四友)란 것도 진(晉)나라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요. 그들은 가밀(賈謐)에게 친교를 청탁했던 것이요. 8관(八關)·십육자(十六子)도 당나라의 미담이 아니요. 봉길(逢吉)의 뜻에 영합(迎合)하는 무리였던 것이다. 심지어는 자운(子雲)은 세상에 유명한 큰 선비로서 미신<sup>7)</sup>(美信)을 위하여 나아갔고 창려<sup>8)</sup>(昌黎)는 후학(後學)의 산두<sup>9)</sup>(山斗)인데도 세번이나 재상(宰相)에게 글을 올렸다. 그래서 분경을 하는 선비들이 가끔 이를 구실로 삼지만 그것은 자운(子雲)은 세상에 아부하여 벼슬을 취하였으니 명교(名教)의 죄인이요. 창려(昌黎)는 시국을 구하고 도를 행하는데 급하여 일시의 권도를 쓴것임을 모른 탓이니 어찌 한가지로만 말 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부귀를 탐내는 자들이 한빛이 되고 똑같이 오염이 되어있다. 과거에 요행을 거는 자들은 곡학<sup>10)</sup>(曲學)으로 세상에 아부를 하고 안정된 심덕을 지녀 물러나 있는 자는 비록 칭찬을 받지만 간혹 유주(遺珠)의 개탄이 없지를 않고 분경을 하는자는 비록 억제를 하지만 간혹 그물에서 새어 나가는 비평이 있기도 하다. 진실로 이것을 보고 격동하고 바른길을 가기를 권하고 함이 없다면 아마도 포피<sup>11)</sup>(布被)

5) 公車 : 人才登用の 官府.

6) 王門 : 諸侯王의 門

7) 美新 : 王奔의 僭國號.

8) 昌黎 : 韓愈

9) 山斗 : 泰山北斗

10) 曲學 : 꼬부라진 不正의 學

11) 布被 : 漢의 公孫弘이 丞相으로 있으면서 布被(삼베이불)를 덮자 高賀가 그를 간사한 사람이라고 했음.

의 무리와 탄이<sup>12)</sup>(吞餌)하는 것들이 이름을 낼것ियो. 종남첩경<sup>13)</sup>(終南捷徑)이나 이용하여 나아가기를 구할 것이다. 대저 선비가 구차하게 벼슬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구차하게 나아가지도 않은 사람은 기절(氣節)이 있기 때문ियो. 기(氣)가 충만하고 절의가 굳은 것은 예의(禮義)에 밝지 않고는 안된다. 이것은 윗분이 길러주고 진작시키기를 방도있게 해야한다. 그러면 예의가 날로 밝아지고 염치가 일어 천하의 사풍(士風)이 멀리 당우(唐虞)와 3대(三代)를 따를 수 있게 되리라 그러므로 모습이 단정하면 그림자가 곧고 근원이 맑으면 흐름이 맑다는 것이다.

## ○ 포저(苞苴)를 금해야 한다

### (禁苞苴)

좁을 잘 없애는 사람은 반드시 그 좁이 생기는 연유를 상고하는 것이요. 해(害)를 잘 제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처음 해를 끼친 바를 살피는 것이요. 폐단을 잘 고치는 자는 반드시 그 폐단과 관계있는 대목을 살피는 것이니 그것은 근원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옛날 위(魏)나라의 풍속이 음탕하거늘 그 근원이 벼슬자리에 있는 자들의 사치함에 근원이 있다 하여 모개(毛玠)를 얻어 인재를 뽑게 하였던바 고운 의복을 입는 습관이 저절로 아래에서 끊어졌고 당(唐)나라의 풍속이 쇠미해진 근원이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사치하는 데에 있다하여 양관(楊綰)을 얻어 정권을 잡게하니 지관(池館)이나 음탕한 음악이 자연히 세상에

12) 吞餌: 宓子賤이 單父를 다스리려갈 적에 늙은 陽父에게 治道를 묻자 대답하기를 「내가 잇감을 던지면 쉽게 모여들어 잇감을 삼키는 것은 小魚요 大魚는 깊이 숨어 있는듯 없는듯한다」 하였음.

13) 終南捷徑: 唐의 進士 盧藏用이 京師에 가까운 終南山에 隱居하여 王에게 徵名되므로 終南山이 벼슬하는 빠른길이라 하였음.

서 걸렸다. 이는 천하의 도리를 윗사람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내가 불렀기 때문에 저가 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휘어졌기에 칙령줄이 얽히는 것이요, 언덕베기는 그것이 꼬부라졌기 때문에 회오리바람이 이르는 것이니 만약 나무나 언덕베기가 그것들을 오게하지 않았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오겠는가.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야 포저<sup>1)</sup>(苞苴)의 폐단을 이야기 할 수가 있다. 이제 한두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다. 사초<sup>2)</sup>(史軺)를 타고온 사람이 한가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면 1도(一道)의 관리가 그 누가 기꺼히 받들어 주지 않겠으며 호부<sup>3)</sup>(虎符)를 쥔 사람이 한가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면 1군의 관리가 그 누가 서둘러 달려가지 않겠으며 銅章(구리쇠 도장 즉 守令)을 찬 사람이 한가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면 한고을의 관리가 누가 서둘러 받들지 않겠는가. 이것이 포저(苞苴)가 성행을 하고 갑작스럽게 고칠 수 없는 까닭이다. 삼가 3대의 글을 본다면 그 신하와 백집사(百執事)된 사람이 법을 받들고 직무만 수행했을 뿐 포저의 폐단이 있었다는 말은 듣지를 못했다. 이것은 옛적의 관리가 홀로 순진 해서만이 아니다. 이는 그 당시 묘당(廟堂)의 위에서 큰 띄를 드리우고 홀기를 바로하고 있는 사람이 오직 천공<sup>4)</sup>(天工)을 도울 줄만 알았지, 이(利)란 것을 몰랐고 괴극<sup>5)</sup>(槐棘)의 자리에서 직책을 나누어 맡아 관속들을 거느린 자도 천공(天工)을 맡아 할 줄만 알았지 이(利)란 것을 몰랐고 사도<sup>6)</sup>(司徒)가 된 사람도 나라의 가르침을 맡을 줄만 알았지 이(利)는 몰랐고 사마(司馬)가 된 사람

1) 苞苴: 뇌물 꾸러미

2) 史軺: 왕의 使命을 받고 내려온 사신의 수레.

3) 虎符: 兵馬使

4) 天王: 하늘이 할일 즉, 王事

5) 槐棘: 槐는 承文院 棘은 科場

6) 司徒: 教育을 맡은 最上官



도 방정(邦政)을 맡을 줄만 알았지. 이(利)는 몰랐던 것이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미 이러하니 천하의 사람이 비록 포저(苞苴)를 가지고 그의 욕구를 채워주고저 한들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포저가 3대 때에는 행해지지 않은 것은 실로 이때문 이었다. 그런데 한(漢)으로부터는 어찌 그리도 분분하는가? 요로에 있는 자는 권력을 팔아먹고 선거(選舉)를 맡은 자는 벼슬을 팔아먹고 형법(刑法)을 맡은 자는 송사를 팔아먹고 사기를 적는 자는 문사(文辭)를 팔아먹어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재물의 거래가 저자를 이루었는데 사대부들이 태연하게 행하고 급관이 되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 버렸다. 심지어 한안국(韓安國) 같은 사람마저 재리를 탐내어 회남(淮南)의 돈을 받았으니 구경(九卿)의 서열에 있는 사람이 이럴진대 그밖의 사람이야 어떻게 허물을 하리요. 전분(田蚡)은 저자에서 기물(器物)을 사니 기물을 가져가는 자가 길에 연달았다. 열후(列侯)도 이럴진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허물하리요. 그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자면 포저(苞苴)의 기풍은 붙어온 바가 있다. 지금의 풍속은 한당때에 비하여 더욱 내려가 염치가 모조리 없어지고 명절(名節)을 돌아보지 아니하여 사특하고 허만한 풍조만 이루어지고 아침하기만 서로 숭상하니 애당초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한 까닭은 더듬어 올라 가자면 누가 앞장을 서서 이끌어온 것인가? 아! 풍속이 무너지고 선비들의 버릇이 더러워진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오직 원컨데 윗자리에 있는 분들은 마음을 맑히고 욕심을 적게 가지며 몸을 바르게 하여 아랫사람을 거느려야 한다. 그러면 포저의 풍습은 없애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요. 청탁하는 풍기는 끊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끊길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그 근원을 밝히면 흐름은 자연 맑아지는 것이요. 근본을 단정히 하면 그림자는 자연 곧아지는 것이다. 옛날 윤옹귀(尹翁歸)가 부풍(扶風)을 다스릴적에 그 고을에 있는 자식을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于定國)이 있었으나 옹귀의 강직한 성격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못하였고 양속(羊續)은 여강(廬江)

을 다스릴 적에 고기를 주는 사람이 있자 그것을 뜰에 걸어두고 뒤에 또 바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내보임으로 바치는 자가 부끄러워 하여 그치게 되었으니 이것이 뒷세상 사람들의 법 받을 바가 아닌가.

## ○복제 문집 서문

### (復齊集序)

우리 동방에 큰 선비로서 문장으로 세상에 울린 사람이 어찌 한이 있는 가마는 그 중에서도 마음속에서 울어 나오는 대로 쏟아내기를 마치 성현(聖賢)의 도리를 밝히는 글과 같이한 글은 그리 흔하지 않다. 오직 우리 복제선생의 글만은 여기에 가깝다. 일찍이 들으니 주자(朱子)가 말씀하시기를 「이 실지가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이 글이 밖으로 나타난다」 하였다. 이로써 선생의 글을 살펴보고 이런 글이 나오게 되는 근원을 찾아 본다면 그것은 선생이 침잠하고 돈후하며 순수하고 정명(精明)하여 조그만 부경 하거나 박잡한 기(氣)가 끼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선생의 하늘에게서 얻은 바가 본디 이러한 데다가 또 학문의 힘까지 겹쳐져서 속으로 존양(存養)을 하여 그 허명(虛明)한 체(體)를 지키고 밖을 살펴 수용하는 용(用:言行)을 이룩하여 이미 순박하고 진실한 경지에 이르렀고 실수나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으므로 그 덕이 발하여 문자의 사이에 나타나는 바가 자연 조리가 분명하고 광채가 떠오르며 취미가 높고 원대하고 운치도 화평하여 세상에 부화한 것이나 내두르며 정악(正樂)을 혼용(混用)한 자들은 방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제(孝悌)의 마음이 속에 쌓여서 밖으로 나타났으니 임개지(林塏之)와 학자배(學者輩)에게 증(贈)한 것이나 교시한 글은 간절하고도 감동적이다. 그리고 초야에 있으면서도 임금을 충애(忠愛)하는 마음이 속에 싸여 근폭<sup>1)</sup>

1) 芹曝: 庶民이 맛있는 미나리나 따뜻한 햇볕을 임금께 드리고 싶어한 忠誠.

의 시구에 나타난 바가 성실하고도 광명하며 진실하고 정대한 공부가 속에 싸여 조존록(操存錄)이나 면양(勉仰)에게 답한 편지에 나타난 바가 확실하고 정중하여 한 말씀도 부정하거나 지나친 바가 없다. 그리고 간독(簡牘)의 말이나 잡저(雜著)의 말도 모두가 성정(性情)의 올바름을 얻어 정미(精微)한 뜻을 발휘하고 사리의 당연함을 극진히 하였으니 모두가 그 속에 들어 있는 침잠하고 순수한 덕과 합하니 참으로 덕이 있는 자의 말이요. 명체적용<sup>2)</sup>(明體適用)의 학문이 아니겠는가. 타고난 기질이 도(道)에 가까워 기상과 도량이 응용하고 성리<sup>3)</sup>(聲利)에는 생각을 끊고 뿌리를 내림이 산처럼 거대하여 큰 구슬을 안고 나의 영귀<sup>4)</sup>(靈龜)를 지켜 방촌(方寸)에 쌓아두고 눈섭에 나타나 듣는 봄날의 빛과 같고 찬란한 주옥과 같은 바탕을 지니신 분이 선생께서 자립(自立)을 한 근본이다. 능히 스스로 스승을 얻어가지고 우리의 학종(學宗)을 통일하시고 연빙<sup>5)</sup>(淵冰)으로 경계를 하고 한마<sup>6)</sup>(悍馬)를 억제하여 아는 것이 정확하고 지키는 바가 깊어 옥루<sup>7)</sup>(屋漏)를 강장<sup>8)</sup>(康莊)처럼 생각하고 문턱 안방을 조정처럼 생각하였으니 이는 선생이 실천한 전지(田地)였으며 깊은데를 임하여 높은 체함을 부끄럽게 여기시고<sup>9)</sup> 흰것을 밟고서 깨끗한 척함을 부끄럽게 여기시고<sup>10)</sup> 외물이 오면 순하게 응하고 일이 닥치면 다투지 않아 그칠데에 그치고 모든것을 달관(達觀)하여 민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았으니 이는 선생의 확충<sup>11)</sup>(擴充)된 덕행이다.

2) 明體適用: 체를 밝히고 用을 適中하게 함.

3) 聲利: 명예와 재리

4) 靈龜: 神通한 鑑識

5) 淵冰: 如臨深淵 如履薄冰

6) 悍馬: 사나운 말 즉 憤怒

7) 屋漏: 방의 은밀한 곳.

8) 康莊: 큰 네거리.

9) 학덕이 없는 사람을 보고 자신을 높게 생각함을 수치로 알았다.

10) 청백하면서 청백을 표방하려는 것을 수치로 알았다.

11) 擴充: 道義心の 확충

친(親)을 친히 하고 귀한이를 귀하게 대우하며 현인(賢人)을 좋아하고 못 사람을 용납하며 연치(年齒)를 생각하지 않고 덕이 있는척 아니하여 애를 쓰고 겸손하여 수익(受益)을 했으며 가득차 있으면서도 비어 있는듯 하였으니 이는 선생의 능사(能事)의 자취요. 엄연하게 단정히 거하고 숙연하게 일을 행하며 촌진척퇴<sup>12)</sup>(寸進尺退)하여 움직임이 법도에 맞고 총명<sup>13)</sup>(寵命)이 자꾸 내렸지만 굳이 구원(丘園)에서 수양을 하고 강연<sup>14)</sup>(講筵)에서 공수(拱手)를 하고 계심에 많은 선비들이 태산 북두마냥 우러렀으니 이는 선생이 행지<sup>15)</sup>(行止)를 때 맞추어 했음ियो. 입을 지키기를 병과 같이 하고 문을 두들기면(弟자의 質問) 종소리와 같이 울려(應答의 시원함) 좋은 말이 포백(布帛)보다도 따뜻하고 충모<sup>16)</sup>(忠謨)가 금석(金石)도 꿇음을 만하여 환듯하기가 보불<sup>17)</sup>의 무늬가 되고 찬연하게 강상(綱常)의 법칙이 되었으니 이는 선생이 문질(文質)을 겸비한 바요. 천도(天道)에 순응하고 운명을 알아 달게 빈곤을 받으며 선왕(先王)의 서(書)를 외우고 선왕의 풍(風)을 읊으시며 회금 점슬(回琴: 顧回的 거문고, 點瑟: 曾點의 비파 즉 賢 弟子를 말함.)과 뜻을 즐기기도 하여 사람이 있으면 즐기고 사람이 없어도 즐겼으니 이는 선생이 마음에 얻어진 바가 있어 정에 나타난 바가 아니겠는가? 팽로(彭老)는 약관전에 구의(謳衣)를 했는데 과분한 애호의 덕을 무릅썼으니 그 장려하고 이끌어주신 은혜와 키워주신 덕은 산악과도 같이 높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데 흰바탕이 없듯 나의 기질은 박했고 썩은 나무가 조각하기 어렵듯 나는 가르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비록 문하에 있

12) 寸進尺退: 나가는 어렵고 물러가기가 쉬움. 즉 벼슬길을 말함.

13) 寵命: 왕의 총애하는 명령

14) 講筵: 글을 가르치는 자리.

15) 行止: 出世와 隱退.

16) 忠謨: 마음껏 일러주는 교훈.

17) 보불: 官服의 무늬.

기는 오래했으나 선생을 배우지 못하였으니 이는 스스로 포기를 한것이나 마찬가지요. 호향<sup>18)</sup>(互鄉)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선생은 저술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문집이 많지를 않는데 외람되어 말씀하시고 깨우쳐주신 바를 듣고 본대로 주어 모으고 또 한말씀을 없어서 입언(立言)할 군자를 기다리노니 참람하고 분수에 넘는 짓을 한 죄를 어찌 피할수가 있겠는가. 아! 뒷날 이 문집을 읽는 사람은 이 글만을 읽지 말고 그 마음씨를 찾아본다면 효제(孝悌)의 마음이 몽클 일어날 것이요, 충신(忠信)의 행실도 저절로 나아가리라. 어찌 세도(世道)의 한 다행이 아니겠는가.

## ○ 후조당기

### (後凋堂記)

모든 물건이 꽃이 필 때가 있고 잎이 떨어질 때가 있으니 그것은 때가 같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왜냐면 봄에 꽃으로 아름다운 것은 여름의 더위에 이르러 비가 온 뒤에 떨어지고 여름에 풀로써 아름다운 것은 가을의 서늘함에 이르러 서리가 내린 뒤에 마르고 가을에는 국화가 아름다운데 겨울의 추위에 이르면 말라진다. 그러나 겨울의 소나무는 그렇지 아니하여 처음에는 나뭇꾼에게 시달림을 받아 도끼나 자귀에 찍히지만 나중에는 비 이슬이 적서주고 서리 눈이 적서주어 추운 겨울을 지낸 뒤에야 잎이 지는 것이니 이는 군자의 덕과도 비할 수가 있는 것이요. 비나 서리 눈을 맞고 말라 떨어지는 것들과는 같이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들이 흔히 사랑하는 것이니 진(晉)의 도잠(陶潛)이나 송(宋)의 범질(范質)같은 사람이 그런 분이다. 이제는 그

18) 互鄉: 論語에 互鄉難與言의 引用으로 相對할 수 없는 低質.

런 사람이 없으니 그 다음이라도 갈만한 분은 아마도 우리 하동정공(河東鄭公) 뿐일 것이다. 인묘(仁廟) 을사(乙巳)의 화(禍)에 죽음을 당하거나 귀양을 간 사람이 얼마인줄 모르는데 그때에 가(可)함을 보고 나아 갔다가 기미를 알아 차리고 물러난 분은 오직 공 한사람 뿐이다.

공은 편한 마음으로 물러나 상촌(霜村)의 동남쪽 용지(龍池)의 위에 다가 집을 짓고 정원을 닦은 뒤에 해송(海松) 한나무만을 심어놓고 집 이름을 후조(後澗)라고 하였으니 공은 즐거움을 마음에 얻고 물건에다 그 뜻을 붙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다. 그러나 공을 아는 사람은 공을 어질다고 하지만 공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마침 나의 가친(家親)께서 충주판관(忠州判官)이 되신 뒤에 벼슬에 뜻을 끊고 서울에서 합강촌(合江村)으로 와서 머무셨는데 공이 살고 있는 곳과 멀지 않아 더불어 시주(詩酒)의 사귀를 맺고 도(道)도 논하면서 한가롭게 지내셨는데 간혹 날을 넘긴 뒤에 나뉘어지기도 하고 혹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주무시기도 하셨다. 그 권계(勸戒)하는 글은 문원<sup>1)</sup>의 우의(羽儀)가 될만하고 그 저술(著述)한 글은 사림(士林)들의 모범이 될만 하다. 설산(雪山)의 문풍(文風)이 울연(蔚然)하게 일어나게 되었으니<sup>2)</sup> 그때의 합강창수록(合江唱酬錄)이 지금도 세상에 행해지고 있는데 바로 가친께서 공과 제현(諸賢)들로 더불어 적한 것이요, 본 고을의 정후표(鄭侯彪)가 찬(贊)을 지은 것이다. 나도 또한 모실 수가 있어서 답문(答問)이란 것이 있는데 공께서 가상하게 여기시고 그 책에 넣도록 허락 하셨고 또 나를 불으기를 소우(少友)라고 하고 시 일절(一絶)을 지으셨으니 「나는 인수<sup>3)</sup>(仁叟)요 자네는 원지<sup>4)</sup>(元之)이니 한가지로 방명(芳名)을 후세에 알

1) 文苑: 문장의 집합책자.

2) 雲山은 獨山名 杜甫詩에 諸葛獨人愛 文翁儒化成 公來雪山重 公去雪山經이란 作이 있으니 僻地에 文風이 일어난 것.

3) 仁叟: 宋畢·士安의 字.

4) 元之: 宋 王禹偁의 字.

려지게 하세. 말은 작란같지만 마음은 진실이니 좋은 풍축에 시를 한번 써본다」하셨다. 시란 것은 뜻을 말하는 것이요. 그 뜻은 내 마음에 새겨두고 끝까지 잊을 수 없다. 아! 무자(戊子)년에 내가 장원으로 대비(大比)에 급제하여 홍문관 부정자(弘文館副正字)에 올랐다가 아버지가 늙으심을 이유로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 왔는데 전후해서 관에 있는지 4년 이었다. 하루는 공이 조용히 사시던 곳을 찾아가 보니 단(壇)에 은행나무는 예와 같이 그대로 있고 堂의 앞에 큰 은행나무가 있어 일산과 같은데 詩人들이 흔히 여기에 모였고 小否壇(孔子의 否壇을 大否壇으로 意識한 것임)이라 했다. 해송나무는 아직도 새로웠다. 이때에 한 사람이 문에서 나와 나를 맞아드려 대우하는 예의가 아주 극진했는데 반듯이 앉아서 물어본 즉 바로 공의 손자 익주(翼周)였다. 그는 어렸을 때에 공을 따라서 왕래하며 가친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던 사람이다. 이에 그 손을 잡고 말하기를 「공이 손자를 이렇게 두셨으니 우리 도(道)가 더욱 고단하지 않다」 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소나무를 만지면서 어르신이 심은 것을 사랑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이 마치 송백(松栢)이 씨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비로소 현(賢)한 자라야만이 이런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sup>5)</sup> 옛 사람이 말하기를 「대나무가 현인과 같다」 하였는데 나는 「소나무가 현인과 같다」고 말해도 좋다고 한다. 물건으로는 후조송<sup>6)</sup>(後凋松)을 보겠고 사람으로는 후조당(後凋堂)이 있으니 이는 사람과 물건이 서로 만나서 더욱 문채가 나고 그 이름이 더욱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공의 이름은 천하에 앞서 향기로울 것이요. 천하에 뒤서 떨어질 것이다. 내가 전하는 것은 기(記)니 그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 군자의 참고가 되게 하는 바이다.

5) 孟子 惟賢者而後樂此 不賢者雖此不樂也의 引用.

6) 後凋松: 뒤에 잎이 지는 솔.





월파집 3권  
(月坡集 卷三)

일기(日記)



## 일기(日記)

만력(萬曆) 이십년 임진(壬辰)은 바로 선조대왕(宣祖大王) 이십오년이다. 4월 초2일 신묘 상(上)께서 전교(傳敎)가 계셨는데 하엿기를 「10일의 읍에서도 한 선비를 찾을 수가 있고 충신은 효자의 문에서 찾는다고 한다. 내가 알기를 柳彭老는 청백한 기절(氣節)이 있어 국가를 위하여 장원(長遠)한 염려를 하는 사람이니 즉시 弘文博士로 부르노니 명을 받들라」 하셨으므로 이날로 발행을 했다.

기묘(己卯)년에 사마양시(司馬兩試)에 합격을 했고 무자(戊子)년에 급제를 했으며 다음해인 기축(己丑)에 예(例)에 따라 홍문부정자(弘文副正字)를 제수하였다. 이때에 서애유상공(西崖柳相公)이 대제학(大提學)으로 있으면서 한유천준겸(韓柳川濬謙)과 정우복경세(鄭愚伏經世)와 공동 3인을 호당(湖堂)에 천거하여 선입(選入)시켰던 것이다. 이윽고 휴가를 주실 때에 부친의 병환소식을 듣고 즉시 상소를 하여 봉양하기를 청하여 고향에 돌아오니 사람마다 탄식하며 애석해 했다.

다음해 경인(庚寅)에 상(喪)을 당했는데 장례를 모시고 나서 묘소의 곁에 막집을 짓고 조석으로 묘소에 참배를 하여 비록 심한 추위와 더위 비가 내릴 적이라도 상복을 입고 있어 3년을 하루같이 지냈다. 이해 3월에 상복을 벗자 도신(道臣)이 공의 효행을 조정에 아뢰므로써 이명이 내렸다.

초3일 임진

초4일 계사

초5일 갑오

초6일 을미 이날에 입궐(入闕)을 하여 사은을 하고 관(館)으로 물러난 뒤에 즉시 소문을 지어 올렸는데 천재 시변(天災時變)을 먼저 말하고

재정(財政)을 다스릴 것을 말하여 끝을 맺었는데 말이 심히 간절하여 우비<sup>1)</sup>(優批)를 받기는 했지만 일은 행해지지 않았다. 공은 남쪽의 난리가 일어날 것을 알고 미리 병비(兵備)를 갖추어둬야 한다고 했으나 여러 소인배에게 거슬려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로 쫓겨나게 되었다. 무자(戊子)년에 왜사 굴강광(倭使橋康廣)이 관백 평수길(關伯平秀吉)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바치며 통호<sup>2)</sup>(通好)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조정이 허락하지 않아 강광이 그대로 돌아가 보고를 하니 수길이 화를 내어 강광을 죽이고 멸족을 했으며 기축(己丑)년에 또 평의지(平義智)를 보내와 공작(孔雀)을 바치고 기어이 우리나라의 사신을 보내줄것을 요청하므로 경인(庚寅)년에 드디어 황윤길(黃允吉)과 김성일(金誠一)을 사신으로 정하여 의지와 함께 가게 하였다. 신묘(辛卯)년에는 평조신(平調信)과 현소(玄蘇)가 윤길등과 함께 왔는데 일행들이 모두 적군이 반드시 크게 침입 할것이라고 했지만 부사(副使)인 김성일만은 홀로 연대(筵對)하기를 왜정(倭情)은 근심할것이 없다고 하므로 조정이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려 군비를 모조리 혁파해 버렸으니 공의 말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함은 이를 말한 것이다.

초7일 병신 오음 월정(梧陰月汀) 두 윤상공(尹相公)을 그 본가로 찾아가 뵈었다. 또 이월사정귀(李月沙廷龜)와 김선원 상용(金仙源尙容)과 청음 상헌(淸陰尙憲)과 이묵제 귀(李默齊貴)와 신상촌 흠(申象村欽) 등 제현을 찾아가 시국일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날 밤에 김두암(金斗巖)의 집에서 잤다.

두암의 이름은 응남(應南)이니 바로 공의 처종남(妻從男)이다. 이때에 참판이 되었는데 난리가 나자 홍여순(洪汝諄)을 대신하여 병조판서가 되었고 난리가 평정된 뒤에는 호성공신<sup>3)</sup>(扈聖功臣)으로 책록

1) 優批: 융숭한 비답

2) 通好: 호의를 맺고 서로 相通함

3) 扈聖功臣: 왕을 호위한 功臣

(策錄)되고 좌의정으로 올랐다.

초8일 유정 또 상소를 하였는데 처음은 납간(納諫)을 하시라고 하고 득인(得人)을 해야 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는데 그속에는 무궁한 뜻이 함축 되었고 모두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며 백성을 편히하고 군사를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관으로 나아가자 월사(月沙)가 와서 하는 말이 「장성(長城)의 박주부 상의(博士簿尙義)가 일찍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청의적(靑衣賊)이 반드시 동문(東門)으로 들어올 것이다』 하더니 이말이 사실이라면 그대의 말과 같이 시사(時事)를 알만하다」 하였다.

초9일 무술 월사가 또 공을 찾아와 앉아서 이야기하기를 해가 저물어 가도록 하였다. 이때에 공이 상소를 적고 있다가 월사를 보고 치유했는데 월사가 보자고 하였으니 「남쪽과 북쪽이 실로 우리 나라의 근심거리입니다」란 대목까지 읽다가 손벽을 치며 감탄을 하며 「남쪽 근심은 목전의 일이라고 할수 있으니 나도 짐작한 바이지만 북쪽의 근심이란 모르겠네 자네가 과연 안다면 말을 해보게!」 하였다. 공은 웃으면서 「40년 뒤의 일은 말할게 뭐있습니까」 하였다.

초10일 기해 또 상소를 하니 세번째 소를 올린 것인데 상계서 불운(不允)하였다. 이때에 공을 미워하는 자가 있어 논죄(論罪)하기를 청하기까지 했으나 우계(牛溪) 월정(月汀) 송강(松江) 팔곡(八谷)<sup>4)</sup>제선쟁이 극력 구해줘서 그냥 성균관에 학유(學諭)로 머무르게 되었다. 날이 저물자 이양오지완(李養吾志完)과 정오지정(靜吾志定)의 형제가 찾아왔는데 정오가 시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북풍우설(北風雨雪)로 국가의 위란(危亂)이 장차 있을 것에 비유한 말을 보고 공이 탄식을 하며 「바로 지금같은 때를 말한 것이다」 하였다. 양오가 곁에서 묻기를 「그렇다면 선생의 상소에서 말한 남우(南憂)가 급하다는 것은 과연 어느때가 되

4) 八谷: 八은 大의 誤인듯?

겠습니까?」하자 공은 「짐작컨데 왜놈들이 바다를 건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기필을 하겠는가」 하니 곁에 있었던 몇사람이 모두 웃음을 머금었다.

**초11일 경자** 서경 유승지 근(西峒柳承旨根)과 해고 이한림 광정(海臺李韓林光庭) 두분이 밤에 찾아왔다. 이때에 공이 홀로 있다가 문밖에 나가 마중을 하며 절을 하고 감사해 하며 「어르신들에게 문의를 하지않고 일을 저질러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문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두분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어찌 여러사람과 타협을 하는가 우리는 자네를 지금의 장유<sup>5)</sup>(長孺)라고 하네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따를자가 없네」 하였다.

**초12일 신축** 연일 몸이 편치 않더니 이때에 와서 극도에 달했다. 그래서 관에서 사은동(四隱洞)의 앞에 있는 독서당(讀書堂)으로 옮겼다.

동(洞)은 한성부(漢城府)의 밖에 있으니 공의 증조부 서은공(西隱公)이 백형인 동은공(東隱公) 중형인 남은공(南隱公)과 막내 아우인 북은공(北隱公)으로 더불어 우애하기로 세상에 알려졌고 한 당을 지어 형제가 함께 지내며 4은당(四隱堂)이라고 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 당이름을 인하여 동의 이름을 정한 것이다 공도 일찌기 이 당에서 글을 읽었다.

**초13일 임인** 김판윤 복경(金判尹復敬)이 의원을 맞이하여 병을 보게 하자고 했으나 공이 허락지 않았다.

**초14일 계묘**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조정에 같이 있던 제현들이 문병을 하는 분이 많았다. 혹은 편지로 묻고 혹은 몸소 왔다. 심일송 희수(沈一松喜壽) 민태천 인백(閔苔泉仁伯) 이오리 원익(李梧里元翼) 이북애 증(李北崖增) 김성암 효원(金省菴孝元) 허하곡 봉(許荷谷峰) 한남강 준(韓南岡準) 이상은 모두 공보다 20세이상인 분임. 이오봉 호민(李五峰好閔) 오만취억령(吳晩翠億齡) 최월담 황(崔月潭滉) 정수죽

5) 長孺: 漢 汲黯의 字니 直言은 잘했다.

창연(鄭水竹昌衍) 최백당 기(崔柏堂祈) 이상은 모두 공보다 10년이상인 분임. 한류천 준겸(韓柳川浚謙) 이백사 항복(李白沙恒福) 이한음 덕형(李韓陰德馨) 이계은 정립(李溪隱廷立) 김휴암 상준(金休菴尙儻) 김선원 상용(金仙源尙容) 정우복 경세(鄭愚伏經世) 윤치천 방(尹稚川昉) 윤백사 흰(尹白沙暄) 윤도계 혼(尹陶溪暉) 이상은 공과 10년 사이가 된 분임. 이춘주 상홍(李春洲尙弘) 이석루 경전(李石樓慶全) 신상촌 흠(申象村欽) 박오창 동량(朴梧窓東亮) 오추탄 윤겸(吳湫灘允謙) 조정곡 존성(趙鼎谷存性) 홍학곡 서봉(洪鶴谷瑞鳳) 이죽창 시직(李竹窓時稷) 이동악 안눌(李東岳安訥) 구군산 굉(具群山宏) 이상은 공보다 10년 아래의 사이이다.

이때에 공을 미워하는 자들은 저희들끼리 말하기를 「유팽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저리도 범석을 떨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가는고?」 하였다.

**초15일** 갑진 어의 허준(御醫許浚)이 마침와서 왔다.

오음(梧陰)이 당시 좌상(左相)이 되었는데 준이 마침 그집에 왔다가 편지를 가지고 왔다. 그는 말하기를 「그 병이 증세를 잡기가 어려워 약으로 다스릴수 있는 병이 아니요 다만 마음을 맑히는 수 밖에 없으니 반드시 속이 통쾌한 일이 있으면 나겠오」 하고 떠나갔다. 그 뒤로는 약을 쓰지 않고 차만 마셨는데 그날밤의 꿈에 왜병 수만명이 산야에 가득 하거늘 공이 몸을 떨치고 나가 싸워 한칼로 싹 쓸어버렸더니 꿈을 깨고나서 심신이 상쾌하고 몸에 병도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앓아 출사표(出師表)를 읽으면서 탄식하기를 「무후(武侯)같은 분이 나온다면 이 적을 어찌 근심하리요」 하면서 촛불은 밝힌채 날을 세웠다.

**초16일** 을사 김사정 치(金士精緻)가 새벽에 찾아왔다. 공이 말하기를 「어제 와서 봤는데 어찌 또 이렇게 일찍 왔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달포전에 진주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답장을 받아보니 미리 피란할 계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거 큰 일이 났는데 선생은

어찌 하시렵니까? 하였다. 공은 말하기를 「이 일이 어제밤 나의 꿈과 꼭 맞으니 헛소문이 아니고 참말일 것이다. 왜놈들이 일을 꾸민지 오래이다가 이제 나왔으니 나도 의병을 일으킬 작정을 한지가 오래다. 즉시 고향으로 돌아 가야겠다」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니 난리를 어찌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네는 일찍 출세를 할것이니 다른날 조정에 서게 되면 옛사람의 『죽한 줄을 알면 욕됨이 없다』란 말을 부디 명심을 하게나 다른 할말은 없네」 하였다. 사정은 무릎을 꿇고 「삼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하며 서로 울고 이별을 했다. 사정(士精)은 일찌기 공에게 수업을 했는데 그의 부친 시민(時敏)이 당시 진주판관(晉州判官)이었다. 사정은 뒤에 지족(知足)으로 그 당호를 했고 일찍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감사에 이르렀다.

초17일 병오 고조부 안양공(安襄公)의 묘소를 찾아가 참배하고 묘소가 양주의 차수령(車輪嶺) 장여리(樟餘里)에 있으며 자좌(子坐)다. 또 5세조 영상공(領相公)과 증조고 서은공(西愨公)의 묘소에 성묘를 갔다 묘소가 모두 용인(龍仁)의 구수동(九壽洞)에 있음 이날밤에 묘직(墓直)의 집에서 잤는데 잠시 병서를 읽다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고금에 국가의 치일(治日)은 언제나 적고 난일(亂日)은 언제나 많으니 이것도 운수다 어찌할 수 있겠는가」 하고 있는데 묘직이 김충남(金忠男)이 바로 자리앞으로 들어와 꿇고 앉으며 「지난 14, 15일밤마다 비상한 기운이 뜨는데 구름도 아니요 무지개도 아닌것이 동남간에 뻗혀 있으니 이것이 상서로운 기운일까요? 요괴로운 기운일까요? 그것이 무슨 징조인줄은 알수 없지만 지금같은 세상에 결코 상서로움이 있을 리가 없으니 혹시 요괴로운 기운이 아닐까요?」 하였다. 공은 「네가 능히 그것이 좋지 않은 징조임을 아는것을 보니 역시 범인은 아니다. 만약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나를 따를수 있겠느냐?」 하자 대답하기를 「죽는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공은 말하기를 「그 기운은 병상(兵象)이니 그날 동래를 함락했음이 틀림없다. 너는 내일로 가권들을 거느리고



곧바로 옥과(玉果)로 가서 내가 돌아가기를 기다려라 나는 다시 서울로 가서 적의 동정을 탐지해 가지고 곧바로 고향으로 가겠다」 하였다.

초18일정미 새벽에 말을 먹이고 충남을 명하여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고 즉시 서울로 들어가보니 어제 경상도 순찰사가 올린 장계(狀啓)의 내용이 『이달 13일에 왜군이 국경을 범하여 14일에 부산을 함락하고 15일에 동래를 함락했는데 적병 50만명이 3도로 입구(入寇)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왜병의 대장이 150인 전마(戰馬)가 5만필이며 해서도(海西島)의 9국으로 선봉을 삼고 남해도(南海島)의 6국과 산양도(山陽道)의 8국으로 뒤를 응하게 하는데 군령이 엄숙하고 바다를 건너 우리 부산을 엄습하여 첨사정발(僉使丁撥)과 다대첨사 윤흥신(多大僉使尹興信)이 모두 역전을 하다가 죽고 수사 박홍(水使朴弘)과 병사 이각(兵使李珩)은 도망을 치고 동래부사 송상현(東萊府使宋象賢)은 적과 싸우다가 죽었는데 호는 천곡(泉谷)이요 고부인(古阜人) 이었다.

이날 전라도의 순찰사의 장계도 이르렀는데 역시 들은바 대로였다. 그러자 서울의 인심이 흥흥하여 조정에는 당시 직을 맡고 있는 대소신(大小臣)의 외에는 모두가 북으로 달아나지 않으면 남으로 달아나고 비록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충의의 마음이 없어 모두 관인을 던지고 일어섰으니 하물며 서민이야 말할것이 있겠는가.

초19일무신 또 들려오기를 적병이 3도로 길을 나누어 수륙으로 병진(并進)을 하며 백만이라고 외치며 연달아 고을들을 함락하고 있다고 했다.

동래로부터 온 자가 있었는데 서울에 사는 김판서의 집 종으로 성이 함락되는 날 겨우 몸을 빠져나와 밤낮으로 올라왔다고 하며 들은 바가 그렇다고 했다.

이 날 4은당에 머물렀는데 서울에 있는 제족(諸族)들이 모두 이곳으로 와서 모였으나 그것은 공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참판 희림(參判

希霖) 참판 희서(參判希緒) 목사 경례(牧使敬禮) 판윤 희분(判尹希奮) 우윤 사원(右尹思瑗) 병사 계운(兵使繼胤) 부사 덕남(府使德男) 첨정 성남(僉正成男) 참의 함(參議函) 승지 인길(承旨寅吉) 봉사 유관(奉事惟寬) 이밖에 진사(進士)와 선비들이 차례대로 열좌(列坐)를 했는데 공이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오늘의 화수회(花樹會)는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원컨대 난이 평정된 뒤에도 이랬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하고 목사공(牧使公)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자식이 없이 난을 당했는데 죽을 것만 같고 살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의 뒤를 세워줄 분은 오직 목사형님 뿐입니다. 형님의 세 아들 중에서 그 하나를 내가 사랑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참판공이 「마땅히 약속대로 하라」 하였다.

이때에 참판공 희림이 문장(門長)이 되어 문약(文約)을 맡았으므로 그랬던 것이다. 그리고 종일토록 즐기다가 헤어질 때에는 서로 눈물을 닦으면서 탄식하기를 「오늘의 일을 난리 때문에 모였고 난리 때문에 헤어지니 이보다도 즐거움 끝에 슬픈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였다. 상께서 처음 왜란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환관(宦官)에게 물기를 「전일 상소를 올린 신하 유팽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가 선견(先見)의 밝음이 있었으니 반드시 구제할 계책도 있지 않겠느냐?」 하시었다. 그러자 김기문(金起文)이란 자가 대답하기를 「유팽로는 하나의 문사일 뿐이요 또 나이도 젊어서 일에 경험이 없으니 믿고 쓸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께서 묵묵할 따름이었다.

기문(起文)이 상의 믿고 사랑함을 받아 그가 하는 말은 들어주심으로 본시 완악하고 무례하였다. 공이 은혜를 무릎쓰고 입궐을 했을 때에 기문이 전상(殿上)을 왕래하면서 자못 불경한 태도가 있으므로 공이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기를 「일개 환자가 저렇듯 고약하고 버릇이 없으니 한나라때의 석현(石顯)이나 장양(張讓)보다도 더하지 않느냐?」 하였다. 그래서 환자의 무리가 모두 공을 깊이 꺼려했는데 조정 신하들중에는 환관에게 아부하는 자가 있었다.

그때의 일은 좌우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유승지 근(柳承旨根)이 듣고 알아 승정원(承政院)으로 물러나와 이야기 하면서 「상께서는 유팽로의 일을 어찌서 환관들에게만 묻고 조정의 신하들에게는 묻지를 않으셨는지 알수가 없어 유팽로를 등용하지 않은 것은 오직 상께서 재차 물으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만약 재차 물으셨다면 내가 말씀을 드렸을 터인데…」 하였다. 공이 그 사실을 듣고 탄식을 하면서 「서경(西峒)의 말은 나한테 사사로운 정이 있어서 그런것이다. 내가 곧은 말을 하여 환관들에게 미움을 샀고 그로 인하여 임금께 소의를 당한것이니 이는 하늘이 나로 하여금 적을 평정케 하지 않으려는 것이니 저 환자(宦者)가 어떻게 나를 등용하지 못하게 할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리고 거듭 탄식하기를 「이광(李廣)이 공을 못세운 것은 운수가 기박해서란 말이 실로 이유가 있다」 하였다.

어떤 사람이 승정원에서 와가지고 서경의 말을 공에게 말하자 공은 스스로 애석해 하고 스스로 탄식을 했다. 이에 앞서 상께서 백관들에게 영을 내려 사대부나 아전들을 막론하고 각기 말들을 내어 군사를 돕도록 하셨으므로 미리서 서울을 떠나 명나라에게 원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도승지 이항복의 말을 따랐다. 공의 말도 이미 바쳐버렸고 종들도 나중애 잃어버렸다. 해질무렵에야 행장을 꾸려가지고 남문의 밖에 나와서 잤는데 이날밤에 안양공(安養公)이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오늘 공주고를 사람이 말을 가지고 남쪽으로 피란을 가는 자가 있으니 그에게 의(義)로써 타이르면 그 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오늘을 넘으면 어려울 것이니 어서 서둘러라」 하였다. 공이 놀라 깨어 일어나보니 동방의 먼동이 트지 않았는데 닭이 이미 울었다. 즉시 행장을 꾸려가지고 나갔다.

초20일기유 가다가 공주(公州)에 다다르니 과연 어떤 사람이 말을 가지고 오다 가공을 보고 반갑게 손을 잡으며 인사를 했다. 공은 공경히 답례를 하고 말하기를 「바야흐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오니 그 타고오신

말을 주시면 어떻겠요?」 하자 그 사람이 의(義)롭게 생각하여 허락을 하고 또 하나의 철장(鐵杖)을 주었는데 받아서 보니 지팡이가 아니고 칼이었다. 양쪽에 칼날이 있어 세워놓으면 지팡이가 되고 휘두르면 칼이 되는 신물(神物)이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집에 한 암말이 있어 이 5족구(五足駒)를 낳았는데 이것이 탈만하게 되어 타보았더니 겨우 5리만 가면 성질이 포악하여 다루기가 어려우므로 여러해를 버려두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길게 울면서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듯 하여 이끌고 왔는데 그대가 아마도 주인인가 봅니다」 하고 곧 작별을 하고 가버렸다.

그 사람의 성은 양씨(楊氏)인데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 계룡산중에서 산다고 하였으므로 그냥 양산인이라고 하는데 산인이 절구 한수의 시를 지어 공을 줌으로 공도 산인의 시에 화답 공은 그 칼로 말 다리 하나를 잘라버리고 칼은 깊고 올라타나 채찍을 치지 않아도 능히 멀리달려 곧바로 순창(淳昌)에 당도했는데 날이 아직 일찍했다. 대동산(大同山)의 앞들에 이름없는 군사들이 전후로 벌려서 있어서 알아보니 이는 여러 고을의 부랑배들이 적병의 기세가 승승장구함을 보고 이곳에 모여서 이 성을 함락하여 적에게 붙으려는 것이었다. 공은 단기로 그 진전에 나아가 타일르기를 「그대들은 모두가 예의의 나라에 백성으로써 마침내 되놈이되어 버린다면 천추의 뒤에 공론이 없어지지 않을터인데 두렵지도 않은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꼭 망하는 것도 아닌것이 좋지 않은가?」 하자 그 무리들이 일제히 옆드리며 하는 말이 「우리들이 구차하게 살다보니 공연한 망념된 계책을 세웠습니다. 이제 장군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감복을 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하늘이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하여 장군을 기다리게 한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공은 말에서 내려 자리에 앉아서 여러사람에게 일르기를 「이제 의로써 거사를 하는것이니 만약 명령을 좇지않은 자가 있으면 내가 삼척점으로써 다스리리라」 하니 모두가 「예!」 하였다. 드디어 점고를 하게 되었는데 말탄

군사가 2백이요 보졸이 3백여명이었다. 곧 커다란 청기(靑旗)를 세우고 쓰기를 전라도의병진동장군유팽로(全羅道義兵鎭東將軍柳彭老)라고 썼다. 진동(鎭東)이란 것은 먼저 창의(倡義)를 했다는 뜻이요 청기를 세운 것도 동방을 진압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먼저 본군의 군수에게 알리고 군사를 이끌고 행하여 성에 들어가 유숙을 했다.

이때에 임공 백영(任公伯英)이 군수가 되어 적이 겁약(劫掠)할까 염려하여 이졸(吏卒)들을 단속하고 굳게 지키고 있던 중에 문득 공의 의병을 일으킴을 듣고 문을 열어 맞아드리니 이민(吏民)들이 크게 기뻐하고 서로 고기와 술을 가지고 와서 군사들을 먹였다.

초21일 경술 순창으로부터 곧바로 옥과에 이르니 옥과의 수령 안후곡(安侯鵠)이 5리의 거리까지 나와 마중을 했다. 성에 들어간 뒤에 공이 안후에게 말하기를 「본 고을의 무기는 쓸만한 것이 없을 것이니 다시 수리를 하도록 하시고 또 명령을 내어 군사를 점고하여 지킬 계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였다. 안후는 즉시 관리에게 영을 내려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 하나 하나 손질을 하게 했다.

초22일 신해 어제부터 밤을 지새워가며 경내의 군병을 불러모아 점고해본 결과 노약자만 3백명이 모였는데 장정이라고는 백명에 둘 셋도 안된다. 안후는 크게 화를 내어 다시 군사를 모집하려고 군리(郡吏)에게 분부를 하니 고을 안이 소란이 일어나 난리속에 난리가 났다. 공은 억지로 말리면서 「이런 때에 군사를 모집한다는 소리가 나가면 인심이 더욱 두려워하여 모두 호터져 도망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그대로 어루만져 안심을 시켜주시요 내가 거느린 바는 모두가 장정들이니 한달동안만 지켜드릴 것이니 그동안에 호터진 백성들이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도모하면 일이 편리하게 될것입니다」 하였다. 안후가 그말을 좇아 영을 거두니 이민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곧 그 노약자 3백여명을 돌려보내 농사에 힘쓰라고 하였다.

초23일 임자 이날은 큰 바람이 일면서 밤비가 그쳤다. 공은 5백기와

이졸들을 거느리고 고을의 남쪽 들판에다 진을 치고 훈련을 했는데 부오(部伍)가 정숙(整肅)하니 온 고을에서 구경은 사람이 천여명 이었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 고을이 이 덕분에 지켜지겠다」 하였다. 이때 문득 들려오는 말이 일대(一隊)의 군사가 순천을 범했다고 했다. 순천은 여기서 얼마되지 않은 거리인데 적병이 이미 꺾박했다면 형세가 장차 어찌 되겠는가? 공이 말하기를 「한사람을 보내 참말인지 헛소문인지를 탐지해 보는것이 좋겠다」고 하자 좌중에서 한사람이 가기를 자처하거늘 보니 바로 이고을 사람 홍리원(洪履元)이었다. 이때에 나이가 24세였고 무과에 급제하여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했는데 지금 선전관(宣傳官)으로 집에 있었다. 즉시 수습기를 거느리고 함께 가도록 하였다. 이때에 사람들이 모두 하는 말이 「이제 적병의 형세가 창궐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막을 수가 없고 뒤에서는 응원해줄 군사도 없으니 우리나라가 끝내는 되놈의 천지가 될것인가?」 하자 공이 말하기를 「왜놈들이 귀찮게 굴기를 신라의 말기나 고려의 말기때부터 빠진 해가 없었는데 아조(我朝)에 들어와서도 세번이나 침입을 했지만 모두 불리하여 물러갔으나 다만 난리만 일으켰을 뿐이지 어찌 되놈의 세력으로 우리 문명국을 뒤엎을 수가 있겠나?」 하였다.

정덕(正德) 임오년에 삼포(三浦)의 왜인이 반란하여 병조판서 유담년(柳聃年)이 토평을 했고 가정(嘉靖)을 묘년에 호남을 침입하여 방어사(防禦使) 남치근(南致勤)이 격파를 했고 만력(萬曆) 장해년에 또 호남을 침입하여 만호 이대원(萬戶李大源)이 전사했다.

**초24일** 계속 어제와 같이 훈련을 하고 소를잡아 군사를 먹였다. 이때에 소 한마리를 바친 자가 있었고 또 쌀 두섬을 바친자가 있었다. 양산(梁山)과 밀양(密陽)이 연달아 함락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전 16일에 양산을 함락하니 밀양(密陽)의 수령 박진(朴晉)이 성을 버리고 달아났고 17일에 밀양을 함락하니 김해(金海)의 수령 서례원(徐禮元)이 성을 버리고 달아났으며 순찰사 김수(巡察使金睟)도 우도

(右道)로 도망쳐오니 모든 고을이 흠부너지듯 했다.

날이 저물 무렵에 홍선전(洪宣傳)이 돌아와서 전하는 말이 「중로에서 들어보니 지방의 도둑 수백명이 순청등지를 출몰하면서 촌락을 침략했는데 곧 간곳을 모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혹은 말하기를 「왜장 대남비(倭將大南飛)가 군사 수만을 거느리고 순천에 웅거했다는 말이 있다」고 하자 모두가 「만약 지방의 도둑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지만 만약 왜병이라면 큰 일이라」고 했다.

초25일 갑인 들려오는 말이 본도의 순찰사 이광(李洸)이 나주(羅州)에 있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고 있다고 하며 광주목사 정윤우(光州牧使丁允祐)가 들어가 보고 그에게 근왕(勤王)할 것을 권했다고 했다. 그러자 공이 남에게 말하기를 「그는 권하잘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에 한번 순찰사를 만나봤는데 그 위인을 살펴보니 비록 착하기는 하지만 큰 일을 못할 사람이었다. 옛말에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얻기란 어렵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였다. 관리(官吏)들을 시켜 격문을 본읍의 모든 집에 돌려 협력해서 적을 쳐야한다는 의(義)로써 타일렀다.

초26일 을묘 홍선전이 친환(親患)의 소식을 듣고 작별을 하고 돌아갔다. 공은 「잘 간호하여 병환이 회복되시거든 즉시 돌아오시오」 하였다. 고을사람 심민겸(沈敏謙)이 채찍 하나를 휘저으며 달려와 공과 더불어 무술을 강론했고 또 순창에 사는 신상용(申尙容)이 책을 들고 와서 효경(孝經)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공은 말하기를 「옛날 하후승(夏侯勝)과 황패(黃霸)가 함께 옥중에 갇혀 있었는데 패가 승에게 상서(尙書)를 배우겠다고 하자 승이 「죄를 짓고 죽을몸」이라며 사절을 하니 패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드디어 배우면서 강론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제 자네가 난리를 당하여 학문을 폐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사양할 수 있는가」 하고 곧 병서를 치우고 효경을 강론하여 크게 한번 읽고 그치니 곁에서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모두 「세상은 시끄러운데 태평이 여기에 있다」 하였다. 공은 그를 권하며 집에 돌아가 부모를 잘 봉양하라고 했다.

민겸(敏謙)의 자는 사운(士允)이요 호는 두암(杜菴)이니 망세정 선(忘世亭璿)의 후손으로 공과는 옛 교의(交誼)가 있었으므로 거의했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요. 상용(尙容)은 호가 칠휴(七休)니 귀래정 말주(歸來亭末舟)의 후손으로써 일찍이 공에게 수업을 했으며 이때에 나이 17세였고 아버이 섬기기를 효성스럽게 하였다.

**초27일 병진** 이날에 군사를 정돈하여 두 부대로 나누고 안후(安侯)로 하여금 그 일대를 거느리게 하고 방략을 가르쳐 주었으며 공이 일대를 거느려 고을의 남쪽 앞들에서 훈련을 했는데 비록 칼날이 부딪거나 싸우는 일은 없었지만 그 앞고 일어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절차가 마치 한(漢)나라의 주아부(周亞父)의 군사가 세류영(細柳營)에서 나오는듯 하였다.

**초28일 정사** 적병이 조령(鳥嶺)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적이 처음 장기(長鬚)로부터 좌병영(左兵營)과 울산(蔚山) 경주(慶州) 의흥(義興) 용궁(龍宮)을 거쳐 문경(聞慶)으로 나가 진을 치고 있으면서 조령을 넘을것을 걱정했는데 당시의 조방장 변기(助防將邊璣)는 조령을 지키고 유극량(劉克良)은 죽령(竹嶺)을 지키고 있다고 하여 별다른 방략이 없던 차에 적이 사람을 시켜 살펴본바 아무런 방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지나갔다고 한다.

**초29일 무오** 새벽에 순찰사의 관문(關文)이 이르렀는데 하였기를 「조정으로부터 징병을 하게 되었으니 온 도내의 병마들은 일제히 여산(礪山)으로 집합하라」 하였고 그 기한이 매우 촉박하였다. 안후가 말하기를 「나라의 일이 이렇게 몹시 급하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요?」 하였다. 공은 말하기를 「상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으니 우리는 군사를 이끌고 빨리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였다. 안후는 즉시 전주로 향하여 갔다. 공은 또 사람을 시켜 운봉(雲峰)과 함양



(咸陽)등지로 가서 적정(賊情)을 살펴보고 돌아오게 하였다. 밀양의 적병이 청도(淸道) 대구(大邱)를 거쳐 상주(尙州)로 들어갔다고 했다.

초30일기미 적병일 상주를 함락하고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이 패주(敗走)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처음 변보(邊報)가 들려오기를 일(鎰)로 순변사를 삼고 성응정(成應井) 조경(趙敬)으로 좌우방어사(左右防禦使)를 삼았는데 이때에 영남의 각 고을에 둔치고 있던 군사들이 서울의 장수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적병은 점점 닳아오고 때마침 큰 비가 내리고 또 군량도 떨어져 관군마저도 무너지니 모든 고을의 수령들이 단기로 달아나니 일(鎰)이 상주에 이르렀을 때에 목사 김해(牧使金澗)가 이미 달아나 버렸고 판관 권길(判官權吉)이 수백명의 무리를 모아서 거느렸으나 항오도 열도 없었다. 그런중에 적군이 크게 이르니 일은 말을 버리고 머리를 풀고 충주(忠州)의 신립(申砮)이 군사를 주둔하고 있는데로 달아났다.

어제로부터 지금까지 연해서 큰 비가 쏟아져 죽천(竹川)이 크게 범람하여 사람이 건너지 못하였다.

수해를 듣고보니 사람이 5명 소가 세마리 피해를 보았고 가산등의 물건은 그 수효를 셀수가 없다고 한다.

초5월1일 경신 군중(軍中)에 일이 없어서 각기 항오(行伍)만을 정돈하였다. 해질 무렵에 충남(忠男)이 합강(合江)에서 와서 아뢰기를 「이번 큰물은 망망하기가 바다와도 같았는데 떠내려간 집들이 온 강을 덮고 종일 끊이지 않았으니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는 것을 짐작할만 합니다」 하였다. 공은 말하기를 「그것도 운명이다. 만약 적에게 해를 당한 사람에게 비한다면 물에 빠져죽은 사람을 슬퍼할 수 있느냐」 하였다. 안후(安侯)가 완주로부터 밤중에 읍에 당도했다. 이때에 공은 촛불을 밝혀놓고 잠을 자지않고 있었는데 안후가 말하기를 「이번에 남원부사 윤안성(南原府使尹安性)과 함께 객사(客舍)를 썼는데 그가 하는 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살며시 안성에게 말하기를 「순찰사는 그 하는 것으로

보아 일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우리군사를 패하게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옛날 항우(項羽)가 경자관군(卿子冠軍)을 배었듯이 하여 대신 상장이되어 공을 세우도록 해보십시오」 했다고 합니다. 공이 말하기를 「양주부(梁主簿)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오」 하였다.

뒤에 알고보니 과연 그 사람이었다. 안후(安侯)가 「주부는 어떤 사람이요?」 하자 공이 「주부는 양대박(梁大樸)이니 나의 이종입니다. 일찍 벼슬할 생각을 버리고 성리학(性理學)을 정통하여 학자가 청계선생(淸溪先生)이라고 부르지요」 하였다.

이날 읍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갔는데 부인 김씨가 문을 나서 마중을 하고 불평한 어조로 말을 하기를 「들으니 당신은 오백명의 군사를 얻었다고 하는데 어째서 곧바로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오래 머뭇거리는 것입니까?」 하였다. 「천명이나 얻으면 나설려는 것이요」 하자 「그렇다면 어째서 서두르지 않는거요? 전번에 말한 마디로 5백명을 얻을수 있었던 것은 난의 초기이기 때문에 인심이 그래도 제대로 있었던 것이요. 지금은 비록 여러말을 한다해도 한사람도 얻기가 어려운 것은 난리가 오래감으로써 인심이 더욱 흐터지기 때문입니다. 인심이 흐터진다는 것은 그 도를 잃는 것입니다. 글에 하였기를 『도를 잃은 자는 도와주는 사람이 적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주 적다보면 친척까지도 배반한다』 하였는데 하물며 모든 사람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일이 참으로 딱합니다」 하였다. 공은 「부인의 말이 옳소!」 하고 즉시 사랑으로 나가 군사를 모집할 것을 결심하고 손수 창의(倡義)하는 격문(檄文)을 초했는데 밤이 이미 깊어져 촛불을 밝히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초2일 신유 집안 종들에게 분부를 했는데 그중에서 발이 빠른자 50 여인을 뽑아 각기 한장씩을 들고 남도의 각고을 수령과 모든 사민(士民)들에게 두루 알리도록 하고 즉시 말을 재촉하여 성으로 달려갔다. 날마다 군무때문에 몹시 피로했다. 이날 우주(牛酒)를 크게 차려 군사를 쉬게하고 오락을 했는데 해질무렵에 다시 점고를 해보니 천여명이

되었다.

의리로써 고을 백성들을 깨우치자 며칠만에 흐터져 나갔던 백성들이 모조리 돌아와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배짜는 사람은 배를 짜 온 경내가 안온해졌다 그러자 가까운 고을로 피란을 왔던 자들도 소문을 듣고 와서 혹은 거민(居民)이 되기도 하고 혹은 군으로 들기도 하였다.

초3일 입술 새벽에 들려오는 말이 지난달 그름에 대가(大駕)가 서쪽으로 떠나셨다고 했다. 꿈은 하늘을 쳐다보고 부르짖으며 통곡을 하고 「내가 이미 호종을 못했으니 장차 어떻게 보국(報國)을 하리요?」 하고 칼을 두들기면서 맹세하기를 「안상산<sup>6)</sup>(顔常山)은 성을 지키다가 죽었으나 일찍이 당세 임금의 알아주지 않았던 터요 조사아<sup>7)</sup>(祖士雅)는 노를 치면서 맹세를 할적에 어찌 이둔<sup>8)</sup>(利鈍)을 계고 했으리요」 하니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뿌렸다. 처음에 이원익(李元翼)으로 기백(箕伯)을 삼고 최흥원(崔興源)으로 해백(海伯)하실 뜻이 있었다. 이양원(李陽元)으로 수성장(守城將)을 삼고 이즙(李戢) 변언수(邊彦琇)로 좌우위(左右衛)을 삼고 김명원(金命元)을 기복<sup>9)</sup>(起復)하여 도원수를 삼아 한강을 지키게 하였는데 영부사 이귀영(領府事李貴榮)이 서울을 고수(固守)할것을 청하고 장령 권협(掌令權俠)도 서울을 지켜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쳤으나 대가(大駕)가 창황하게 대궐문을 나섰다. 벽제역(碧蹄驛)에 이르니 비가 퍼붓듯 쏟아졌고 저물녘에 동파역(東坡驛)에 이르니 파주(坡州)의 수령 허진(許晉)과 장단(長湍)의 수령 구효연(具孝淵)이 어주(御廚)를 올렸는데 이때의 형편이 상공<sup>10)</sup>(上供)도 꺾힐 지경이 되니 모두가 두려워하여 도망들을 쳤다. 다음날 서흥(瑞興)의 수령 남억

6) 顔常山: 昆脚 唐의 安祿山亂에 常山太守로 節死

7) 祖士雅: 逃 晉人이니 河水를 건너며 「中原을 말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음.

8) 利鈍: 칼날의 날카롭고 둔함.

9) 起復: 齋服中인 사람을 起用함.

10) 上供: 왕께 올릴 음식.

(南嶽)이 군사와 말을 갖추어오니 그로써 해차의 구색을 다시 갖추었다.

저녁에 개성(開城)에 이르니 해백(海伯) 조인득(趙仁得)이 중도에다 장막을 쳐놓고 비로소 수라를 올렸고 백관들도 겨우 요기를 하였다. 군의 향오를 정돈해 놓고 곧 혼자서 길을 뜨니 오직 충남 하나가 따라서 나섰다. 곡성(谷城)의 우측으로부터 돌아서 순천으로 향하다가 저물 녘에 대광사(大廣寺)에 들어가니 절간이 비어 있고 중이 없었다. 두루 살펴보니 당에는 벼개가 있고 부엌에는 그릇들도 있어 사람이 사는 흔적은 있는데 조용하였다. 그래서 「이는 반드시 도둑의 해가 있었거나 아니면 짐승의 해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이날밤에 촛불을 밝혀놓고 자지않고 있는데 과연 세마리의 커다란 호랑이가 바로 들러왔다가 공을 보고 깜짝 놀라 뒷거름을 쳐 쭈그리고 앉았다. 공은 칼을 쥐고 서서 「너희들이 비록 미물이지만 백수의 어른이니 혹시 9월산의 전일을 기억하느냐?」 하자 호랑이들이 머리를 수그리고 듣다가 꼬리를 드리우고 가버렸다. 얼마나 있다가 두 중이 벽장속에서 나와 절을 하며 꿇고 하는 말이 「이곳 가까운 절간이나 깊은 산골에 피란을 온 사람들이 호랑이의 해를 입은 사람이 많고 또 이절간에도 범하여 어제밤에는 공의 덕분으로 해를 면했지만 만약 공의 행차가 떠나신 뒤에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이 애당초 덕을 힘쓰실 때에는 새 짐승 물고기 등까지 모두 제길을 찾아 살더니 저 왜놈들이 하늘을 거스리고 덕을 어지럽히자 사람과 귀신이 혼동되어 짐승도 제자리에 편히 있지를 못하여 그 화가 사람에게 미친것이다. 그러나 호랑이도 사람을 무서워하여 마치 사람이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한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내가 의병을 모집하여 왜놈들을 소탕하려고 하는 것이니 저 또한 이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동을 하리라」 하였다.

**초4일 계해** 공이 떠나려하자 두 중이 굳이 붙잡으며 말하기를 「원컨대 하룻밤만 더 머물러 동정을 살펴봐 주소서」 하였다. 그래서 중과 충남을 데리고 깊은 골짜기 궁벽한 곳을 두루 찾아다녔는데 두 중은 따라다니지

못하였다. 두 중은 모두가 나이 팔십여세였다. 충남에게 명하여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곳에 피란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오시오! 난은 이미 평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오래 살려고 하시오?」 하게 했더니 한참 있다가 혹은 바위틈에서 혹은 숲속에서 조금씩 모여든 사람이 백여인이나 되었는데 모두가 따르기를 원했다. 공은 그들을 대리고 함께 절로 들어가 그날밤을 편히 보냈다.

그후로는 호환(虎患)이 없어져 피란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산으로 들어가 살아난 사람이 천여명이나 되었다 한다.

**초5일** 갑자 이른 아침에 말을 먹여 타고 거름을 재촉했는데 이때에 두중이 장검과 단검 각기 다섯씩을 드리면서 「군용(軍用)에 보태쓰소서」 하거늘 충남을 시켜 싣고 가자고 했다. 그리고 그 백여인이 모두 따라가겠다고 나섰으나 공은 말리며 「내가 앞으로 여러 고을을 두루 다녀야 하니까 그대들은 우선 여기 머물러 있다가 뒷날을 기다리도록 하라」 하고 중을 불러 「이 사람들의 공대를 해줄수가 있겠는가?」 하자 중은 「절간에 쌓아둔 곡식이 있는데 무엇이 어렵겠소」 하였다. 곧 동복(同福)으로 가서 정진사 암수(丁進士巖壽)를 찾아보고 시사(時事)를 이야기하고 후일을 약속한 뒤에 다시 떠나 본고을의 관음사(觀音寺)에서 잤다. ○도순변사신립(都巡邊使申唼)이 충주(忠州)의 탄금대(彈琴臺)에서 전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날 본읍을 다녀온 중이 소식을 듣고와서 공에게 아뢰었다. 공은 탄식을 하며 「신립은 의리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빛을 내고 죽었으니 이말을 듣고 그 누가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지 않으리요!」 하였다. 원래 지난달 27일에 적이 단원역으로부터 이르러 왔는데 총소리가 땅을 진동하는지라 립이 말을 채찍질하고 돌진을 했다가 도리어 적에게 밀려 물에 뛰어들어 죽으니 모든 군사가 크게 무너져 떠내려 가는 시체가 강을 덮고 물이 막혀 흐르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때에 김여물(金汝物)도 죽었는데 이일(李鎰)은 또 빠져 달아나 간 곳을 몰랐다.

초6일을축 아침을 먹은 뒤에 공은 공루(空樓)에 앉아서 중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그대들 중에서 능히 기묘한 꾀를 내어 왜놈을 쳐 부수게 할 사람이 있다면 모두 나를 따르라」 하자 이때에 절에 머물러 있던 중이 겨우 열명이었는데 모두가 대답하기를 「소승등은 절을 지키면서 사는것이 소원이니 이도 공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하는 군량미 열섬을 일전에 본 고을의 의병소로 실어다 댔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이곳에 피란을 와서 있는 사람중에도 알고 있는 옛 친지가 많아 서로 반갑게 만나보고 혹은 왜놈을 어떻게 부술 것이냐고 묻고 혹은 피란할 방도를 묻기도 하였다. 공은 말하기를 「치면 깨지는 것이고 숨으면 피하는 것이니 이것뿐이오」 하자 그중 한사람이 나서서 하는 말이 「쳐서 깨진다면 무슨 걱정이 있고 숨어서 피할수 있다면 무슨 죽음이 있겠오?」 하였다. 공은 말하기를 「환난을 생각하여 예방을 하고 싶으면 치지 말것이요 죽기를 생각하여 미리 대책을 세우려면 숨지 말아야지」 하였다.

이는 그사람이 충언 기모(忠言奇謀)는 없이 다만 살려고만 하여 그렇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 대답이 그러했다.

저물녘에 읍으로 돌아오니 마중을 하며 위로하기를 매우 극진히 하고 신립(申砮)의 패했다는 소식도 전하였다. 공은 「나도 절에서 그 사실을 듣고 알았다. 애당초 립이 순변사의 기하(騎下)로 있을 때에 나에게 편지를 부쳐 말하기를 『이제야 문사(文事)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비(武備)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군사를 합하여 적을 치고 동방을 평정하리요?』 하더니 이 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먼저 죽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하였다.

단을 베풀어 전을 드리고 군인들을 권면하였다. ○계미년 북쪽 오랑개가 경원(慶源)을 함락하니 부사 김수(金燧)가 지키지를 못하니 병사이제신(李濟臣)이 잡아다가 추궁을 했는데 그때 입(砮)이 온성부사(穩城府使)로 있으면서 적병을 죽이고 공을 세우니 병사로 발탁이 되

있고 이제는 도순변사(陶巡邊使)가 되었다. 또 들리기를 호서(湖西)의 적병이 곧바로 왕도(王都)로 향하고 있는데 그 칼날이 예리하여 당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적병이 김해(金海) 성주(星州) 금산(金山)으로부터 영동(永同)으로 나가 청주(淸州)를 함락하고 충주의 적으로 더불어 군사를 합하여 곧바로 도성으로 향한다고 한다.

공이 군사를 점고 하려고 장대(章臺)로 나가 칼을 쥐고 섰다가 이말을 듣고 비통한 소리를 한번 지르더니 칼로 돌을 치자 돌이 동강이 났다.

공은 「내가 왜놈의 목을 이렇게 치리라」 하였다. 이 장대앞의 둥그런 돌은 사람들이 힘을 겨루는 들독이었다.

**초7일** 병인 또다시 담양의 남쪽을 지나 화순의 최삼계 경회(崔三溪慶會)를 찾아 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자제들에게 거의(擧義) 할것을 권하고 곧 나서서 광주로 가서 김장군 덕령(金將軍德齡)을 찾아보고 적을 칠 방략을 묻고 일을 함께 하자고 했으나 김공은 어버이가 늙으시다는 이유로 사양을 했다. 그래서 무경(武經)을 강론하며 밤을 지새웠다.

**초8일** 정묘 떠나려면서 김공을 보고 「함께 일을 하지 못한것이 한스럽다」고 하였더니 말하기를 「들은바에 의하면 공은 한마디의 말로 오백명이나 되는 사람을 얻었다는데 그렇게 심복을 시켜간다면 비록 천만인 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적을 파하기가 어렵겠오」 하였다. 곧 창평(昌平)으로 향하여 부사 정종명(府使鄭宗溟)과 현감 조효원(縣監趙孝元)과 문관 오변(文官吳玘)을 차례로 찾아보고 시사를 대략 이야기하며 뒷날 보자고 약속을 하였다. 날이 저물어 서봉사(瑞峯寺)에 들어가 중을 불러 영규(靈圭)가 근일 어느 절에 머물러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중년에는 계룡산중으로 들어갔는데 지금도 과연 그곳 절에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였다. 공은 영규를 보지 못한것을 무척 안타까워 했다.

중년에 어떤 중이 문전에 찾아와 동냥을 청하므로 공이 나가 맞아드려

방에 앉히고 이야기를 해보고 몹시 기뻐하여 여러날을 이야기하다가 작별을 할적에 시를 지어주고 했는데 그뒤에 여러번 서봉사(瑞峯寺)에 가서 그중을 만나 사생(死生)을 같이 하자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때에 적을 피하여 절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공의 행색이 이상한것을 보고 모두 피해 달아나거늘 공이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도망쳐 숨느냐?」 하자 그중 한 사람이 그 소리에 응하여 하는 말이 「살리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면 비록 죽어도 죽인 자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맹자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약 살리는 방도로 우리를 깨우쳐 준다면 어찌 따르지 않겠오!」 하였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도 「그러고 말고!」 하였다. 이날 저녁에 한강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읍에 갔다가 돌아온 중이 듣고온 소식을 전하는데 지난 초3일에 적이 한강을 건너 성에 들어갔는데 마치 무인지경 같이 하였고 유도대장이 양원(留都大將李陽元)과 도원수 김명원(都元帥金命元)이 모두 패하여 달아났다고 했다.

**초9일 무진** 창평으로부터 진원(珍原)의 경계에 들어갔는데 공은 말하기를 「이고을은 우리 선군(先君)이 수령으로 계시면서 덕을 끼치신 곳이니 백성들이 반드시 화친하리라」 하고 마을들을 돌아보았는데 비록 깊은 산골이라도 안간테가 없었는데 사대부나 이서(吏胥)들은 말할것도 없고 초야의 백성들까지도 공이 의병을 일으킨단 소문을 듣고 반갑게 여겨 따라나서는 자가 수백명이나 되었다. 모일(某日)에 옥과로 와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갈렀다.

**초10일** 기사 장성(長城)에 들어갔는데 문득 선군이 김하서(金河西)와 종유했던 것을 생각하여 곧바로 백동(麥洞)에 들어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한 당에 모여서 의논하는 일이 있다가 공을 보고 반갑게 맞아드려 유가(儒家)의 일을 묻거늘 공이 말하기를 「오늘날 의논할 바가 국사 이외에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옛날 하서선생이 선견(先見)의 밝으심이 계셨



으니 오늘의 이 난리를 예견하시고 반드시 남기신 말씀이 계셨을 터이니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떠나렵니다」하였다. 좌우가 모두 묵묵하고 있다고 만류하기만 굳이 하거늘 공은 「일이 바쁘다」며 굳이 사양하고 나쳤다. 선군 참판공이 진원을 지킬 때에 하서선생의 살던 곳과 멀지 않아서 도의교(道義交)를 맺었는데 그뒤에 선군이 을사화(乙巳禍)의 기미를 예견하고 옥과로 물러왔을 때에는 선생이 또 마침 옥과의 수령이 되었다. 그래서 또 서로 증유를 하게 되었는데 언제나 선생을 만나면 탄식하면서 「내가 나이 사십이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다.」고 하면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어찌 자식이 없다고 걱정을 하는가 이곳에서 마땅히 대인군자(大人君子)가 태어날 것이니 수(壽)를 하면 일세의 증유(宗儒)가 될 것이고 요절을 하면 일국의 충신이 될것이네」하였다. 「설혹 자식이 생긴다면 수를 할지 요절을 할지를 어떻게 알고?」하자 「나라가 태평하면 수를 할것이고 어지러우면 요절을 할것이네」하였다. 그런데 선생이 작고하신 뒤에 과연 귀자를 나 문장과 재덕(才德)이 일찍이 세상에 유명해졌으나 불행히도 난세를 만나 절사를 하니 이때에 나이 겨우 이십구세 선생의 말씀이 과연 맞았던 것이다. ○참판공이 하서선생으로 더불어 증유할때에 왕복했던 편지나 주고 받았던 시가 모두 합강일기(合江日記)에 실려 있었는데 병화(兵火)로 많이 없어져 버리고 전해지고 있는 것은 다만 별하서(別河西)忆하서(憶河西)의 두편이므로 여기에 기록해 본다. 「진옥남주천승명<sup>11)</sup>(珍玉南州擅勝名) 아선군후득전성<sup>12)</sup>(我先君後得專城) 금행종작귀산계<sup>13)</sup>(今行終作歸山計) 별의망망미진정<sup>14)</sup>(別意茫茫未盡情) 또 이런 시가 있다. 불견하서십수년<sup>15)</sup>(不見河

11) 珍玉南州擅勝名 : 진원 옥과는 남도의 명승지

12) 我先君後得專城 : 내가 앞서 그때는 뒤서 한고을을 지켰다.

13) 今行終作歸山計 : 이번 걸음이 마침내 산중으로 돌아오니

14) 別意茫茫未盡情 : 이별뜻 망망하여 다하지 못한 정이며.

15) 不見河西十數年 : 하서를 못본지가 십수년이라

西十數年) 계개사도유수전<sup>16)</sup>(繼開斯道有誰傳) 분명기아증행처<sup>17)</sup>(分明記我曾行處) 맥동산천재면전<sup>18)</sup>(麥洞山川在眠前) 지나는 길에 기금강 효간(奇錦江孝諫)과 변망암 이중(邊望菴以中) 두분이 찾아왔는데 말씀드리기를「내가 지금 군사를 모집하려고 이곳을 지나다가 어르신들과 타협을 해 불려고 왔으니 좋은 가르침을 듣고저 합니다」하자 두분이 모두 대답해 주었다. 말을 마친 뒤에 절을 하고 물러 나왔다.

금강은 말하기를「그대가 이미 앞서 창의(倡義)를 하니 내가 반드시 뒤에서 돕도록 하겠네 이렇게 주상께서 곤욕을 당하시는 날을 당하여 신하된 사람은 모두가 죽을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이니 어찌 마원(馬援)에 뒤질 게 있는가 잘해보게」하였다. ○망암은 그 아들 경운(慶胤)을 돌아보고 공에게 말하기를「두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의(義)로 일을 결정한다면 어찌 안될 일이 있겠는가 늙은 사람은 이것만을 부탁하네」하였다.

장성군수를 들어가서 만나보고 국사에 대한 몇마디 이야기만 하고 날이 저물어 곧 관(館)으로 나와서 잤다.

초11일경오 새벽에 말을 먹이고 하루안에 담양의 남북을 모조리 찾아다니고 정읍(井邑)의 동쪽으로부터 고개를 넘어 순창(淳昌)의 북쪽 삼방(三防)까지 안들어간 곳이 없었다. 이 때에 더욱 많았는데 순창은 옥과와 거리가 멀지 않아 공을 잘들어 알고 있었다. 공을 보고 어찌 늦게 왔느냐며 모두가 모여서 나라의 일에 따라 나서겠다 하므로 또 모일에 옥과로 오라고 약속을 하고 나뉘어졌는데 그 무리중에서 장정 37인은 모두 하나씩의 장검을 차고 나서면서「뒷날을 기다릴 수 없으니 곧바로 공을 따라 불의를 막겠다」고 하므로 드디어 함께 나섰다. 회문산(回文山)중으로부터 돌아서 임실(任實)의 갈담역(葛潭驛)으로 향하는

16) 繼開斯道有誰傳 : 옛 聖人을 이고 來學을 열어준 일을 누가하느냐.

17) 分明記我曾行處 : 분명하게 내가 다니던 곳을 기억하고 있으니

18) 麥洞山川在眠前 : 맥동의 산과 물이 눈앞에 삼삼하다.

데 적병 삼백여명이 촌락을 노략질하고 있어 공이 사람을 시켜 탐지를 해보았더니 모두가 머리를 깎고 중의 옷을 입는 놈들이었다. 전에 듣기를 왜장 대남비(大南飛)가 순천을 범했다고 했는데 이는 반드시 남비가 선발대를 보내 지형을 탐지하고 군사를 물고올 길을 틀려는 것이 틀림없었다. 공은 말을 채찍질하고 그들 속으로 돌입하여 큰 소리로 외치기를 「너의 대장 남비가 어데 있느냐? 이곳은 너희가 몰사할 땅인데 왜 속히 물러나지 않느냐?」 하자 37인이 제각기 칼로 쳐죽여 모두가 한사람이 열명씩을 당하여 삼백여인을 일시에 죽여 없애 버렸다. 어찌 통쾌하지 않는가? 집에 있었던 마을사람들이 앞다투어 고기와 술을 들고 와서 위로를 했는데 밤이 이미 깊었다.

초12일 신미 근처에서 산으로 피란해온 사람이 이곳으로 모여와서 모두가 따르기를 원하거늘 역시 모일에 옥과로 오라고 약속을 하고 나뉘었다. 갈담역으로 부터 잠복한 적병이 있는가 탐지를 하며 돌아서 남원으로 향하다가 도중에 소문을 들으니 이광(李洸)이 진군을 하여 금강(錦江)에 이르렀다가 도성(都城)이 함락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창황하여 파진(罷陣)을 하고 군사를 물리는 바람에 인심이 겁을 집어 먹고 적의 형세는 창궐하여 광이 겨우 몸을 벗어나 청주(淸州) 내포(內浦)를 경유하여 임피(臨皮)에 이르러서 즉시 도내에도 관문(關門)을 발송하여 정병(精兵)을 징발해 가지고 해로(海路)로 해서 임진(臨津)으로 갈려고 했지만 인심이 흉흉하고 두려워하여 명령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처음 조정에서 징병(徵兵)의 교령이 있었는데 광이 독촉을 하여 징발을 하면서 기간이 너무나도 촉박하였고 더구나 비가 쏟아져 길이 막혀서 사졸이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채찍을 이기지 못하여 몸을 던지기도 했는데 공주(公州)에 이르러 7일간을 머물러 있다가 결국 진영을 파하니 대군이 드디어 무너지고 인심이 더욱 흐터졌으며 헛소문이 멀리까지 나돌았다.

즉시 남원(南原)의 수령 윤안성(尹安性)을 찾아보고 몇마디 국사이야기를 했는데 윤후(尹侯)가 말하기를 「근일에 양주부(梁主簿)의 말을 들어본즉 유학유(柳學諭)의 창의(倡義)소문이 사방을 샷구쳐 진동케 한다고 하니 이는 실로 국가에 한 도움이 되고 있으 호남에 앞장을 서서 창의를 한분이 공 말고 누가 있으?」 하였으며 또 갈담역에서 왜병을 격파한 일을 위로하며 「그 덕분에 적이 나에게 범하지 않았오」 하고 고기와 술을 갖추어 따라간 37인을 먹여줬다 대접을 받고나서 관(館)으로 나와 잤다.

**초13일** 임신 아침 뒤에 양청계(梁靑溪)의 창의소(倡義所)에 들어가서 만나왔다. 청계의 이름은 대박(大撲)이요 자는 사진(士眞)이니 바로 공의 이종(姨從)이다. 이달 초하룻날 공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그대의 거의(擧義)가 나보다 먼저였고 나의 거의가 그대보다 뒤졌으니 뒤서거나 앞서거나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쳐서 큰 공을 세울 사람이 그대와 내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고을 사람 안영(安瑛)이 본시 그대와 좋게 지내고 큰 도락이 있으니 함께 큰 일을 하는것이 어떠한가? 이 사람이 국가에 이(利)를 이야기하면 마치 한(漢)나라의 상홍양(桑弘羊)이나 동곽함양(東郭咸陽)이나 공근(孔僅)을 분석하는 사람인데 그대의 뜻은 어쩔지 모르겠네」 하였다. 그때에 즉시 답장을 못한것은 모병을 하려고 각 고을을 돌아 다녔기 때문이었는데 이제야 찾아와서 면담을 한것이다.

인사를 끝마치고 37인을 불러들여 보여주면서 「저 사람들은 모두가 장사입니다. 지난번 임실의 길목에서 왜놈들 삼백여명이 산곡에 가득차 있을 때에 각기 칼을 들고 한사람이 열사람씩을 당하였으니 뒷날 나하고 성공할 사람들이 이사람들 입니다」 하였다. 양공은 크게 치하를 하면서 「자네는 사람을 얻었구려!」 하고 만류를 하여 병사(兵事)를 강론하였다.

**초14일** 계유 이 고을 사람 방원진(房元震)은 공과 동학(同學)을 한 사람이다. 이때에 나이가 십팔세였는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을 함이 보통

사람보다 특출했는데 공이 왔단 말을 듣고 와서 보기를 청하거늘 공은 나가서 맞아드리고 더불어 이야기를 해보고 크게 기뻐했으며 양공도 매우 가상하게 여겼다.

원진의 자는 이성(而省)이니 사계 응현(沙溪應賢)의 손자로 역시 의병을 일으켰고 뒤에 찰방(察訪)이 되었다.

**초15일 갑술** 공이 양공에게 말하기를 「제봉고공 경명(霽峰高公敬命)이 전 교리(敎理)로서 일대의 중망(重望)을 지니고 있고 또 연세나 덕이 다 높은데 지금 광주서 의병을 일으키고 있다 하니 그곳에 글월을 보내 힘을 합하여 도적을 치자고 하는것이 어떻소?」 하자 양공도 「내 생각도 그렇네」 하고 즉시 함께 편지를 지어 가지고 소매에 담고 집으로 돌아와 충남(忠男)을 시켜 곧 광주로 전하였다.

**초16일 을해** 수일전부터 오늘까지 응모하여 온 자가 천여인이 되었다. 이에 전일 비축해둔 군복 군량 군기를 모조리 꺼내서 입히고 먹이고 사용하게 하였다. 공이 살고 있는 마을뒤 옥출산(玉出山)의 산성치(山城峙) 깊은 골짜기에 수년전에 집 3칸을 지었는데 그중 한칸에는 56명의 성량쟁이를 두어 날마다 무기를 만들게 하고 한칸에서는 56명의 바느질하는 계집종을 시켜 날마다 군복을 만들게 하고 한칸에는 수반은 곡식 수백석을 쟁겨 두었는데 그것들을 해마다 모았다가 오늘날 쓴 것으로 써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

**초17일 병자** 고공(高公)의 답서가 왔는데 이달 23일 담양에서 만나서 일을 결정하자고 했다.

충남이 말하기를 「어제 글월을 가지고 가서 고공에게 바쳤더니 다 보시고 나서 그 두 아드님을 돌아보시며 『일전에 그 격문을 읽어보니 늙름한 말뜻이 사람을 감동케 하여 내가 일을 함께 하고 싶었으나 서로 만나본적이 없어서 유감이더니 이제 이 편지를 보니 내마음이 기뻐서 늙음을 잊고 무어라 마음을 형용할 줄을 모르겠다. 그리고 양모는 나 하고 전부터 아는터인데 그 사람이 일을 아는 사람이다. 이제 이 두

사람으로 더불어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이 안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였다.

**초18일 정축** 고공(高公)의 편지를 남원의 창의소로 보내고 바로 성으로 들어가니 안후(安侯)가 성을 지키는 군사를 거느리고 5리의 거리까지 마중을 나왔다. 안후가 미리 고기와 술을 준비하였다가 공을 대접했는데 이날 큰 잔치를 벌여 군사들을 먹인 뒤에 군병을 점고하니 수천명에 달하였다.

**초19일 무인** 의병을 거느리고 고을의 남쪽 앞들에서 진을 벌였는데 군사의 기율이 엄정하여 위엄이 당당했다. 본 고을에 사는 김좌랑 감(金佐郎鑑)과 권참봉 이덕(權參奉懿德)과 허별좌 찬(許別座纘) 그리고 부자들이 모두 앞을 다투어 고기와 술 돼지 닭 곡식등을 가지고 와서 서로 바치며 「우리 온 경내가 유장군 때문에 무사하겠다」 하였다.

**초20일 기묘** 순창의 양직장 사형(楊直長士衡)이 그 족제(族弟) 희적(希迪)과 말을 타고 함께 와서 더불어 무술을 강론하고 뒷날 담양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작별을 했다.

사형(士衡)의 호는 어은(漁隱)이니 공과 같은 해에 진사가 되었고 같은해에 문과에 급제를 했다. 나이는 공보다 위였지만 망년교<sup>19)</sup>(忘年交)를 맺었다.

**초21일 경진** 남원의 전 봉사 윤공 대표(前奉事尹公大彪)는 바로 공의 외종형이다. 공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합강촌(合江村)에 와서 머물러 있다가 이날 성에 들어와 의병의 진세를 보고 「어떻게 묘년(妙年)의 나이에 이렇게 할수가 있단 말인가? 비록 옛날의 명장수이라도 더할수는 없겠네 내가 가산을 몽땅 털어서 군량으로 바친다해도 아까울 것이 없네」 하였다. 날이 저물자 합강촌으로 돌아가는데 공이 절을 하고 보내면서 「뒷날의 일을 주선해 주기는 우리 형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19) 忘年交: 연치를 잊고 사귀

하였다.

초22일 신사 소식이 들려오기를 적병이 용인(龍仁)을 함락하고 3도의 군사가 모두 무너졌다고 했다. 이에 앞서 순찰사가 도중에서 서성이고 있다고 모든 군사가 이르러 진위(振威)에서 56일을 묵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비를 맞고 쇠었으며 용인에서 싸울적에는 적병이 북두산(北斗山) 꼭대기 아주 험한 곳에다 진을 치고 책(柵)을 세워 지키고 있거늘 광(洸)이 속으로 쉽게보아 장사 백광언(壯士白光彦)과 이시례(李時禮)를 명령하여 나가 싸우게 했다가 적의 해친 바가 되었고 또 이때에 큰안개가 사방으로 짙 끼어 지척을 분별할수가 없던 차에 적병이 그 군중을 모조리 이끌고 공격을 하니 3도의 순찰사가 하나도 병략(兵略)이 없는터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중에 갑자기 세놈의 적이 몸을 뛰치고 나와서 칼을 휘두르며 큰 함성을 지르니 충청도 절도사(節度使)의 군사가 먼저 무너지고 모든 군사가 뒤이어 무너짐으로써 전마(戰馬) 이천여필과 화약 총통등 모든 병기를 모조리 적에게 쥐버리는 결과가 되었다.

본도의 도백은 임피로 달아나고 영남도백은 김수(金粹)였는데 영우(嶺右)로 도망치고 금백(錦伯)은 윤국형(尹國馨)이었는데 공주로 달아나고 태인의 전판관 김덕린(前判官金德潁)은 이곳서 죽었다.

초23일 임오 양공이 남원으로부터 단기로 왔는데 한낮이 가까웠다. 몇마디를 주고 받은 뒤에 곧 행장을 차리고 담양으로 갔는데 충남(忠男) 하나만이 따라나섰다. 양공이 말하기를 「내말은 오룡(烏龍)이고 그대말은 오리(烏驪)니 사람과 말이 서로 잘만났다고 할수 있네」 하였다. 저물녘에야 성에 들어가니 고공(高公)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웃으면서 「그대들 모두 후지(後至)의 벌을 받아야겠군!」 하였다.

초24일 계미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군사(軍事)를 충분히 토의를 하여 방략을 정하고 서로 나뉘었다. 양공은 먼저 출발하여 곧바로 남원으로 향하고 공은 뒤에 출발하여 저물녘에 돌아왔다.

초25일 갑신 본 고을의 3석 마태(馬太) 2석을 보내 군용으로 쓰라고

하고 곡성의 신봉사 언해(申奉事彦海)가 소 한마리를 보내고 또 편지를 보내 당부를 했으며 순창의 선비 조식 조철(趙軾·趙轍)의 형제와 김봉학(金奉鶴) 김익복(金益福) 이학령(李鶴齡)이 각기 가동(家僮)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와서 종일토록 무술을 강론하고 날이 저물어 관(館)으로 나가 잤다.

**초26일** 율유 5인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군중의 일을 어떻게 하려 합니까? 각기 맡은 자가 있어야 일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전번에 고공으로 더불어 약속한 바가 이미 있으니 그대들도 다시 담양에서 만나 함께 타협을 하도록 하오」 하고 서로 약속을 한 뒤에 나뉘어졌다.

**초27일** 병술 고공이 편지를 보내오기를 「이번 그믐날 담양에서 군사를 합치고 며칠간 훈련을 하여 향오를 세우고 모든 참모의 책임도 정한 뒤에 큰 일을 완성하자」 하여 공은 곧 답장을 써서 보냈다. 고공이 그 서제 경신(庶弟敬身)에게 편지를 주어 보내 왔으므로 이 편지를 곧 양공의 창의소로 보냈다.

**초28일** 정해 새벽에 말을 먹여타고 곧바로 합강(合江)으로 가서 부모의 묘소에 참배를 하고 또 가묘(家廟)에 고하여 통곡을 하며 사별(辭別)을 하고난 뒤에 아내와 결별을 하면서 「만약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나의 뒤를 세워줄 분은 전 목사 경례(敬禮)일거요」 하고 또 아우 팽진(彭眞)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네가 우리집을 전해갈 것이냐?」 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옛날곽거병(霍去病)은 집안을 생각지 않았다고 하는데 바로 오늘같은 때를 말한것이니 군자가 나라를 위할 때에는 집을 생각하지 않는 법이거늘 어찌 사사로운 말씀을 하십니까?」 하자 공은 「그렇소 부인이 잘 알아서 하시오」 하고 곧 말을 채찍질하여 성으로 들어갔다.

**초29일** 무자 수천의 의병을 거느리고 담양으로 가니 안후(安侯)와 사대부 이서(吏胥)가 오례원(五禮院)까지 나와서 전송을 했다. 도중에



들러오는 소식이 대가(大駕)가 평양으로 향하여 천조(天朝)에 구원을 청한다고 했다. 그래서 즉시 진을 멈추고 북쪽을 바라고 행재<sup>20)</sup>(行在)를 향해 4배를 한 뒤에 행군을 계속 저물녘에 성에 들어가니 조금 있다가 고공(高公)도 이르렀는데 그 중자 인후(仲子因厚)가 뒷따라 모시고 왔다. 후군이 모두 이르러 멈출 때에는 밤이 이미 3경이 되었다. 본부사(府使)의 지휘자가 엄명(嚴命)하여 고을 아전들이 벌벌 떨고 분주 하였으며 영중(營中)의 불빛이 별처럼 버려서고 성문이 밤새도록 닫히지 않았다.

**6월초1일기축**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하는 말이 순찰사가 격문을 보내 좌수사 이순신과 무주 조방장 이계정(茂朱助防將李繼鄭)을 불러 태인(太仁)에 모여서 일을 의논한다고 했는데 그 의논한 일이 무슨 일인지는 부윤 권수(府尹權燧)나 도사 최철건(都事崔鐵堅)도 모른다고 했다. 공은 말하기를 「이광(李洸)은 사직을 지킬 신하가 못됩니다. 의논을 하는 일이 샅적인 것이라면 군법에 의하여 마땅히 베어야 하고 의논하는 일이 공사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였다. 고공도 「그렇지!」 하였다. 본부인 이인경(李寅卿)이 군사 수십명을 보내왔다.

이날밤에 와서 고공과 공을 만나보고 말하기를 「광주에 김덕홍(金德弘) 김덕령(金德齡)의 형제가 있는데 참으로 장재(將材)니 이 사람들을 격문으로 불러오면 창의소(倡義所)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하였다.

**초2일경인** 옥과의 수령 안곡(安鵠)이 소 세마리를 보내고 편지로 알리기를 「이 고을 소리(小吏)들이 장군을 대접하려던 것인데 미처 못하고 떠나셨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 보내니 한때 군의 먹임으로 쓰십시오」 하였다. 곧 잡아서 군중에 나누어 먹였다.

**초3일신묘** 의병의 진중에서 격문을 돌려 책임을 나누었는데 이정량

20) 行在: 王의 出行所在

대윤(李正郎大胤)과 최미능 상중(崔未能尙重)은 고을에서 운량(運糧)을 하고 양직장 사형(楊直長士衡)과 박진사 천정(朴進士天挺)은 진중으로 운량을 하도록 했다. 남평의 홍주부 민언(洪主簿民彦)이 군량 10석을 보내오고 최주부 응룡(崔主簿應龍)은 그 아들 참봉 영구(參奉永久)와 선비 최후립(崔厚立) 최홍립(崔弘立) 형제로 더불어 장정 몇을 데리고 왔다.

**초4일 임진** 광주의 수령 정윤우(丁允祐)가 군량 50석과 소 두마리를 보내왔고 전 진사 유사경(柳思敬)도 양식과 기계를 모아서 도와줬다.

나주의 종인(宗人) 지경(持敬)이 저물녘에 왔다. 이때 나이가 팔십이었는데도 기운이 펄펄하고 말씀이 격절(激切) 하였다. 공이 이곳에 머물러 일을 같이 하자고 원하자 3일동안 군중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아버이 때문에 가야겠다고 떠나갔다.

**초5일 계사** 광주의 김덕홍 덕령 형제가 격문을 받고 왔다.

형제가 모두 군중에 오래 있었는데 그뒤에 덕령은 돌아가 그 모친을 봉양하고 그 형만 홀로 진중에 머물러 있었다.

**초6일 갑오** 양공이 내일 행군을 하겠다고 편지로 담양의 창의소로 알려왔고 광주의 전 첨사 신건(僉使申健)과 첨정하정(僉正河丁)과 선비 김세근(金世斤)과 무안의 전 주부 박광조(主簿朴光祖) 박광종(朴光宗)의 형제와 해남의 전 부장 고몽룡(部長高夢龍)과 장성의 전첨정 강염(姜恬)이 전후하여 잇달아 이르렀다.

강염은 의사(義士) 칠십여인을 모집해 가지고 왔다.

**초7일 을미** 공이 나가서 보니 큰 붉은 깃발이 앞장을 서고 의병 수천명이 뒷따른 것을 보니 묻지 않아도 양공임을 알 수가 있었다. 공이 고공으로 더불어 나가서 맞아드리고 인사를 끝낸 뒤에 군중을 시켜 소를 잡고 술을 벌여 먹인 뒤에 점고(點考)를 했다. 남평의 진사 문홍헌(文弘獻) 생원 이영근(生員李永根)이 역시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고 저물녘에 성문에서 보고하기를 「한장수가 검은 기를 세우고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하므로 공이 나가보니 안장군 영(安將軍煥)이었다. 맞아드려 고공에게 뵈이니 고공이 더불어 말을 해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영의 자는 원서(元瑞)요 호는 청계(淸溪)니 사제당 처순(思齊堂處順)의 曾孫이요 이때에 나이 이십팔세였으니 공과 본시 좋아 지냈다.

초8일 병신 공이 대중과 타협하기를 「오늘의 일은 반드시 유명하신 큰 어른이 주도권을 갖으셔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큰 일을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곧 단을 모으고 고공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공은 좌부장(左副將)이 되고 양공은 우부장이 되어 고공으로 하여금 단에 올라 군사를 훈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태공병법(太公兵法)에 따라 오행진(五行陣) 가운데에 베풀고 대장기를 세웠는데 황색기를 세웠으니 중앙 토(中央土)의 정색을 취한 것이다. 동쪽의 단에는 청기를 세워 공이 맡고 남쪽의 단에는 홍기를 세워 양공이 맡고 서쪽의 단에는 백기를 세워 고공의 중자가 맡고 남단의 앞에 흑기를 세워 안공이 맡아 군중에 호령이 행해졌다. 이날 군중에 속덕이는 말이 시끄러웠으니 공을 따르던 자들은 「우리가 공의 이름을 사모하여 앞을 다투어 따라 붙었는데…?」하고 양공을 따르던 자들도 「우리가 공의 이름을 사모하여 앞다투어 따라 붙었는데 이제 대장의 자리를 미뤄줘 버린다면 우리는 가버려야겠다」 하였다. 그러자 공은 칼로 단을 치면서 「큰 일이 이미 정해진 마당에 무슨 딴 소리들을 하는고? 우리 세사람이 동심 일체(同心一體)가 된 이상 너희들도 동심일체가 되어 받드는 것이 오늘날 동맹을 한 도리가 아니냐?」 하자 온군중이 두려워하여 굴복을 하고 다시는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원군이 모두 말하기를 「효도로써 임금을 섬김은 충이요 존경으로 어른을 섬기면 순(順)이니 충과 순을 잃지 않고 아름다움을 홀로 가진 사람이 유모(柳某)다」 하였다.

광주 선비 김세근(金世斤)이 병으로 돌아갔다. 공이 타이르기를 「병이 나으면 속히 오도록 하시오」 하였다. 창평의전 현감 조효원(趙孝元)과

남원의 수문장 이억수(守門將李億壽)와 전 현감양정언(梁廷彦)과 순창의 선비 김봉학(金奉鶴)과 조식 조철(趙軾趙徹)의 형제가 혹은 칼을 짊고 혹은 장정을 거느리고 왔다.

**초10일** 무술 광주의 전 봉사 정귀세(奉事鄭貴世)와 함평의 전 주부 박응주(主簿朴應柱) 영광의 선비 이인우(李仁佑) 옥주의 선비 전용관(田用灌) 정읍의 선비 김봉학(金奉鶴) 조식(趙軾)이 가동(家僮)을 거느리거나 혹은 향병(鄉兵)을 거느리고 왔고 영광의 강수은항(姜睡隱沆)은 종제 락(洛)을 시켜 군량으로 10석을 가지고 왔으며 창평의 박장경은 우주(牛酒)를 갖추어 보내왔다.

**초11일** 기해 담양에서 군사를 출발하여 북으로 가서 왕을 호위하기로 하였다. 이때에 해광 송제민(海狂宋齊民) 진사 정암수(丁巖壽) 진사 고성후(高成厚) 진사 최경운(崔慶雲) 참봉 박윤협(朴允協) 강창국(姜昌國) 선비 김후진(金後進) 금현 이대운(琴軒李大胤) 주부 박대기(朴大器) 선전 구희(宣傳具喜)는 운량(運糧)의 일로 밖에 있고 이용중(李容中)은 군과 무기를 이끌고 왔다가 전주서 만나기로 하고 갔다.

**초12일** 경자 진군을 하여 태인(太仁)에 당도 하였다. 이 고을의 전 현령 민여운(縣令閔汝雲)이 정윤근(鄭允謹)으로 더불어 향병을 모집하여 왔다. 전 찰방 이수일(察訪李守一)도 찾아와 따르기를 원했다.

수일(守一)은 바로 일제 항(一齊恒)의 아들이다.

**초13일** 신축 태인으로부터 진군하여 금구(金溝)에 당도하였다. 하루 뒤에 전주에 당도할 작정이었는데 이때에 비가 오고 뇌성도 울리고 하였다. 고공의 장자인 현령 종후(縣令從厚)가 그 아우 인후(因厚)로 더불어 함께 건다가 병이 나서 중도에 지체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겨우 이르고 원근에서 응모하여 오는 자가 날로 많아졌다. 임진강을 빼앗겼단 소식을 들었다.

애초에 한응인(韓應寅) 박충간(朴忠侃) 김명원(金命元)이 임진강을 지키고 있었는데 적병이 건너려해도 배가 없어 부득이 군막(軍幕)을

불태우고 거짓 물러 가는척 하였는데 이렇게한지 십여일만에 신길(申詰)이 강을 건너가 치려고 하거늘 유극량(劉克良)이 말리자 길이 극량을 배려고 하므로 부득이하여 추격을 했다가 적이 과연 복병을 했다가 일어나 공격하는 바람에 두사람이 모두 피살되고 온 군사가 모두 칼날을 받게되어 혹은 강물에 투신하기도 했다. 충간이 먼저 도망을 치자 응인과 명원도 모두 도주하여 지난달 27일에 적이 강을 건넜다.

초14일임인 여러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의병을 더 모집해야만 일을 해낼수 있겠다」 하므로 상장이 말하기를 「만약 더모집을 할려면 누가 그 책임을 맡을고?」 하니 공이 「양공이 아니면 안될 것입니다」 하자 상장이 「내뜻도 그렇다」 하고 즉시 양공을 명하여 군사를 더 모집하기 위하여 남원으로 가게하니 그의 차자 형우(亨遇)가 따라가고 공이 홀로 군중의 모든 일을 맡았으며 양공의 장자 경우(慶遇)로 서기(書記)의 임무를 맡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주에 유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임실현감 이몽상(李夢祥)이 천섭의 곡식을 털어 의사 박순달(義士朴順達)로 하여금 보내와 군세를 도와줬다. 공은 상장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장합니다. 이임실이! 그 아들 정신(廷臣)이 나와 동년에 진사가 되고 문과에 급제를 했는데 지금 헌납(獻納)이 되어 호종(扈從)을 하고 있으니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정신의 자는 공보(公輔)니 뒤에 광주목사가 되었고 공의 순절을 듣고 만사를 지어 슬퍼하였다.

초15일계묘 이때에 무더위가 오랫동안 찜뚱하여 아주 심하므로 사람들이 변열증과 갈증을 못이겨 강에 목욕을 하자니 강물이 끓어져 있었고 샘물을 마시면 샘물이 마를 지경이었다. 이날 상장이 부윤권수(府尹權遂)를 만나보려고 공과 경우를 대리고 가려했는데 경우가 말하기를 「유모는 잠시도 진을 떠나서는 안되니 경우 한사람만 따라가도 됩니다」 하고 같이 가서 권수를 보았다. 수는 나와 맞으며 군례(軍禮)로 보았다. 돌아오자 군에게 먹일 쌀과 콩 오십섬을 보내왔다.

초16일 갑진 비로소 훈련법을 설립하여 더욱 군의 위엄을 벌였다. 전라도사 최철건(全羅道事崔鐵堅)이 크게 우주(牛酒)를 갖추어 군사를 먹였다. 공이 상장에게 말하기를 「이고을의 출신 최호(崔虎)는 육백근 철퇴를 든 힘이 있다고 하니 불러다가 보면 한 도움이 될까 합니다」 하였다. 즉시 격문을 보내 들어오게 하여 만나봤다.

휘하에서 공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초17일 을사 들리는 말이 영남에 침입한 적병이 장차 무주를 범하려고 부근의 고을 민가들을 분탕질을 한다고 하고 또 적선 두척이 순천을 범했다고 한다. 공이 「믿을만한 사람 하나를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복병케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상장이 공을 보내 방어케 하려고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유장군만 믿고 여기 있는데 보내서는 안됩니다」 하므로 그 중자 인후를 시켜 1대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진 안등지에 복병을 하게 되었다.

초18일 병오 이날밤에 상장이 천상(天象)을 쳐다보고 여러사람에게 말하기를 「형혹(熒惑)이 기미(箕尾)의 분야에 들었으니 우리나라가 군사의 침입을 받은 것은 실로 천운이다. 매양 건술방(乾戌方)으로부터 붉은 기운이 일어 형혹성을 부딪고 있는데 그때마다 형혹성의 빛이 죽어가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적의 운이 술(戌)에서 다될 형상이다. 만약 연수로 계산을 한다면 술년이 아직도 6년이나 남았는데 우리는 적들과 실로 한적(韓賊)<sup>21)</sup>마냥 양립(兩立)을 할수 없는 처지거늘 어떻게 6·7년이나 서로 버티는 일이 있겠나? 결코 그럴리는 없겠지」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어찌 그럴 리가 없겠습니까 저의 천견으로 보기에선 저들은 첫번째는 이겼다가 뒤에는 패할 이치가 있고 우리는 첫번째 패했다가 뒤에는 이길 이치가 있으니 이렇게 볼때에 저들은 반드시 술년에 운이 다하고 우리는 반드시 술년에 운이 돌아올 것입니다. 혹

21) 韓賊: 韓과 賊 諸萬亮의 出師表

시 상장께서 한가지만 아시고 두가지를 모르시는가 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경우(慶遇)가 말하기를 달로 계산하는 이만 못합니다. 이제 9월도 술월(戌月)이니 우리가 반드시 이달안에 되놈들을 소탕하고 나라를 평정할 기상일 것입니다」 하니 상장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도 유리하군！」 하였으나 공은 「양군의 말은 틀립니다」 하였다.

초19일정미 임실의 홍낙천석방(洪樂天碩舫)이 가동(家懂)과 물자 양곡을 보내왔다.

편지를 보내 말하였기를 「석방이 이제 나이 팔십육세가 되어 비록 충성심은 간절하지만 황구(黃耆)가 된 쇠잔한 숨결이 적에게 달려갈 수도 없고 또 일찍이 병법도 모르므로 여기 집에 둔 수십명의 종과 약간의 양곡을 보내니 종들은 군의 대열에 끼우고 양곡을 군용에 보태시오.」 했다. 군문에서 보고가 들어오기를 「어떤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하므로 불러들여 만나보니 본부(本府)의 전판관 구지(判官具之)였다. 상장이 「구장군이 같이 일한만한 사람인가?」 하자 공이 「구모(具某)가 의병이 성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향병을 모집하였으니 참으로 의사입니다.」 하여 군중에 머무르게 하여 계책을 논의했다.

초20일무신 채희연(蔡希淵)이 담력과 지략이 많고 궁마(弓馬)의 재주도 있으니 청컨대 격문으로 부르소서」 하였다. 공이 「희연은 어떤 사람인가?」 하자 「가친(家親)이 의병을 일으킬 초기에 그 사람이 응모하여 오자 가친이 보시고 『내가 채군을 얻었으니 적이 나를 어찌하겠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줄 압니다」 하였다. 상장이 즉시 격문으로 불렀다.

희연은 백마를 타고 의진으로 달려왔는데 적들이 보고 「백마장군이 무섭다.」고 하였다.

상장이 공에게 말하기를 「어제 들으니 송강정상국철(松江鄭相國澈)이 강계(江界)의 적소(謫所)로부터 소명(召命)을 받고 평양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네 아는가?」 하였다. 공이 대답하기를 「어젯밤 양군이 상장께서 전일 송강에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송강이 그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상장이 그 소식을 듣고 양군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전일에 송강더러 반드시 왜란이 있을것 이라고 해도 송강이 내말을 믿지 않더니 오늘 와서는 반드시 갈팔질팡 하면서 나를 생각하고 탄식하리라」 하였다.

그리고 탄식을 하며 「송강이 귀양간 것은 나라의 재앙이요 송강이 쓰이게 된것은 나라의 모든 의병을 거느리고 북을 바라고 4배를 했다.

초21일 기유 양공의 의병 가모(加募)를 기다리느라고 전주에 유진을 하고 있는데 저물녘에 진문 밖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하기를 「함양(咸陽)의 김언부(金彦富)란 사람이 집종과 마을 장정 사십여명을 거느리고 이십여석의 곡식을 운반하여 임실땅에 당도했다가 적을 만나 그들에게 상한바가 되어 바른팔이 꺾이고 상처를 싸맨채 돌아갔다.」고 했다.

40여인 중에 한사람만 살고 20여석의 곡식은 그들에게 빼앗겼다. 공은 듣고 탄식을 하며 「여러 사람이 죽은것은 그 책임이 언부에게 있다.」 하였다.

초22일 경술 들리는 말이 무주(茂朱)의 적이 다시 영남으로 향하여 곧바로 대궐을 범할 작정이라고 했다. 상장이 모든 군사에게 훈령하기를 「저 적들이 도성으로 향하려 한다니 우리가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자 즉시 군사를 정돈하여 복상을 해서 왕을 호위할 계획을 했다. 남평에 정준일이 가산을 털어 군사를 모집하여 달려오려다가 병이나서 나서지 못하고 그 아들 현(炫)으로 하여금 무리를 이끌고 가게하여 왔다. 공이 그의 의(義)를 장하게 여겨 상장께 고하고 막중에 머물러 보좌케 하려 했지만 며칠이 지난 뒤에 현이 끝내 부친의 병때문에 하직을 고하고 돌아가고 그 무리들을 놔뒀다.



초23일 신해 대가가 평양을 떠나 의주(義州)로 향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 8일에 적이 대동강에 이르니 다음 3일만에 대가가 평양을 나서 영변(寧邊)으로 향했는데 정철(鄭澈) 최흥원(崔興源) 유홍(俞泓)이 호종을 하고 노격(盧檄)은 묘사(廟社)의 위판(位板)을 받들고 궁인(宮人)들을 보호하여 먼저 성중에서 나갔다.

초24일 입자 상장이 공으로 하여금 군중을 감독하고 살피 명일 새벽에 행군할 계획을 세우라 하였다. 그리고 상장이 그아들 종후(從厚)와 양경우(梁慶遇) 안영(安瑛) 및 좌우영의 모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각기 그 직책을 맡게하고 이날밤 성중에 횃불을 벌여 세우고 앉은체로 아침을 기다렸다. 그때 어떤 사람이 성밖에서 들어와 보고하기를 「전 15일에 적이 평양을 함락하고 그날 대가(大駕)는 가산(嘉山)에 당도 하셨으며 중궁전(中宮殿)은 함경도로 향하고 동궁(東宮)은 묘사(廟社)의 위판을 받들고 박천(博川)으로부터 산군(山郡)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초25일 계속 진군을 하여 여산(礪山)에 당도했다. 이날은 청명하고 남풍이 솔솔 이는데 북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멀리 총소리가 가끔 들렸다. 공은 「이것은 반드시 적의 무리가 점점 근처로 들어온 것이다」 했는데 이윽고 임실에서 사람이 왔는데 바로 영광의 진사 이용중(李容中)이었다. 그 형 참봉 굉중(宏中)의 편지를 갖고 올라오다가 운암(雲巖)에서 자는데 이날밤에 왜병의 군사가 사방에서 일어나 산야에 짙 깔리는 바람에 겨우 몸만 빠져나와 허겁지겁 여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모두가 놀라고 두려워하자 공은 「이 적들을 걱정할 것이 없다. 근일 동북간에 살기가 충전하여 오랫동안 꺼지지 않으니 반드시 적병이 이곳으로부터 우리를 범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불리할 것이니 이것이 걱정스럽다」 하고 곧 상장에게 말씀드리기를 「원컨대 56일만 유진을 하고 사태를 살펴봅시다」 했으나 상장은 「나라의 형세가 다급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유진을 한단 말인가? 자네는 망언을 하지 말게!» 하였다. 공은 재삼 탄식을 하고 부득이 따랐다. 이 고을의 전 판관 송대창(判官宋大昌)이 노중에서 뵈고 군의 뒤를 따랐는데 이날 마상에서 손수 격문을 지어 충청 경기 황해 평안등 모든 도에 통고를 했다. 문사의 뜻이 격렬하여 모두가 사람의 심복을 움직이게 하였으므로 보는자 마다 마음이 감격 되었고 듣는이 마다 향응(饗應)을 하였다.

**초26일 갑오** 양공이 더 모집한 의병을 거느리고 임실의 갈담역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초27일 을묘** 군사가 은진에 당도했다. 상장이 천상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동쪽에 백기가 있으니 반드시 적병이 있어 우리를 범하겠다」 하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 했다. 공은 말하기를 「이 기운이 4·5일 전부터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는데도 알아본 사람이 없었는데 상장께서는 인제야 보셨습니까? 이것이 보통의 기운이 아닙니다. 전번에 내 말을 들으셨드라면 반드시 후회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였다.

**초28일 병진** 들려오기를 황간(黃澗)에 있는 적이 금산을 넘어 장차 전주를 뺨박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자 모의하는 사람들이 「완주(完州)는 바로 호남의 보장이니 근본이 먼저 흔들리면 이기기가 어려울 것이니 먼저 본도를 구하는 이만 못할까 합니다」 하자 상장도 「그렇다」고 하였다.

**초29일 정사** 들려오는 말이 양공이 가모(加募)한 의병을 거느리고 운암에 이르러 왜적을 대파하고 참획(斬獲)한 것이 많다고 하였다. 상장은 승첩의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칭찬을 마지 아니하고 이어 하는 말이 「유군의 말이 옳구만! 이제 완산(完山)의 적은 어찌해야 되는가? 내가 유군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 후회로다」 하더니 공을 보고 「이후로는 군중의 일을 자네 스스로 결정하게」 하였다.

**7월초1일 무오** 들려오는 말이 대가가 의주(義州)에 이르러 행영(行營)을 세웠다고 했다. 모든 의사들을 거느리고 북으로 행재(行在)를 향하여

4배를 하고 곧 군사를 정돈하여 연산(連山)으로 향하니 본도의 수사 정결(水使丁傑)이 군량을 보내 군의 행진을 위로 했다.

초2일 기미 진군을 하여 진산(珍山)에 이르렀다. 이때에 익산의 이보(李寶)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노중에서 마중하며 위로를 하고 오응현(吳應賢) 오응필(吳應弼)이 그 뒤를 따랐는데 모두 항오에 편입하였다.

보는 바로 연평군 목제 귀(延平君默齋貴)의 형이다.

초3일 경신 군사를 크게 먹이고 진산군의 앞들에서 훈련을 했는데 군의 모습이 더욱 웅장하고 사기가 더욱 높아져 소문을 듣고 호응하는 자가 많았다. 들리는 말이 대가가 서순(西巡)을 하여 황조(皇朝)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또 내부<sup>22)</sup>(內附)를 청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황조(皇朝)가 의심하기를 우리나라가 왜적들과 같이 반역을 했는가 하여 최세신(崔世臣) 임세록(林世祿)을 보내 국왕과 상면하기를 원하며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갔다. 그리고 병부상서 석성(兵部尙書石星)이 군사를 발하여 구원해 주기를 청했고 송국신(宋國臣)이란 자가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국왕의 용모를 자세히 봤다고 하고 또 차사(差使)로 온 사람도 보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참으로 왕자의 기상이었다」고 하였으며 심유경(沈惟敬)이 평양에 들어갔을 때에 소서행장(小西行長)이 「일본이 상국(上國)과 통신을 할려는데 조선이 길을 가로막아 사단이 벌어졌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시 황응양(黃應陽)을 보내 우리나라에 왔으므로 비로소 전후의 왜서(倭書)를 보여주니 응양이 「상국을 위하여 대신 병화(兵禍)를 받았도다」 하고 돌아가 석상서(石尙書)에게 말하여 주달하기를 아주 명백하게 하자 황조가 그 의혹을 크게 풀었다.

초4일 신유 양공의 첩보(牒報)를 받았는데 지난달 이십팔일 갑자기 이상한 병을 얻어 전주에 유진을 하고 기일을 마추어 진군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22) 內附 : 明나라 領土內로 附屬됨을 말함.

**초5일** 임술 들리는 말이 적이 금산을 범하여 고을의 수령 권변(權抃)이 패사(敗死) 했다고 한다. 상장이 공을 시켜 격문을 초하여 호서(湖西)의 의병장 조제독헌(趙提督憲)에게 보내 군사를 합쳐 적을 치자고 했다.

전년에 왜사 현소(倭使玄蘇)가 왔을때에 조제독이 상소를 올려 그를 배고 군비를 엄중히 하여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공이 상소를 하여 남쪽의 걱정이 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대략에 「옛날 진(晉)이 우(虞)에게 길을 빌려 곽(虢)을 치려할 때에 백리해(百里奚)가 간하지 않은것은 우나라가 장차 망할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놈이 우리나라에 길을 빌려 천조(天朝)를 범하려하자 조헌(趙憲)이 그를 배어야 한다고 청한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멀리 내다본 것입니다」 하였다. 뒤에 조공도 금산으로 들어와 앞서고 뒤서 같이 순절을 했다.

**초6일** 계해 양공의 병이 위독하다는 기별을 들었다. 양군이 돌아가 시탕(侍湯)을 하겠다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자네 동생이 곁에서 잘 간호를 하고 있으니 무슨 탈이 있겠는가. 또 자네 어르신의 편지에 『임금과 아버지가 일체』란 말씀을 하셨으니 이곳을 떠나서는 안되네.

내가 잠깐 가서 살펴보고 오겠네」 하고 즉시 오리마(烏驪馬)를 채찍질하여 전주로 갔다가 황혼시에 돌아왔다.

**초7일** 갑자 상장이 사졸들을 부서별로 나누었는데 공으로 선봉을 삼고 안공으로 후군을 삼고 상장은 중군에 거하여 떠날 작정을 하고 경우는 진산(珍山)의 본진을 지키도록 했다. 해가 질 무렵에 성문을 두들기며 들어오는 자가 있어서 보니 충남(忠男)이었다. 그가 급히 아뢰는 말이 「전일 말씀하신 영규상인(靈圭上人)이 승도(僧徒) 수백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하였다. 공은 즉시 나가서 맞아드려 인사를 나눈 다음 상장에게 말하기를 「영규가 왔으니 이는 반드시 하늘의 도움입니다」 하였다. 이날밤에 큰 바람이 일고 세찬 우뢰와 몹시 쏟아지는 비까지 겹쳤는데 공은 촛불을 밝히고 단정히 앉았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 양공이 곧바로 자리에 들어와 앉으며 하는 말이 「어젯밤

꿈에 하늘에 올라가서 상제(上帝)를 뵈고 올면서 구원을 청했더니 상제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땅히 신병(神兵)을 보내 적들을 소멸(勦滅)시켜 주겠다」 하셨데」 하였다. 꿈을 깨고나서 경우를 보고 꿈이야기를 하고 「자네 어르신이 반드시 세상을 버리셨는 것같네」 하자 여러사람들이 「꿈을 어떻게 믿는고?」 하였다. 청정(淸正)이 영우(嶺右)로부터 북도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적이 함경도로 들어가 두 왕자 임해군(臨海君) 순화군(順和君)이 적중에 함몰되고 따라간 신 김귀영(金貴榮) 황정역(黃廷或) 황혁(黃赫) 유영립(柳永立) 한국성(韓克誠) 등이 모두 붙잡혔는데 청정이 손수 그 결박을 풀고 군중에 머물러 뒀다고 한다.

**초8일** 을축 진군을 하여 금산에 이르렀다. 이고을의 전 현감 이의정(李義程)과 양응춘(楊應春)이 모두 우주(牛酒)를 갖추어 가지고 마중을 나와 군사의 행진을 위로했다.

**초9일** 병인 금산의 와평(臥坪)으로 옮겨 들어갔다. 방어사 곽영(防禦使郭嶸)의 군사로 더불어 좌우익이 되어 토성(土城)에서 적병을 치니 적병의 기세가 크게 꺾였다. 날이 저물어 돌아왔는데 공이 말하기를 「오늘밤 기습이 있을지 모른다」 하고 적의 진영을 마주 대하고 야숙(野宿)을 하는데 군관(軍官)이 보고하기를 「강물을 건너는 소리가 납니다」 하고 외치자 왜병의 선발대가 저들의 음모가 발각됨을 알고 도망쳐 버렸다. 이날 저녁에 양공이 병으로 군중에서 작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양공이 과연 전7일에 세상을 떠났다. 군중이 모두 공의 꿈이 맞았다고 탐복을 했고 공은 군중에 영을 내려 단을 뭉게하고 글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초10일** 정묘 의군이 먼저 도전을 하니 적의 선군이 나와 싸우다가 불리하여 물러났다. 의군이 승세하여 길게 밀고 나가니 조금 뒤에 적병이 성벽(城壁)을 비우고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방어사 의군이 바

라보고 놀라 먼저 무너지고 의군도 뒷따라 와해가 되어 버렸다. 이날 바람 우뢰가 크게 일어 장사들이 서로 항오를 잃고 말았다. 공만은 말이 워낙 실향해서 먼저 빠져 나왔는데 그 종에게 묻기를 「상장은 빠져 나오셨나?」 하고 물었다. 「못하셨습니다」 하자 공이 「내말을 돌려라!」 하였으나 종은 말을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공은 칼을 빼어 종의 팔을 쳐버리고 뛰어서 어지러운 진중으로 들어가 적군을 닥치는대로 좌로 우로 쳐서 수십명을 베고 대장을 찾아냈다. 대장은 돌아보면서 「나는 빠져 나갈 수가 없으니 왜 먼저 달려 나가지 않는가?」 하였다. 공은 말하기를 「일이 이지경에 이른 이상 차분하게 의(義)를 지키고 왕사(王事)에 죽는 것입니다. 어찌 차마 대장을 버리고 구차하게 산단 말입니까?」 했는데 곧 적의 칼날이 미쳐왔다. 공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내가 죽어도 여귀가 되어 반드시 적을 썰도 남기지 않고 없앨것이니 어찌 장순(張巡)만 못할소냐!」 하고 죽었다. 오리마도 많은 상처를 입어 온 몸에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곧 슬프게 울면서 한번 뛰더니 곁에 이끄는 사람도 없어 바로 공의 머리를 찾아 입으로 물고 즉시 옥과의 합강촌 본집까지 달려갔다. 이때에 부인 김씨는 공이 군사를 이끌고 나간 뒤로 집 정원에다 단을 묻어놓고 낮이나 밤이나 정성껏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말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정신없이 문을 나갔다가 실신을 하고 쓸어졌다. 곁에 사람들이 붙들어 일으키는 바람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말은 이미 죽어 있었고 오직 머리 하나만 땅에 있는지라 곧 받들고 방으로 들어가 의금(衣金)을 갖추어 염을 하고 빈소를 마련했으며 뒤에 남원부의 서쪽 생애동(生涯洞) 뒷기슭 선영(先塋)의 윗쪽에 장사하였다.

이때에 8도의 의병들이 모두 깃발위에다 공의 성명을 쓰고 「거의(擧義)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하였다. 공이 거느렸던 37인은 패전을 한 뒤에 서로 모여서 하는 말이 「유장군이 다시 일을 도모한다면 우리가 협력을 해서 성공을 할수 있는데 포위를 뚫고 남으로 빠져 나왔을

때에 어찌서 살수 있는 길을 버리고 도로 칼날 속으로 뛰어들어 대장을 따라 함께 죽는단 말인가? 그것은 옳은 일은 될지언정 용기는 못된다.

애당초 거사하는 날에 스스로 대장이 되지 않고 끝까지 고공(高公)에게 맹주(盟主)의 자리를 미뤄준것 부터가 다른 사람들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3천이나 되는 의병이 공을 믿고 의지했고 모든 참도들의 지휘도 모두 공에게 들어본 뒤에 시행을 했으니 실상은 맹주(盟主)의 명령에 따른것은 아니었다. 아! 우리들이 모두가 불우한 사람들로써 이세상에 용납되지 못한 처지여서 군사나 피하여 난세에서 살아남을까 하다가 공의 군사 모집한단 말을 듣고 모사를 같이 했던 터이니 다행히 싸움에 이기고나면 공의 덕분에 벼슬이나 상을 받아 전화위복(戰禍爲福)으로 편히 살아볼까 했는데 이제 공이 작고해 버렸으니 우리가 어데로 간단 말인가?」 하면서 말을 마치고 실성통곡(失聲痛哭)을 한 다음 각기 패도(佩刀)를 뽑아 공이 순절한 곳에서 스스로 목을 찢러 죽었다. 왜병들도 이를 보고 놀라고 감탄을 했다.





## 故 劉相鐘 博士 略歷

- 1939年 全南 高興郡 南陽面 望珠里 出生
- 1982年 圓光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卒業
- 1984年 미국 캘리포니아주 골든스테이트대학  
(教育學 博士)
- 1991年 東新大學 副學長

## 월파집(月坡集)

---

1993년 11월 25일 인쇄

1993년 12월 5일 발행

발행처 : 곡 성 문 화 원

인쇄처 : 청 진 문 화 사

광주직할시 동구 금동 10-1

☎ (062) 223-4346

---

이 책은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과 군비일부로 발간되었음.

## 正 誤 表

페이지	行	誤	正
발간사	9行	出陳	出陣
◇	13行	追進	推進
◇	14行	從中	宗中